
제42차 유엔통계위원회 참가 결과보고서

(The 42nd Session of the UN Statistical Commission)

2011. 3.



기 획 조 정 관
국제협력담당관

< 목 차 >

I. 개 요	
가. 회 의 명	
나. 참가목적	
다. 출장기간	
라. 출장지역	
마. 대표단 구성내역	
II. 주요의제	
가. 토론 및 의사결정 의제	
나. 정보제공의제	
다. UNSD프로그램 질의	
라. 43차 위원회 잠정의제 및 일정	
마. 42차 위원회 보고	
III. UN통계위원회 및 주요회의 일정	
가. UN통계위원회 일정	
나. 부대행사(side event)일정	
IV. 주요활동	
가. 주요 회의참석결과	
1) 유엔통계위원회	
2) OECD의장단 비공개회의	
3) 공식통계의 기본원칙에 관한 고위급 포럼	
4) 국민웰빙측정에 관한 비공개세미나	
5) Side Event발표(「러닝센터」 : 경기순환시계)	
나. 국제 통계협력 활동	
1) 유엔통계처장과 국제회의 개최합의	
2) OECD통계국장과의 국제세미나 개최합의	
3) 주요 협력국 및 국제기구 수장과 통계협력방안 논의	
4) ESCAP통계국장 및 UNSIAP소장면담	
5) 유엔대표부 차석대사 면담	

다. 개도국 통계역량강화 협의

- 1) 카자흐 국가통계역량 강화사업
- 2) 사우디 아라비아 기술지원 및 양자협력관계 합의

V. 제42차 유엔통계위원회 결과보고

- 가. 유엔통계위원회 결과보고안(국문, 영문)
- 나. 프로그램 Statement(국문, 영문)

VI. 유엔통계위원회 논의의제 요약 및 코멘트

- 1) 의사 일정
- 2) 세계통계의 날에 대한 사무총장 보고서
- 3) 성인지통계에 대한 가나통계청 보고서
- 4) 성인지통계 프로그램에 대한 사무총장 보고서
- 5) 여성폭력에 대한 유엔통계위원회 FOC 보고서
- 6) 국민계정에 대한 작업반 보고서
- 7) 환경-경제계정에 대한 전문위원회 보고서
- 8) 에너지통계에 대한 사무총장 보고서
- 9) 에너지통계에 대한 오슬로 그룹 보고서
- 10) 통합경제통계에 관한 FOC 보고서
- 11) 단기경제지표에 대한 사무총장 보고서
- 12) 국제비교프로그램(ICP)에 대한 세계은행 보고서
- 13) MDG 모니터링 필요지표에 대한 사무총장 보고서
- 14) 인간개발지수(통계)에 대한 통계위원회 보고서
- 15) 인간개발지수(통계)에 대한 UNDP 보고서
- 16) 유엔 공표지표에 대한 브라질, 모로코, 남아프리카의 문제제기
- 17) 공식통계 기본원칙 이행에 대한 사무총장 보고서
- 18) 통계역량구축에 대한 사무총장 보고서
- 19) 21세기 발전을 위한 통계 파트너십(PARIS21) 보고서
- 20) 서아시아 지역통계개발에 대한 UNESCWA 보고서

VII. OECD통계위원회 의장단회의 의제 요약 및 코멘트

- 1) CSTAT 평가 절차 2011-2012
- 2) 향후 CSTAT 회의 시기 및 기간
- 3) CSTAT 국제관계전략 업데이트
- 4) OECD의 자료 보안 및 비밀보호 원칙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 5) 마이크로데이터 접근
- 6) 부가가치 측정
- 7) 2011 CSTAT 회의 의제 최종 승인
- 8) 두 전문가그룹의 업데이트:
- 9) 녹색성장지표
- 10) 발전지수측정 문서: How's Life? 의 업데이트

VIII. 기 타

- 1) 스탠포드대 후버연구소 부소장 면담
- 2) 제42차 유엔통계위원회 참가 사진
- 3) 주요 면담자 명함모음
- 4) 주요 인사 약력
- 5) UN통계위원회 개요
- 6) UN통계처 조직도
- 7) 참고 자료
- 러닝센터 발표자료(경기순환시계)
- 후버연구소 면담자료(2010인구센서스 인터넷조사)
- 스탠포드대 고령화센터 자료

IX. 회의의제 자료(영문)

- 1) 유엔통계위원회
- 2) OECD의장단 회의
- 3) 고위급 포럼
- 4) 참가자 명단

I**제42차 유엔통계위원회 참가 개요****가. 회의명 : 제42차 유엔통계위원회****(42nd session of the United Nations Statistical Commission)****나. 회의기간 : 2011.2.21(월) ~ 2.25(금)** (* 출장기간 : 2011. 2.20 ~ 2.27)**다. 출장지역 : 미국 뉴욕 유엔본부****라. 대표단 구성내역**

- 대표단장 : 이인실 통계청장
- 대표단원 : 정인숙 국제협력담당관, 강창익 인구총조사과장, 성기도 국제협력 사무관, 주유엔대표부 김창모 참사관, 정영택 한국은행 국민계정실장

마. 주요 활동 및 성과

- 제42차 유엔통계위원회 회의참가 및 관련의제 적극대응
 - 논의의제(13) : 성인지 통계, 국민계정, 환경-경제계정, 에너지, 경제통계, 인간개발지수, 역량강화 등
 - 정보제공의제(15) : 인구센서스, 보건, 교육, 농업, 물가, 환경, 통계기준 등
- OECD통계위원회 의장단 회의참가, 고위급 포럼 참가
- UN통계처장과 「녹색성장통계 국제세미나」 금년 공동개최 협의
- OECD통계국장과 「통계지식전환 혁신 국제세미나」 2012년 한국개최 협의
- 주요국 통계청장과 통계협력방안 협의(중국, UAE, 독일, 몽골, EU 등)
- 개도국의 국가통계역량강화 지원요청에 대한 협의(사우디, 가나, 인니 등)
- 카자흐스탄 통계역량강화사업(KAZSTAT)에 선진국 컨소시엄으로 참여합의
- Side Event(러닝센터)에서 ‘한국의 경기순환시계’ 사례발표
- 주UN대표부 차석대사면담
- 스탠포드대 후버연구소 부소장 면담

가. 토론 및 의사결정 의제 (Items for discussion and decision)

- ① 세계통계의 날, ② 성 인지 통계, ③ 국민계정, ④ 환경-경제계정, ⑤ 에너지통계, ⑥ 통합경제통계, ⑦ 단기경제지표, ⑧ 국제비교프로그램, ⑨ MDG 지표, ⑩ 인간개발지수, ⑪ 공식통계 기본원칙, ⑫ 통계역량 강화, ⑬ 서아시아 지역 통계발전

나. 정보제공의제 (Items for information)

- ①인구·주택센서스, ② 보건통계, ③교육통계, ④농업통계, ⑤비즈니스 레지스터, ⑥관광통계, ⑦물가통계, ⑧환경통계, ⑨통계프로그램의 조정 및 통합, ⑩통계기준 인벤토리, ⑪SDMX, ⑫국가품질보증체계, ⑬공간정보 관리, ⑭경제·사회발전의 측정, ⑮ 2011-14년 통계위원회 프로그램(안)

다. UNSD 프로그램 질의

라. 제43차 위원회 잠정의제 및 일정

마. 제42차 위원회 결과보고

III

UN통계위원회 및 주요 회의일정

가.. UN통계위원회 회의일정

월 일	구분	주요내용	비고
2.22 (화)		Opening of the Session	
	Item1	의장단 선출	10:30 a.m.
	Item2	의제 및 기타 조서관련 문제 채택	-
	Item3	논의의제 (Items for discussion and decision)	1:00 p.m.
	Item3(a)	세계통계의 날 (E/CN.3/2011/2)	
	Item3(b)	프로그램 검토 : 성인지통계 (E/CN.3/2011/3)	
	Item3(c)	국민계정 (E/CN.3/2011/6)	3:00 p.m.
	Item3(d)	환경-경제 계정 (E/CN.3/2011/7)	-
	Item3(e)	에너지 통계 (E/CN.3/2011/8)	6:00 p.m.
	Item3(f)	통합경제통계 (E/CN.3/2011/10)	
2.23 (수)	Item3(g)	단기 경제지표 (E/CN.3/2011/11)	10:00 a.m.
	Item3(h)	국제비교프로그램(ICP) (E/CN.3/2011/12)	-
	Item3(i)	MDG지표 (E/CN.3/2011/13)	1:00 p.m.
	Item3(j)	인간개발지수(통계) (E/CN.3/2011/14)	
	Item3(j)	인간개발지수(통계) (E/CN.3/2011/15)	3:00 p.m.
	Item3(k)	공식통계기본원칙 이행 (E/CN.3/2011/17)	-
	Item3(l)	통계역량구축 (E/CN.3/2011/18)	6:00 p.m.
2.24 (목)	Item3(m)	서아시아 지역 통계발전 (E/CN.3/2011/20)	
	Item4	정보제공의제 (Items for information)	
	Item4(a)	인구주택센서스	
	Item4(b)	보건통계	
	Item4(c)	교육통계	
	Item4(d)	농업통계	
	Item4(e)	비즈니스 레지스터	
	Item4(f)	관광통계	10:00 a.m.
	Item4(g)	물가통계	-
	Item4(h)	환경통계	1:00 p.m.
	Item4(i)	통계프로그램의 조정 및 통합	
	Item4(j)	글로벌통계기준 인벤토리	
	Item4(k)	데이터 및 메타데이터 교환·공유의 공통기준	
	Item4(l)	경제사회위원회정책결정에 대한 후속조치	
	Item4(m)	국가품질보증체계	
Item4(n)	글로벌 공간정보관리		
Item4(o)	경제·사회발전의 측정		
2.25 (금)	Item5	프로그램질의(유엔통계처)	10:00 a.m.
	Item6	제43차 유엔통계위원회 임시의제 및 일정	-
	Item7	제42차 유엔통계위원회 보고서 채택	1:00 p.m.

나. 부대회의(Side Event) 일정

	오 전	오찬	오후
2.18(금)	09:30 - 1:00 공식통계 세미나 글로벌 도전과제 대응을 위한 통계프레임워크의 혁신 (UNSD주관, Conf.Room2 TNLB)		2:00 - 4:30 (계속)
2.19(토)	09:30 - 12:00 통계발전 재정지원 회의 (PARIS21 주관, DC2-2111)	1:00 - 3:00 농업·농촌통계 개선 글로벌 전략의 아프리카 실행회의 (UNECA주관, 비공개)	3:00 - 5:00 이탈리아 센서스 분석에 관한 자문회의 (DC2-1949, 비공개)
2.20(일)	09:00 - 12:00 ICP 집행위원회 회의 (세계은행주관, 비공개) 10:00 - 12:00 국가발전지수에 관한 DFID프로젝트 (UNSD주관, 비공개)		2:00 - 4:00 ESCAP통계위 의장단 미팅 (DC2-2111, 비공개) 2:00 - 4:30 PARIS21 집행이사회미팅 (DC2-1949, 비공개) 4:00 - 7:00 국민웰빙측정에 관한 세미나 (브라질 유엔대표부, 비공개)
2.21(월)	<Learning Centres>(UNSD) 10:00 - 12:00 ①경기순환분석 (네덜란드,한국,멕시코 발표) (DC1 3층 Staff 라운지) 10:00 - 12:00 ②센서스 데이터의 배포 (DC2 1949) 09:30 - 12:00 제17차 CCSA회의 (DC2-2330, 비공개) 11:30 - 1:30 ECLAC(중남미경제위원회)집행위 원회 미팅 (DC2-1949, 비공개) 12:00 - 1:00 신규참가자 오리엔테이션 (DC2-2330, 비공개)	2:00 - 3:00 오찬세미나 에너지통계에 관한 국제권고 :성과와 향후과제 (UNSD주관,DC2-2330) 1:00 - 3:00 IAOS집행위원회 미팅 (DC2-2111, 비공개)	3:00 - 6:00 <고위급 포럼> (UNSD) 「공식통계의 기본원칙 : 도전과 대응」 (밀레니엄 UN Plaza 호텔)
2.22(화)	10:30 - 1:00 제42차 UN통계위원회 개회식 (장소 : ECOSOC Chamber, TNLB)	1:55 - 3:00 오찬세미나 통계시각화 : 지식포털 (UNSD, 세계은행 주관) (장소 : Conf.Room7, TNLB) 1:30 - 3:00 농업통계개선에 관한 글로벌 전략 실행방안 (FAO주관,Conf.RoomD,TNLB)	각국 대표단 환영리셉션 (장소 : 오만대표부 12층)

	오 전	오찬	오후
2.23 <small>㉔</small>	<p>8:00 - 09:30 국제교역통계 회의 (UNSD주관, Conf.Room7,TNLB)</p> <p>8:00 - 09:30 CES(UNECE산하 유럽통계회의) 의장단 미팅 (Conf.RoomD,TNLB, 비공개)</p>	<p>1:50 - 3:00 오찬세미나 지수개발 - Ian Castle(전 호 주통계청장)추모 세미나 (UNSD, 호주통계청 주관) (Conf.RoomD,TNLB)</p> <p>1:50 - 3:00 경제·재정통계에 관한 그룹간 회의 (Conf.RoomD,TNLB)</p>	
2.24 <small>㉕</small>			<p>2:00 - 4:00 인구주택센서스의 새로운 기술 : 국가별 사례 (UNSD주관, ECOSOC Chamber)</p> <p>4:00 - 6:00 제3차 OIC멤버국가 통계청 대표단 회의 (ECOSOC Chamber, TNLB 비공개)</p> <p>2:00 - 5:00 SIAP집행이사회 (DC2-1684, 비공개)</p> <p>2:00 - 6:00 OECD통계위 의장단 회의 (Conf.RoomD,TNLB 비공개)</p>
2.25 <small>㉖</small>			<p>1:00 - 2:30 Statistics Cluster (장소미정, 비공개)</p> <p>1:30 - 4:30 제5차 글로벌프로젝트 이사회 (UNDP, OECD주관) (UNDP-HDRO 회의실, 비공개)</p>

IV. 주요 활동 및 성과

- 1. 주요회의 참석결과**
- 2. 국제기구, 주요 협력국과의 국제협력 활동**
- 3. 개도국 통계역량강화 지원 협의**

가. 주요회의 참석 결과

1) 유엔통계위원회 (UNSC)

- 의장단 선출
 - 의 장 : Mr. Ali bin Mahboob Al Raisi(오만)
 - 부의장 : Mr. Brian Pink(호주), Mr. Alexander Surinov(러시아),
Mr. Eduardo Sojo Garza-Aldape(멕시코)
 - 서 기 : Ms. Anna N. Majelantle(보스와나)
- 참가인원 : 약 450명 (132개국 및 41개 국제기구)
- 성 인지 통계, 국민계정, 인간개발지수 등 최근 이슈관련 의제

동 의제에서는 최근 국제사회의 주요 이슈로 등장하고 있는 경제사회 분야 통계 등 13개 심의의결 의제와 15개 보고의제가 상정되어 각국 통계청의 관련통계 작성 방향과 향후 계획에 관해 논의

- 성인지 통계 (Gender statistics)
 - 성인지프로그램에 대한 각 국 인지도는 높은 반면, 실질적인 이행은 지역적인 범위에서 이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동 프로그램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한 종합적인 검토와 국제비교가 가능한 최소의 통계지표세트 마련방안 등에 대해 논의
 - 특히 유엔통계청은 기술 및 재정 필요 국가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책을 마련하는 등 리더십을 발휘해 줄 것을 요청

- 국민계정 (National accounts)

- 2008 SNA 번역 및 발간, 국민계정작성업반의 권한 및 책임범위 및 향후 2008 SNA 이행 범위, 준수 및 이행프로그램 등에 대해 논의
- 새로운 SNA가 금융 및 경제위기의 구조적 측면을 좀더 잘 파악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를 제공하고 있고, 속보 추계 및 그 조기 공표는 2008 SNA의 이행에 기여할 수 있는 측면이 있음
- 따라서 속보성지표 및 종합경기순환지표의 데이터템플릿 개발 사업은 2008 SNA 이행 프로그램에 통합되는 것이 바람직
- 또한 각국은 자국의 실정에 맞게 2008 SNA로 이행하는 각 단계의 경과기간을 정하도록 되어있고, 각 단계별로 2~3년간의 이행기를 거쳐 2014년부터 다수의 회원국이 2008 SNA로 이행 예정

- 공식통계 기본원칙(Fundamental Principles of Official Statistics)

- 유엔통계위의 '94년 기본원칙 공식채택 이후, 각국 통계청은 통계법 제정 시에 이를 반영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 동 원칙을 적용
- 최근 공식통계 기본원칙 이행이 미비하다는 회원국의 비공식 평가 및 기본원칙 20주년 준비 차원에서 원칙 재개정 여부, 각국 이행사항에 대한 국가보고서 마련 여부 등을 논의

- 인간개발지수(Human Development Index)

- 2010 인간개발보고서에 사용된 데이터의 적절성 및 조사방법의 적절성 등에 대해 논의
- 새로운 지표 개발은 각 국에 미치는 과급력을 고려하여 반드시 투명한 절차를 통해 개발되어야 함을 강조

- 인간개발보고서에 활용되는 모든 지표의 데이터 출처 및 조사방법을 공표하고, HDI 관련 통계자문전문가팀 활동을 재개할 것 등 권고
- 또한 인간개발지수 개발 및 변경 시 공식통계를 활용하여 국제비교성을 확보한 지표가 지속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독려
- 인간개발보고서 사무국은 금번 권고사항 이행에 대한 보고서를 차기 제43차 유엔통계위원회에 보고해 줄 것을 요청함

- MDGs 모니터링 지표

- MDGs 모니터링 제고를 위한 국제적 노력뿐 아니라 국가차원에서 MDGs 모니터링에 필요한 조사기법 및 조사 tool 개발, 교육프로그램 제공 등 다방면의 노력이 필요함을 논의
- 특히, MDGs 모니터링을 위한 지표는 국제 비교 및 평가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생산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SDMX 도입 독려 및 유관 교육프로그램 및 기술지원 제공 필요성에 대해서도 논의

※ 청장님 주요 발언요지

< 성인지 통계 >

- UNSD가 그 동안 개발·보급한 다양한 방법론과 가이드라인은 UN 회원국의 성인지통계 생산을 촉진하는데 크게 기여하였음
- 한국의 경우, 통계법에서 성인지통계 작성을 규정하고 인구총조사, 생활시간 조사 등을 통해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음.
- 성인지통계 발전 정도가 일정 수준에 도달한 UN 회원국에 적합한 성인지통계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음
- 또한 공급측면 뿐 아니라 수요측면을 반영한 통계지표 개발이 중요하며, 생산자 뿐만 아니라 성인지통계 사용자 대상의 훈련 매뉴얼을 개발·보급할 필요가 있음

< 국민계정 >

- 2008 SNA 발간 및 배포를 환영하고, 2008 SNA의 5개 국어 번역은 각국이 2008 SNA로 이행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하며, 한국도 국어 번역본을 2010년 2월 발간한 바 있음
- 또한, 속보성지표 데이터 템플릿 개발사업의 2008 SNA 이행 프로그램 통합에 관해서는 기존의 연구성과 및 각국 자료 입수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구체적 통합방안을 조기에 마련·제시할 수 있기를 희망함

< 공식통계 기본원칙 >

- 공식통계 기본원칙 개정이 필요하다면 ‘응답부담의 관리’에 대한 규정 추가를 제안함
- 즉, 최근 프라이버시 증가와 응답부담 가중에도 불구하고, 현재 기본원칙은 통계의 품질유지와 응답자의 권리보호 측면에서 비밀보호 규정은 두고 있으나, 응답부담의 관리에 관한 규정은 없는 상황
- 구체적으로는 통계조사표 상에 응답자의 응답부담을 명시하게 하고, 전체 공식통계에 대한 응답부담(시간)과 응답부담 경감 노력 등을 정기적인 국가보고서에 포함시키는 것이 좋을 것임

< 인간개발지수 >

- 인간개발지수는 국가별의 발전상태를 비교적 간단·명료한 지표와 지수를 통해 주기적으로 진단하고 평가하는 데 유용하며 이번 2010 인간개발지수 개정은 시의적절하며 타당함
- 국가가 발전할수록 불평등과 빈부격차는 더 심해지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불평등지수, 성불평등지수, 다차원 빈곤지수 등 신규 추가 HDI는 각 국가의 사회정의와 복지 수준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잣대가 될 것으로 판단
- 또한 국제비교가능성 및 신뢰성을 위해 공식통계를 사용하여야 하나, 국가별 통계역량 차이로 인해 공식통계를 제공할 수 없는 국가를 위하여 별도의 지원 계획이 수립되어야 하며, 공식통계를 대체할 수 있는 유사 통계의 기준과 조건에 대한 합의도 필요

< MDGs 모니터링 지표 >

- 2015년 MDG 달성에 대한 비관적인 전망 타개를 위한 국제공조가 강화되어야 하며, MDG목표의 달성 진척도를 객관적으로 보여 줄 수 있는 지표를 생산 및 관리하는 중앙통계기관의 역할은 매우 중요
- 또한 MDG지표생산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며, 국제기구의 지역사무소 및 통계연수소 등과 협력하여 지역(subregional) 국가별 연수프로그램을 구성한다면 역내 특성을 고려하여 진행되는 과정인 만큼 그 효과가 클 것임

2) OECD의장단 비공개회의

○ (안건1) '향후 OECD통계위원회 회의 시기 및 기간'

- 청장님 : 동 안건지지

○ (안건2) 'CSTAT 국제관계전략 업데이트'

(안건3) 'OECD의 자료보안 및 비밀보호 원칙에 대한 설문 조사 결과'

- 청장님 : 동 안건에 동의

○ (안건4) '마이크로데이터 접근'

- 청장님 발언요지

“한국은 법적 문제로 인해 경제활동인구조사 공공이용 마이크로데이터는 파일로 제공가능하나, 개인식별정보의 기밀자료가 포함된 Licensed Microdata는 파일로 제공이 불가. 또한 OECD 국가에 대한 기업명부 구축 시 법적으로 가능한 범위에서 참여할 예정임.”

○ (안건5) '부가가치 측정'

- 청장님 발언요지

“제조업 분야의 국제생산 네트워크는 주로 선진국과 신흥개도국 사이에서 빈번하게 이루어지므로 OECD 비회원국을 편제범위에 포함할 필요가 있음.”

○ (안건6) '2011 OECD통계위원회 회의 의제(안)'

- 청장님 : 동 안건 승인

○ (안건7) '녹색성장지표'

- 청장님 발언요지

“녹색성장을 대표하는 녹색성장 헤드라인 지표에서 녹색성장의 2번째 목적인 ‘녹색경제의 성장’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추가를 제안함. OECD가 주요한 녹색산업 재화 및 용역리스트를 지정하여 공시한다면, 부분적으로라도 ‘녹색경제의 성장’을 측정하는 국제비교 가능한 지표작성이 가능할 것임”

○ (안건8) '발전지수 측정 문서 : How's Life? 업데이트'

- 청장님 발언요지

“핵심지표에 대한 단일 종합지수 생산은 장기적인 과제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현실적으로 지수의 정치적 중립성 논란, 방법론적인 문제 등을 고려할 때 장기적 관점에서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음. 이점에서 단일 지수를 보고서에 포함하지 않으려는 계획에 동의함.”

3) '공식통계의 기본원칙' 에 관한 고위급 포럼

(Fundamental Principles of Official Statistics; Threats and Responses)

- (공식명칭) High Level Forum on Official Statistics
- (일시/장소) '11.2.21.(월) 15:00~18:00
밀레니엄 UN 플라자호텔 Diplomat 볼룸
- (주 제) 공식통계의 기본원칙 : 위기와 대응
(Fundamental Principles of Official Statistics : Threats and Responses)
- (좌장 및 패널 명단)

역 할	성 명	소 속 및 직 위
좌 장 Moderator	질 매더슨 Ms. Jill MATHESON	영국 통계청장
패 널 Panelists	장 루이 보딘 Mr. Jean Louis BODIN	前 ISI 회장
	팔리 레홀라 Mr. Pali LEHOHLA	남아공 통계청장 UN아프리카경제위원회 통계위 의장
	브라이언 핑크 Mr. Brian PINK	호주통계청장 UNESCAP 통계위원회 의장 OECD 통계위원회 의장
	발터 라데마허 Mr. Walter RADERMACHER	EUROSTAT 통계처장
	에두아르도 소호 가르자 알다페 Mr. Eduardo Sojo GARZA-ALDAPE	멕시코 통계청장

○ **Mr. Jean Louis BODIN(前 ISI 회장) 발제 요지**

- '94년 기본원칙 채택 이후, 각국 통계청은 동 원칙 적용에 충실하였으나 대부분의 성공사례(good practice)에도 불구하고 나쁜 사례(bad practice)는 존재
- 특히 공식통계 조직의 독립성과 업무상 중립성, 역할범위 등에 대한 정치권, 외부기관, 비전문가의 간섭과 통계의 부정확한 사용 등은 공식통계 원칙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며 이에 대한 대응방안이 필요

- 패널들은 기본원칙은 1)통계인의 국제행동강령, 2)공식통계의 핵심가치를 표명, 3) 공식통계 성과평가의 기준 등 그 중요성에 대해 공감

※ 패널 발표자료 : 붙임

- 공식통계의 중요성과 이에 따른 국가통계청의 독립성을 고려할때 공식통계의 품질을 저해하는 어떠한 외부간섭에 대해 반대하며, 기본원칙은 지난 18년간 통계청의 역할과 환경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함을 강조함.

(예시 : 통계청장의 임명 및 해임절차를 기본원칙에 포함, 통계품질 및 통계직업윤리성을 법령에 명시 등)

4) 국민웰빙측정에 관한 비공개세미나 (Seminar on Measuring National Well-being)

○ 일시 · 장소 : '11.2.20.(일) 16:00~19:00

주 유엔 브라질대표부 9층(747 3rd Avenue, New York)

○ 목 적 : 영국통계청의 '국민웰빙측정 개발 보고서'에 대한 각국
의견 수렴

○ 영국통계청(ONS) 보고서 요약

1. 국민 웰빙의 정의 관련

○ (현황) 국민 웰빙에 대한 명확한 정의는 부재한 상태

- (내용) '국민 웰빙'은 국민 삶의 질, 환경과 지속가능성, 경제적 성과를 포함
- (영역구성) 9개 영역을 잠정적으로 제시

① 소득과 부 ② 직업만족도와 경제적 보장 ③ 지역 및 국가 쟁점에 대한 발언권
④ 친구 및 친척과의 관계유지 ⑤ 환경 관련 현재 및 미래 조건 ⑥ 범죄 ⑦ 건강
⑧ 교육과 훈련 ⑨ 돌봄과 자원봉사를 포함하는 개인적 및 문화적 활동

2. 국민 웰빙 측정 필요정보

○ (잠정안) 잠정안으로 10개 필요통계 제시

① GDP ② 고용율/실업율 ③ 기대수명 ④ 삶에 대한 만족도 ⑤ 범죄통계 ⑥ 교육수준
⑦ 소득분배 ⑧ 사회자본 측정 ⑨ 건강통계 ⑩ 환경통계 ⑪ 기타__

3. 측정방법 및 결과 활용

○ (척도구성) 측정방법으로 5가지 안을 제시

① 경제 척도만 사용 ② 종합적인 삶에 대한 만족도/행복도에 대한 단일 척도
③ 소수의 지표 선택 ④ 다수의 지표 세트 ⑤ 많은 정보를 조합한 단일 지수

○ 주요 논의 내용

- 국민 웰빙(national well-being) 측정에는 국민 삶의 질, 환경과 지속가능성, 경제적 성과를 포함하며 다양한 영역이 있으며, 국민 웰빙의 정의, 웰빙의 측정방법과 결과활용 방안 등에 대해 논의
- 참가자들은 공식통계 및 국가통계청들이 사회발전, 국민웰빙을 측정하고 평가할 수 있도록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며, 웰빙 개념과 프레임워크 정립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함
- 웰빙측정 지표에는 경제적 척도 등 객관지표 뿐만 아니라 삶의 만족도, 가족관계, 신뢰 등 주관적 지표도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 OECD는 2011년 5월 11개 분야 및 분야별 핵심지표와 보조지표 세트를 발표할 예정이며, 금년말까지 국가별 통계가 수록된 추이 평가 보고서 'How's Life?' 발간. 다만, 지표를 종합한 단일지수는 작성하지 않고 연구는 지속수행할 계획
- 국제적으로 주관적 지표 포함에 대한 우려가 줄고 오히려 그 중요성과 가치를 재인식하는 단계에 와있으며, 사회 이슈를 다루는 조사와 객관적 측정방법을 개발이 많이 축적된 상태임을 재확인
- 공식통계 및 국가 통계청의 역할이 기존 통계작성범위를 넘어 더 확장되어야 하며 삶의 질, 웰빙 등 새로운 주제를 실험, 개척하는 것이 필수적

○ 청장님 발언요지

- 한국도 삶의 질을 측정 평가하기 위한 기초작업을 진행하고 있고 객관적 지표와 주관적 지표를 포함한 지표세트를 실험적으로 만들고 관련 자료시계열 분석 수행 중이며, 국제통계사회에서의 연구 및 기술 축적에 발맞추어 나아가고자함

5) Side Event 발표(「러닝센터」 : 경기순환시계)

- 일시 · 장소 : '11.2.21.(월) 10:00~12:00, DC1 3층 Staff lounge
- 참석자 : 각국 대표단 약 50명
- 주재 : Mr.Geert Bruinooge (네덜란드 통계청 부청장)
- 발표제목 및 발표자 : 네덜란드, 멕시코, 한국
 - Business Cycle Factsheet (네덜란드통계청, Mr.Wouter Jonkers)
 - Why did INEGI implement the business cycle clock of Mexico (멕시코통계청장, Mr.Eduardo Sojo Garza-Aldape)
 - A Business Cycle Clock(BCC) in Korea(강창익 인구총조사과장)
- 한국 발표(인구총조사과장) 주요 내용
 - 경기순환시계(BCC) 개발과정
 - BCC 구성요소 설명
 - 활용방법(인터넷을 통한 시연도 포함)
 - 한국 BCC의 주요 특성 등
- 결과 및 의의
 - 경기순환시계는 현재 한국, 네덜란드, 독일, OECD, Eurostat, 멕시코 등 5개국에서만 서비스되고 있음
 - 주요 경제지표들이 상승·둔화·하강·회복 중 어느 국면에 와 있는지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개발한 '경기순환시계(Business Cycle Clock)'를 유엔회원국 참가자를 대상으로 사례발표하고 이란, 몽골, UAE 등 질문에 답변
 - 이를 통해 우리의 앞선 통계시스템을 국내외에 알리고 향후 개도국 기술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활용가능할 것으로 판단

나. 국제기구, 주요 협력국과의 국제 통계협력 활동

- 유엔통계처장(Mr. Paul Cheung)과 「녹색성장통계 국제회의」 공동개최 합의 등
 - 최근 기후변화 및 에너지 위기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환경을 생각하며 지속적인 성장 가능성에 초점을 둔 녹색성장(Green Growth)이 전 인류가 당면한 새로운 이슈로 주목받고 있는 상황
 - 선진국 중심으로 탄소배출권 시장, 신재생에너지 등 녹색성장과 관련된 정책을 국가주요 정책으로 수립하고 세계 녹색시장 선도를 위해 국력을 집중하는 추세
 - 한국도 '08년에 녹색성장을 새로운 국가발전전략으로 선정하고 다양한 정책을 수립하여 추진중
 - 이에따라 한국통계청·UNSD 등 공동주관으로 각국 통계청장, 국제기구 수장, 녹색성장 정책부서 등 고위급이 참여하는 녹색성장 및 공식통계 국제세미나를 한국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하고 세부사항 협의

국제회의 개요

- 회의명 : 「녹색성장 및 공식통계 국제회의」
(International Conference on Green Growth and Official Statistics)
- 시기 및 장소 : 2011.7.6.~7.8.(3일간), 서울
- 공동주관 : 한국통계청, UN통계처, OECD, Eurostat, 세계은행
- 참가국(대상) : 약 30~40개국, 50~60명 (청장급, 국제기구 수장, 정책부서)
 - 서유럽선진국(노르웨이, 덴마크, 스웨덴, 영국 등)
 - 산업화 과정에서 녹색성장의 필요성이 부각되는 국가(중국, 브라질, 인도, 싱가포르 등)
 - 국제기구(OECD, Eurostat, UNECE, 세계은행 등)

- 또한 통계청 직원의 통계전문 역량 강화를 위한 단기연수(2-3주)를 UNSD에서 실시하는 방안에도 긍정 검토

□ **OECD통계국장(Ms. Martine Durand)**와 「통계지식전환 혁신 국제세미나」 한국개최 합의

- 최근 신뢰성 있는 통계생산 뿐만 아니라 통계 자료, 지표, 지수, 비교표 등을 한 눈에 읽을 수 있는 시각화 요소를 가미하여 통계 접근을 용이케 하는 수요자 중심의 통계서비스 제공이 세계적인 추세임
- 이에따라 한국과 OECD는 「통계지식전환혁신 국제세미나 (International Seminar on Innovative Approaches to turn Statistics into Knowledge)」를 내년 6월경(잠정) 한국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함

※ ‘통계지식전환혁신세미나’ 개최연혁
이태리(2007), 스웨덴(2008), 미국(2009), 남아공(2010)

- 또한 OECD는 오는 5월 멕시코에서 개최되는 글로벌프로젝트 중남미 회의에 한국통계청장을 초청하면서 ‘09년 제3차 OECD 세계포럼의 성과, 세계포럼의 발전방향 등에 대한 폐회식 연설을 의뢰함.
- 오는 11월 일본에서 개최되는 아시아회의에 한국통계청이 별도 세션을 주관하기로 하고 세션 구성과 방법 등에 대해서도 협의함
- 한-OECD간 통계협력강화를 위해 통계청 직원을 OECD통계국에 파견하기로 하되, 세부분야와 시기는 OECD통계국과 우리측 수요를 조율하여 결정기로 함.

□ 주요협력국 및 국제기구 통계수장과 통계협력방안 논의

- 중국 통계청장(Mr. Ma Jiantang), UAE통계청장(Mr. Rashid Al Suwaidi), Eurostat통계처장(Mr.Waltar Radermacher), 가나통계청장, 인도네시아 통계청장, 몽골통계청장, 멕시코 통계청장, PARIS21 등 약 15명의 주요 협력국 청장 및 국제기구 수장과 면담하여 양자 통계협력 안건 및 발전방안 등에 대해 논의함.

□ ESCAP통계국장 및 UNSIAP소장면담

- ESCAP통계국장(Haishan FU)은 ESCAP이 추진하는 성인지통계 Expert group에 한국의 전문가 추천을 의뢰하고, 성 인지 통계작성 교육 framework 구성에 있어 한국통계청의 자문을 의뢰할 계획임을 알림
- SIAP소장(Davaasuren)도 한국의 성인지 통계 작성의 우수성에 대해 공감하면서 성인지 통계 연수과정에서 한국의 자문을 의뢰할 계획

□ 주UN대표부 차석대사 면담

-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높아진 국제적 위상을 뒷받침하기 위한 통계의 중요성과 통계청의 국제사회 역할제고 필요성에 대해 논의
- 특히 최근 카자흐스탄, 사우디 아라비아, UAE 등 개도국 및 자원부국에서 통계청에 대해 지원요청이 급증함에 따라 개도국 통계역량 전수, 통계시스템 구축지원 사업에 대한 외교통상부 차원의 적극적인 협력에 대해 협의

다. 개도국 통계역량강화 지원사업 협의

□ 필요성

- ‘G20 정상회의’ 개최, OECD DAC(개발원조위원회) 가입 등 국제위상에 걸맞는 명실상부한 글로벌리더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개도국 개발지원 강화를 통한 국제리더십 제고가 필수적
- 국제통계사회는 개도국 개발지원자금의 성과측정을 위해 통계 인프라 구축과 통계자료의 신뢰성을 지속적으로 요구함에 따라 개도국은 국가통계역량강화에 중점을 두고 추진중
- 우리 청에 기술지원을 요청한 카자흐스탄, 사우디 아라비아, 알제리, 가나, 인도네시아, 미얀마 등 개도국 통계청장과 면담하여 국가통계역량강화에 한국통계청이 참가하여 기술지원과 컨설팅을 수행하는 방안 등에 대해 협의함

□ ‘카자흐 국가통계역량 강화사업’에 한국통계청 기술지원 합의

- 카자흐스탄통계청 부청장(Mr.Zhasser Zharkinbayev)과 면담을 통해 세계은행 자금을 활용한 『카자흐 국가통계시스템강화사업』(KAZSTAT Project, 5년간 총 23백만불)에 통계청이 IT분야 컨설팅 사업자로 참여하기로 합의
- 카자흐통계청은 조만간 4월경 카자흐-세계은행간 최종계약이 체결되면 8월경 프로젝트에 참가할 독일, 한국, 핀란드, 체코 등 선진통계청 컨소시엄을 사업자로 선정할 예정인 바, 카자흐 통계역량강화에 통계청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함.

- 본 사업은 양국간 협력의 차원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사업으로서 통계청은 비교우위를 보유한 선진 IT기반 조사시스템(인터넷조사 등) 및 통계서비스 방법(KOSIS, 통계자화상 등)을 중점 제공할 계획

* 2010년 인구주택센서스에서 인터넷조사 참여율이 47.9%로 세계최고 수준임

- 또한 통계기법, 방법론 등 통계 기초역량 강화에 대해서도 기술 지원함으로써 개도국 지원사업의 범위를 보다 확대할 계획임.

□ 사우디 아라비아 기술지원 및 새로운 양자협력관계 합의

- 사우디 아라비아 통계청장(Mr.Mohanna Abdulkarim Al-Mohanna)은 금번 뉴욕출장 목적이 한국에 대한 협력요청임을 강조하면서 아국의 앞선 통계기법에 대한 기술지원 및 한-사우디 새로운 양자 통계협력을 제안함.
- 이에따라 상호호혜적인 양자협력관계 형성에 대해 양국 청장간 기본적으로 합의하고 세부 분야는 양국 상호방문 및 협의를 통해 결정하기로 함.

V. 제42차 유엔통계위원회 결과보고

- 1. 제42차 유엔통계위원회 결과보고안
(42nd UNSC Draft Report)**
- 2. 프로그램 Statement (유엔통계처)
(Program Statement)**

1. 유엔통계위원회 결과보고안

국문번역

1. 세계통계의 날 (3a)

통계위원회는:

- ‘세계통계의 날’의 준수는 국제적 성공이었고 공식 통계의 중요성을 주장하는데 긍정적 영향을 줌에 만족하며 감사를 표시함
- 전 세계적인 축하행사를 지원하고 유용한 수단을 제공해 준 UN통계처에 치하드립니다.
- 국내 및 국제적 축하행사 준비를 위한 적절한 시간을 배분해 줄 것을 권고하는 사항에 대해 주목함
- 2010년 ‘세계통계의 날’ 축하행사가 많은 청중에게 영향을 미쳤으나, 차기에는 미디어에 대한 영향을 극대화하는데 좀더 많은 주의가 기울여져야 함에 주목함
- 통계의 역할 증진에 긍정적 효과가 증명된 지역적·국가적 차원의 통계의 날 준수의 지속을 권장함
- ‘세계통계의 날’을 2년 또는 5년 주기 등 정기적으로 준수하자는 제안에 주목함.
- 총회 결의 통과가능성을 포함, UN통계처에 세계통계의 날 준수주기 및 형식에 관한 제안서 작성을 위원회 사무국 자문을 거쳐 제출하고 그 결과를 제43차 세션에 보고토록 요청함.

2. 프로그램 리뷰: 성인지 통계 (3b)

통계위원회는:

- 성인지 통계에 관한 보고서와 문서에 포함된 프로그램 리뷰를 환영하며, 가나(Ghana)통계청의 프로그램 검토자로서의 업무수행에 감사를 표시함
- UN통계청의 '세계 여성 2010: 트렌드와 통계' 보고서, 멕시코의 여성폭력 지수에 관한 UN통계위원회의 FoC의 업무수행에 대해 감사를 표시함
- 글로벌 성인지 통계의 새 길을 개척하는 데 있어 UN통계청의 리더십 역할 강화를 촉구함
- 지역 위원회 및 세계은행, UN인구기금과 같은 다른 기관들에 의한 성인지 통계 업무에 대해 감사를 표시하며 이 분야에서 업무 강화를 요청하고 UNSD에게 그 결과를 세계 프로그램 강화에 참고할 것을 요청함
- 본 보고서 46문단에 세부 설명된 업무와 50문단의 제안에 동의했으나 적절한 우선순위가 설정되도록 요청함
- 성인지 통계에 관한 IAEG(Inter-Agency and Expert Group)의 전략적 역할을 승인하고 다음 업무 범위의 확장을 요청함
 - a. 성인지 지수의 최소 set 작성을 목적으로 성인지 통계를 검토
 - b. 매뉴얼의 개발과 성인지 통계의 생산 및 작성을 위한 방법론적 가이드라인을 제시
 - c. 성인지 통계에 관한 국제적 프로그램의 작성 매커니즘으로서의 역할
- UNSD, 지역위원회, 세계은행, UNFPA는 성인지 통계에 관한 건전한 국가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국가와 긴밀히 협조하여 필요한 지원과 협조를 해줄 것을 요청함

- 서아시아 경제사회위원회(ESCWA)에 의한 업무를 고려하여 UNSD가 알맞은 번역을 제공하도록 UN 번역 서비스에 자문하기를 요청함
- 이러한 중요한 분야에 대한 적절한 자원을 제공하기 위하여 '도너 커뮤니티(donor community)'가 성인 통계 프로그램을 위한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함을 인식함.
- UNSD와 IAEG는 국제 성인지 통계 프로그램 강화를 위해 제안된 업무 계획과 전략에 대해 43차 위원회에 보고해 줄 것을 요청함

3. 국민계정 (3c)

통계위원회는:

- 국민계정에 관한 사무국 간 워킹그룹(ISWGNA)의 보고서를 환영하고 업무를 치하함
 - 2008 SNA 영문 버전의 출간과 회원국 배포를 환영함
 - 2008 SNA의 공식 UN 언어 및 다른 언어로의 번역 진행사항을 치하하고 번역 과정에 포함된 기관들에 깊은 감사를 표시함
 - ISWGNA와 AEG(Advisory Expert Group on SNA)를 위해 제안된 의무사항과 관리를 지지하며, 국제 통계사회의 광범위한 참여 확대를 위한 관점에서 ISWGNA로 하여금 SNA의 연구 아젠다 및 SNA의 실행에 관한 이슈들을 제기할 것을 요청함
- 이는 특히 배출권 거래제(emission permits under cap)와 금융중개서비스(FISIM)에 주로 적용될 것임.
- ISWGNA에 다음 사항을 AEG와 협의하여 고려할 것을 요청함
 - GDP의 철저한 조사를 위한 비공식 부문의 기여도 산출 가이드라인
 - 가구소득의 분배측면을 고려한 가구 부문 이슈

- 스티글리츠 보고서에서 반영된 웰빙에 관한 이슈
 - R & D, 재무서비스 측정에 관한 이슈
 - 분기별 국민계정 준비, GDP의 지출요소 통계작성 등에 관한 이슈
- 2008 SNA의 실행과 더불어 발전 과정을 모니터하고 SNA 2008의 실행에 대한 유연성 ISWGNA 에 의한 제안에 주목
 - ISIC Rev.4 와 CPC Ver.2의 수용과 더불어 2008 SNA의 개조 경험 교환 활성화를 위한 2008 SNA 실행에 관한 웹사이트 환영
 - 회원국의 경험과 2008 SNA 실행에 있어서의 어려움에 대해 기록하고, 기술지원 및 교육을 통한 역량 강화 필요성을 인식
 - 2008 SNA가 포함된 GFS 통계의 조절을 가능하게 하도록 정부 재정 통계 매뉴얼 업데이트의 시의적 완결의 중요성 주목
 - 자료 데이터와 실행 절차를 포함하는 2008 SNA 의 실행을 위한 교육 자료의 지식 기반의 개발을 요청
 - 2008 SNA 로의 변경에 대한 3 단계 접근을 재확인, 그러나 개발의 다양한 단계에서 국가들의 필요를 고려하며 회원국에 의한 2008 SNA의 실행을 위한 시간대(time horizon)에서의 유연성(flexibility) 필요성을 표현
 - 2008 SNA을 위한 ISWGNA 실행 프로그램과 2008 SNA로의 전환에서 회원국에 의해 직면된 장애사항들을 고려하면서 1993 SNA의 실행에 대한 장애에 관한 가능한 빠른 업무 완결을 FoC에 촉구
 - 지역적 실행 전략 등 2008 SNA의 실행 활성화를 위해 국제적 및 지역적 기구들의 활동에 감사를 표시함. 이 기구들과 기타 기여단체들에게 국민계정에 관한 전문가/자문가의 임명을 포함한 더 많은 자료의 제공을 촉구함
 - 회원국에게 국가 실행 프로그램 개발과 지역적, 국제적 실행 프로그램과 연계된 통계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함

- 국제적 및 지역적 기구들에게 국민계정의 다양한 보고서 포맷에 대해 기록하고 표준화된 보고서 형식 제안에 대한 의견을 조사하고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ISWGNA에 요청함

4. 환경-경제 계정 (3d)

통계위원회는

- 환경-경제 계정(SEEA)에 관한 UN전문가위원회의 업무추진에 대해 치하하며, 촉박한 시일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으로 진행된 점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 SEEA의 Volume 1의 이슈리스트의 항목들, 특히 국가통계시스템 내의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협력을 가져온 국제적 자문에 관해 권고사항을 작성하는 데 있어서의 투명한 과정을 치하함
- 43차 통계위원회 제출을 위한 SEEA의 Volume 1의 시의적 완결 고려 중요성을 반복하고 위원회에게 초안 챕터들과 초안과정 중 나타날 수 있는 일관성(consistency)의 문제에 관해 최대한 빨리 자문할 것을 강조함
- Volume 1의 이슈리스트 중 한 가지 이슈에 대해 국제적 자문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으며 다른 이슈들에 대해서는 검토된 SEEA Volume 1의 초안 챕터들을 통해 여러 국가들의 국제적 자문으로 해결될 것임을 주목하며 세부사항들에 대한 권고사항을 주목함
- 국가들로 하여금 환경과 국제적 포럼 간의 연계를 평가하기 위한 통계 프레임워크와 같은 SEEA 증진에 적극 참여 할 것을 강조함
- SEEA를 위한 실행 계획을 국가들 및 UN의 지역 위원회들과의 자문을 통해 개발하고 적절한 우선순위를 정할 것을 위원회에게 요청함

5. 에너지통계 (3e)

통계위원회는

- 보고서에 감사를 표시했으며 ‘에너지 통계를 위한 국제적 권고사항(IRES)’을 다양한 기관, 전문가 그룹, 국가들 간의 협력을 위한 좋은 예로서 주목함
- IRES 및 제안된 실행 프로그램의 주 요소들에 대해 승인(endorse)함
- 데이터 자료, 행정데이터의 사용, 더 광범위한 국가 범위에 적용 가능한 우수사례에 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계획된 에너지통계 편집 매뉴얼에서 고려되고 관련 회원국과 기구들과의 충분한 자문에서 준비되도록 요청함

6. 통합 경제 통계 (3f)

통계위원회는

- 통계 경제 통계에 관한 실용적 가이드라인 생산과 국제적 자문 실행에 대해 FoC에게 감사를 표시함
- 포괄적인 초기 가이드라인을 환영하고 국제적 자문에서 수용한 제안사항과 위원회의 코멘트를 고려하여 문서의 최종 버전을 준비할 것을 FoC에게 요청함
- 최종 가이드라인이 관리 문제, 자료 데이터의 통합, 가계 미 기업 조사와 프레임의 통합, 관련 산업과 기타 도메인의 통합, 제안된 기타의 추가적 주제 등 위원회에 의해 제기되는 다른 중요 분야들을 표출하도록 요청함

- 우선순위 선정을 포함한 경제통계 통합 및 가이드라인들의 실행에 있어서 국가들을 지원하는 통합 분야에 대한 배열의 실행 프레임 워크에 관한 실용적 가이드라인을 통합하기를 요청함
- 관심 국가와 기구들에게 구체적 텍스트와 최종 문서에서의 종합적 기여 가이드라인의 증진을 위해 제공된 다양한 주제들에 관해 가능한 사례연구를 FoC에게 제공하도록 강조함
- UNSD에게는 단일 액세스 포인트 제공 및 경제통계 통합과 관련된 정보자료를 제공하는 웹 기반 포털을 개발하고 관리할 것을 요청하고, 회원국에게는 가이드라인과 포털의 최종화를 위해 각 국경험과 사례연구를 이용할 수 있게 지원을 독려함

7. 단기 경제 지표 (3g)

통계위원회는

- 단기 지표에 관한 사무총장의 보고서를 환영하고 경제와 금융위기에 응답하도록 구성된 세 개의 국제 세미나 권고사항에 기초한 단기 경제통계 프로그램을 제안하는 캐나다, 네덜란드, 러시아 통계청과의 긴밀한 협력 하의 UNSD와 Eurostat 에 의한 공동 이니셔티브를 치하
- 빠른 산출을 위한 단기 지표 업무 프로그램, 비즈니스 주기 혼합 지수, 경향조사, 데이터 템플릿, 분석지수, 제안된 관리 구조에 동의
- 국민계정, 국가통계 시스템, 기타 국가 관리 구성에 대한 필수사항이 업무 프로그램 실행에서 고려되고 소스 데이터의 향상 문제에 관심이 모아지기를 요청

- 국제 가이드라인과의 조화를 확보하도록 국제적으로 수용된 데이터 템플릿을 사용하는 자발적 기반에 대한 SDMX 기준을 사용한 국가 중앙 데이터 허브 설립을 회원국에게 장려하고, 회원국들과 데이터 허브의 개설을 위한 시간의 유동성에 대한 자문의 필요성을 피력
- 단기 경제 지표의 편집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데 있어서 국제적 및 지역적 기관들에 의해 수행되어야 할 업무에 주목하고 실제적용과의 조화를 목적으로 하는 단기 경제 통계 프로그램의 준비에 있어서 다른 기관들과의 긴밀한 협력을 UNSD에게 강조
- 회원국에 조기 예측 및 경기순환 복합지수에 관한 국제적 평가에 참여를 독려하고, 단기 경제지표의 작성과 활용 사례를 제출하도록 요청함
- 지역간(interregional) 고문에게 단기 통계에 관한 국제 프로그램을 위한 교육과 역량 강화를 승인하도록 UNSD에게 요청하고 이 분야에서 지역 위원회와 긴밀히 협력 업무하도록 요청
- 적법한 절차에 의거, 단기 경제통계에 관한 세부업무 프로그램을 위원회에게 보고하도록 UNSD에게 요청하며, 여기에는 프로그램 실행에 있어서 필요한 자원과 한계점이 강조되어야 함.

8. 국제비교 프로그램 (3h)

통계위원회는

- ICP에 관한 세계은행의 보고서를 환영하고 지금까지의 발전에 대한 만족에 주목
- 훌륭한 서비스와 업무를 수행해준 상임위원회의 퇴임하는 장 (Chair)인 노르웨이 통계청에 감사하고 이사국의 새로운 장으로 이탈리아를 환영함

- 국제비교 프로그램을 지원했던 모든 파트너들에 대한 감사를 표시하고 특히 금융지원 뿐 아니라 추가적 교육을 제공한 지역 담당자(Regional Coordinators)에게 감사를 표시
- 상임이사국, 국제오피스 및 지역조정단체에게 ICP방법론, 특히 국제적 연계과정과 PPP 데이터 및 산출의 사용에 관한 적극적 자문을 지속적으로 실행하도록 요청함
- 각국 통계법 및 자료제공 정책 범위내에서 데이터 사용 증진을 위해서 micro data의 보급을 고려해 줄 것을 상임이사국에게 요청함
- 개도국의 물가조사 자금지급 필요성에 주목하며 발전기금의 배정에서 이를 고려하도록 개발 파트너에게 요청함
- ICP가 물가데이터 수집 및 산출하는 역량을 개발중인 국가들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 주요 프로그램임을 승인하며, 이러한 관점에서 국가들을 지원하는 추가적인 조치를 하도록 세계은행에게 요청함

9. MDG모니터링 지표(3i)

통계위원회는

- 새천년 개발목표(MDG) 모니터링 지표에 대한 사무총장의 보고서를 환영하고 IAEG와 UNSD에게 MDG지수에 대한 발전의 효율적인 모니터링, 그리고 국가 및 sub-국가의 MDG지수 모니터링에 대해 국가들에 교육을 제공한 데에 감사를 표시
- 국가 간 기관들의 대화 강화 및 국가와 국제 MDG데이터가 36차 세션에서 처음 제기된 후 데이터 자료의 불일치를 해결한 것에 대한 발전을 치하

- MDG 모니터링을 위해 향상된 데이터 이용가능성에 대해 주목함. 다만 MDG 데이터의 전적인 국가별 소유권은 국내외 통계시스템 조정(coordination)의 개선, 자료분석 역량강화를 위한 국내외 교육실시 및 우수사례 공유 등을 통해 도달되어야 함을 주목함
- 구체적인 MDG 데이터관련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들의 요청에 따라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전문가 그룹 개설을 UNSD에 요청
- UNSD가 MDG웹사이트와 데이터베이스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기능성을 향상시키고 모든 공식 언어로 이용가능 할 수 있도록 권고함
- MDG 지수 데이터베이스에서 특정 지수의 데이터의 이용가능성 개선이 지연되는 점에 주목하며, 모든 국제기구들은 각자의 역량 강화프로그램에서 우선순위를 정할 때 이 이슈를 표출하도록 격려
- 보고서 E/CN.3/2011/13 문단 30에서 제안된 것처럼 국가 및 하 부국가 모니터링 교육 분야를 포함하여 IAEG의 업무계획을 전적으로 승인함
- IAEG는 제43차 유엔통계위원회에서 진행상황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청

10. 인간개발 지수 (3j)

통계위원회는

- 인간개발지수에 관한 통계위원회의 사무국의 보고서를 환영하고 권고사항에 동의, 승인함
- UN기관들에 의해 배포된 지수에 관한 브라질, 모로코, 남아프리카의 보고서에 주목하고 그 안에서 표현된 고려사항을 전적으로 승인하고 문단 25의 결론을 강력하게 지지

- 인간개발지수에 관한 UNDP보고서와 추가 room document 제공 및 입장설명을 한 UNDP의 노력을 환영
- 인간개발보고서(Human Development Report)가 국가 및 국제적 개발에 대한 논의를 제공하고 인간개발보고서를 위해 사용된 통계자료와 방법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표출한 중요 문서임을 인식
- 인간개발보고서 사무국(Human Development Report Office)이
 - (i)선택된 지수를 위한 데이터의 품질과 이용가능성
 - (ii)비공식적 자료 데이터의 사용
 - (iii)2010 보고서의 배포에 앞서 국제통계사회의 자문 필요성 등 인간개발지수에 대한 전문가 그룹의 권고사항에 대해 적절히 반응하지 않은데 대해 깊은 유감과 불만족을 표시함.
 이에 따라 다음의 이슈에 대해 주목함.
 - (i)데이터 부족으로 몇 나라들이 인간개발보고서로부터 생략되었고 국가통계청들이 생략 결정을 사전에 통보받지 못함
 - (ii)UN내 타 부서에서 발표된 데이터의 불일치 뿐만아니라, 인간개발보고서와 국가자료로부터 이용 가능한 데이터 간의 불일치가 존재함
 - (iii)비공식적 데이터가 사용되었으며, 공식 데이터가 이용가능하지 못할 때에 비공식 데이터는 국가통계청의 품질 및 정확성에 대한 자문 후에만 사용되어야 하고 자료의 세부 설명과 방법론이 제공되어야 함.
- 본 이슈에 대한 공식통계의 기본원칙 및 국제통계활동 집행원칙의 연관성을 강조하며 UNDP측에 본 원칙에 대한 검토의견 제출을 요청함.

이와 관련하여 통계위원회는 조정활동의 증진을 위하여 '통계활동조정위원회(CCSA)'와 같은 포럼에서 UNDP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기를 요청함.

- 인간개발리포트의 주제 및 지수의 선택은 UNDP의 특권임을 인식하며, 데이터 품질과 적절성의 문제는 국제통계시스템을 대표하여 UNSC의 권한 내에 있으므로 우선적 자문이 필요함
- UNDP의 인간개발보고서 준비에 있어서 통계작성방법의 완전한 투명성이 필요함을 다시금 반복하고 관련된 모든 관계기관과의 자문실시를 요청함
- 통계위원회에 의해 개발된 인간개발인덱스에 대한 전문가 그룹의 지속적 역할을 강조하며, 첫 보고서에서 야기된 이슈들에 대한 검토업무를 지속할 것을 명령함.
- UNDP에게 다음을 요청
 - a. 본 결정에서 제기된 이슈들에 대해 3개월 이내 UNSC에 보고할 것
 - b. 인간개발리포트 준비과정의 다양한 일정표를 작성하고 이를 각국 통계청과 의사교환함으로써, 상호 결정을 촉진하고 고려사항을 언제 어떻게 표출할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할 것
 - c. 인간개발리포트를 위해 사용될 지수에 필요한 통계 데이터를 검토할 때 회원국들과 미리 자문할 것
 - d. 공식국가데이터가 이용가능하지 못할 경우 비공식 국가데이터의 사용 및 적절성에 대한 국가통계청과 소통계획을 세울 것
- UNSD는 회원국들의 국제기구와의 데이터 불균형 및 일관성 문제에 대해 중심적인 지원역할을 수행할 것을 촉구하며, 특히 유엔기구들이 배포하는 데이터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일 것.

이와 관련하여 위원회는 UN시스템내에서 권위있는 기관의 통계활동의 조정역할 필요성과 상황의 검토에 대해 강조하며, UNSD에 본 이슈를 제43차 세션에 보고할 것을 요청

11. 공식통계의 기본원칙 (3k)

통계위원회는

- 공식통계 기본원칙의 지속적 중요성에 대해 전적으로 인식하고, 국가간 경험을 공유하고 통계입법·강령·공포 등에서 기본원칙을 포함하는 것을 환영함
- 기본원칙이 과거 뿐 아니라 오늘날과도 유용하여 10개의 원칙 자체를 개정할 필요는 없음을 승인
- 하지만 통계청, 기타 통계생산자 및 사용자에게 의한 새로운 발전과 우수사례를 포함하는 원칙의 실행을 위한 실용적 가이드를 개발하고 기본원칙의 최초도입이후 새로운 발전을 반영하기 위하여, 기본원칙 서문(preamble)을 수정하고 업데이트 하도록 FoC그룹을 구성할 것을 UNSD에 권고함
- FoC는 전체 회원국의 자문을 통해 상기 업무를 완료하고 기본원칙 20주년인 2014년 이전에 통계위원회로 보고할 것을 권고함
- 회원국들의 기본원칙 실행에 대한 정기적인 검토가 바람직하다는데 동의하며 UNSD는 검토업무를 수행하여 2014년 전에 보고해 줄 것을 요청
- 기본원칙의 실행을 위해 지역적 평가를 장려하고 UNSD, 지역위원회, 그리고 기타 관련 기구들에게 원칙 실행시 국가들을 지원하도록 요청

- UNSD는 적절하게 개정된 서문을 포함한 기본원칙을 2014년 전에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ECOSOC과 총회(General Assembly)에 제출할 것을 요청함. 또한 적절한 방법을 통해 국가최고 정치레벨까지 기본원리에 대한 인식과 승인을 제고할 것을 요청
- 이해관계자에 대해서는 기본원칙이 가져오는 이점을 이해하도록 하여 기본원칙의 발전과 준수를 독려함.

12. 통계역량강화 (3I)

통계위원회는

- 통계역량강화에 관한 사무총장의 보고서를 환영
- 개도국의 통계역량강화에 대한 UNSD 업무를 감사
- 새로운 국가별 교육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UNSD에게 국가들과의 자문을 강화하도록 요청
- 통계역량강화는 다수의 국내외 파트너가 관여됨을 인식하고 상호 협조와 조정활동을 모든 파트너들에게 권장
- UNSIAP와 기타 국가 및 지역교육센터에 의해 수행된 업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각국 정부들의 지원에 대해 감사하고 교육센터의 활동에 대한 조정을 권장함
- 많은 국가들이 통계역량 강화를 위해 상호 협조하는 것에 감사하고 이러한 트렌드의 지속성을 권장
- 2011년 11월 한국 부산에서 열릴 통계역량강화 전략 회의인 'ODA 효과성에 대한 4차 하이레벨 포럼(4-HLF)'을 환영하고, 세계은행은 본 이니셔티브와 통계 Marrakech Action Plan 진행에 대해 제43차 세션에서 보고할 것을 요청

13. 서아시아 지역통계개발 (3m)

통계위원회는

- 서아시아의 지역통계개발에 대한 서아시아 경제 및 사회위원회 (ESCWA)의 보고서를 환영
- 지역에서 통계의 개발에 대해 수행된 업무에 감사를 표시했으나 그 지역의 통계 문화를 증진하기 위해 더 많은 업무가 필요함도 역시 주목
- 이 지역의 통계분야에서 활발한 다양한 단체들간 조정의 중요성을 승인하고 ESCWA의 더 큰 역할을 강조
- 지역적 전략의 개발을 위한 이니셔티브를 주목하고 전략이 준비 되었을 때 정보를 제공받기를 기대
- 개발파트너들은 지역내 국가들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아랍 통계교육연구기관과 같은 지역 단체들과의 협력 하에 전적인 지원을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함

14. 프로그램 질문 (UNSD) (4조항)

통계위원회는 현재 활동, 계획, 우선순위를 고려하며 UN통계처장이 발표한 구두 보고에 주목함.

특히 UNSD는 2012/13의 2년간 UNSD를 위한 업무 프로그램 초안이 포함된 E/CN.3/2011/CPR.2에 주목함.

또한 E/CN.3/2011/CPR.2의 별첨에 포함된 현행 2010/11 프로그램의 결과 리스트의 조정을 승인하고 2011년 기간 필요하게 될 추가적 조정 승인을 위해 사무국에 권위를 부여

15. 정보 제공 조항 (3b, 3e, 3i, 4a에서 4o까지의 조항)

위원회는 다음의 보고서에 대해 주목함:

글로벌 성인지 통계 프로그램에 관한 사무총장 보고서

여성폭력에 대한 FoC의 보고서

에너지 통계에 관한 오슬로 그룹의 보고서

PARIS 21 보고서

인구주택센서스에 대한 사무총장 보고서

보건통계에 대한 작업반 보고서

교육통계에 대한 유네스코 보고서

농업통계에 대한 FOC 보고서

비즈니스 레지스터에 대한 Wiesbaden Group 보고서

관광통계에 대한 UNWTO 보고서

물가통계에 대한 작업반 보고서

환경통계 개발을 위한 체계 개정에 대한 사무총장 경과보고

통계활동조정위원회 활동에 대한 사무총장 보고서

글로벌 통계기준 인벤토리에 대한 통계활동조정위원회 보고서

자료 및 메타데이터 교환에 대한 기준 확립을 위한 TF팀 보고서

통계위원회 활동과 관련된 경제사회이사회 및 총회의 정책결정에 대한 사무총장의 보고

국가품질보증체계에 대한 사무총장 보고서

글로벌 공간정보관리에 대한 사무총장 보고서

경제·사회발전 측정에 대한 프랑스 보고서

2011-14년 통계위원회 프로그램(안)에 대한 사무총장 보고

02
F10

2. 프로그램 Statement (유엔통계처)

국문번역

1. 세계통계의 날

- 2010년 10월 20일 '세계통계의 날'의 준수는 국제적 성공이었고 통계위원회는 준비에 충분한 간격을 두어 정기적으로 '세계통계의 날' 기념행사를 하기로 결정함
- 유엔통계처는 본 결정의 추진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무국과 협의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기로 함.

2. 데이터 및 프레임워크 개선

- 2011년에도 유엔통계처는 지역위원회 및 국제기구와 협력하여 여러 국가의 기본통계 작성에 지속 노력하기로 함.
- 2010년에는 39개 워크숍과 18번의 스터디 연수 실시를 통해 150여개국 2,000명이 참가하였으며, 그중 개도국 참가자 500명에게 경비를 지원하였음.
- 2010 인구센서스를 잘 진행되었으며 2월 1일 현재 세계인구의 57%를 차지하는 124개국이 인구센서스를 기실시하였음. 인구 12억으로 추정되는 인도를 포함하여 77개국이 올해 인구센서스를 실시할 예정임.
- 2012년 제43차 유엔통계위원회에서 '인구센서스'를 프로그램 의제로 선정하여 프로그램 리뷰 보고서와 부대행사를 준비할 예정임.

- 유엔통계처는 2010년 세계통계의 날 기간에 ‘World Women 2010; Trends and Statistics’ 보고서를 발간하였고 많은 나라에 소개되었음.
올해는 사회통계 프레임워크에 관한 ‘Friday Seminar’을 만들 예정이며, 전문가그룹이 구성될 예정임
- 유엔통계처는 조기 경기예측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지난 2년간 조기경보에 관한 세미나를 3차례 개최하였으며, ‘경기순환시계에 관한 세미나도 성공적이었음.
- SNA 2008 실행과 프레임워크, 분류에 대해 국가별 지원노력을 지속할 것이며 SNA 2008 실행 장애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FoC와 긴밀히 협력할 예정임.

또한 FoC가 통합경제통계 프레임워크 작업을 완료하도록 지원하고 녹색성장 및 탄소배출이 현 통계 프레임워크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할 계획임.

- 기후변화 통계를 포괄하는 환경통계 프레임워크 작업을 지속하고 환경-경제 계정에 관한 첫번째 Volume을 내년 통계위원회에 제출할 예정.
- UN통계처는 2010년 5월 각국에 교역통계를 매월 정기적으로 유엔에 제출토록 요청하였는데 많은 나라가 이에 긍정적으로 답하고 현재 76개국에서 매월 교역통계를 제공하고 있음. 이중 절반가량이 개도국임. 조만간 UNdata 포털을 통해 월간 교역 데이터를 시범적으로 제공할 것임.
- 2월초 제네바에서 개최된 ‘Global Forum on Trade Statistics’에 많은 통계청이 참석하였으며 후속조치에 대해 내년 통계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임

3. 국가/글로벌 차원에서 데이터 배포 개선

- 유엔통계처의 통계자료 배포 기반인 'UNdata'가 2010년 UN21 Award를 수상한 것에 기쁨을 표시하며, UNdata가 UN시스템 DB의 통계정보에 접근하는 출입구 및 각국 통계서비스로의 연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임.

또한 세계은행과 협력하여 글로벌 데이터 접근을 촉진하는 'Open Data Platform'을 공동개발할 예정임.

4. 통계시스템 강화

- 우리는 금주에 공식통계 기본원칙에 대해 검토하였으며 통계위원회는 이행과정을 촉진하기 위한 그룹을 구성하기로 결정.

5. 지리정보 이니셔티브

- 금년 경제사회이사회(ECOSOC)는 '세계지리정보관리(GGIM)' 전문가 위원회 설립을 모색하고 10월 한국에서 'High-Level Forum' 개최에 대한 보고서를 준비하였음. UN통계처도 지리정보 커뮤니티와 긴밀히 협력할 계획임.

6. 지표 개발

- 통계위원회는 다양한 글로벌 지표개발 수요에 직면하고 있으며 '여성 폭력 지표'에 대해서는 작업중이고 '유소년 지표'개발도 제안받은 상태. 따라서 전문가 그룹 미팅에 참여하고 지원할 필요성이 있음
- 2015 MDG기한이 다가옴에 따라 지표개발과 모니터링에 대한 논의가 확대될 것이며, 통계 커뮤니티는 본 논의에 조기에 깊이 관여함이 필수적.

7. 2012-13 유엔통계처 프로그램

- UN의 예산주기는 2년이며 2012-13 예산은 올해 말 유엔총회에서 승인정될 것임.
- 목표와 예상성과, 성과지표는 41차 통계위원회에서 기 검토되었으며 유엔총회에서도 승인되었음.
- UN예산절차와 예산승인 절차는 아직 다소 앞선 상황이므로 본 문서는 정보제공의제로 제공됨.

02
11

VI. 유인통계위원회 의제 요약 및 코멘트

▶ 논의 의제

- 1 의사 일정
- 2 세계통계의 날에 대한 사무총장 보고서
- 3 성인지통계에 대한 가나통계청 보고서
- 4 성인지통계 프로그램에 대한 사무총장 보고서
- 5 여성폭력에 대한 유엔통계위원회 FOC 보고서
- 6 국민계정에 대한 작업반 보고서
- 7 환경-경제계정에 대한 전문위원회 보고서
- 8 에너지통계에 대한 사무총장 보고서
- 9 에너지통계에 대한 오슬로 그룹 보고서
- 10 통합경제통계에 관한 FOC 보고서
- 11 단기경제지표에 대한 사무총장 보고서
- 12 국제비교프로그램(ICP)에 대한 세계은행 보고서
- 13 MDG 모니터링 필요지표에 대한 사무총장 보고서
- 14 인간개발지수(통계)에 대한 통계위원회 보고서
- 15 인간개발지수(통계)에 대한 UNDP 보고서
- 16 유엔 공표지표에 대한 브라질, 모로코, 남아프리카의 문제제기
- 17 공식통계 기본원칙 이행에 대한 사무총장 보고서
- 18 통계역량구축에 대한 사무총장 보고서
- 19 21세기 발전을 위한 통계 파트너십(PARIS21) 보고서
- 20 서아시아 지역통계개발에 대한 UNESCWA 보고서

▶ 기타 정보제공의제

- 21 인구주택센서스에 대한 사무총장 보고서
- 22 보건통계에 대한 작업반 보고서
- 23 교육통계에 대한 유네스코 보고서
- 24 농업통계에 대한 FOC 보고서
- 25 비즈니스 레지스터에 대한 Wiesbaden Group 보고서
- 26 관광통계에 대한 UNWTO 보고서
- 27 물가통계에 대한 작업반 보고서
- 28 환경통계 개발을 위한 체계 개정에 대한 사무총장 경과보고
- 29 통계활동조정위원회 활동에 대한 사무총장 보고서
- 30 글로벌 통계기준 인벤토리에 대한 통계활동조정위원회 보고서
- 31 자료 및 메타데이터 교환에 대한 기준 확립을 위한 TF팀 보고서
- 32 통계위원회 활동과 관련된 경제사회이사회 및 총회의 정책결정에 대한 사무총장의 보고
- 33 국가품질보증체계에 대한 사무총장 보고서
- 34 글로벌 공간정보관리에 대한 사무총장 보고서
- 35 경제·사회발전 측정에 대한 프랑스 보고서
- 36 2011-14년 통계위원회 프로그램(안)에 대한 사무총장 보고

(세부자료는 <http://unstats.un.org/unsd/statcom/sc2011.htm> 참조)

1 : 의사 일정

월 일	구분	주요내용	비고
2.22 (화)		Opening of the Session	
	Item1	의장단 선출	10:30 a.m.
	Item2	의제 및 기타 조서관련 문제 채택	-
	Item3	논의의제 (Items for discussion and decision)	1:00 p.m.
	Item3(a)	세계통계의 날 (E/CN.3/2011/2)	
	Item3(b)	프로그램 검토 : 성인지통계 (E/CN.3/2011/3)	
	Item3(c)	국민계정 (E/CN.3/2011/6)	3:00 p.m.
	Item3(d)	환경-경제 계정 (E/CN.3/2011/7)	-
	Item3(e)	에너지 통계 (E/CN.3/2011/8)	6:00 p.m.
2.23 (수)	Item3(f)	통합경제통계 (E/CN.3/2011/10)	
	Item3(g)	단기 경제지표 (E/CN.3/2011/11)	10:00 a.m.
	Item3(h)	국제비교프로그램(ICP) (E/CN.3/2011/12)	-
	Item3(i)	MDG지표 (E/CN.3/2011/13)	1:00 p.m.
	Item3(j)	인간개발지수(통계) (E/CN.3/2011/14)	
	Item3(j)	인간개발지수(통계) (E/CN.3/2011/15)	3:00 p.m.
	Item3(k)	공식통계기본원칙 이행 (E/CN.3/2011/17)	-
Item3(l)	통계역량구축 (E/CN.3/2011/18)	6:00 p.m.	
2.24 (목)	Item3(m)	서아시아 지역 통계발전 (E/CN.3/2011/20)	
	Item4	정보제공의제 (Items for information)	
	Item4(a)	인구주택센서스	
	Item4(b)	보건통계	
	Item4(c)	교육통계	
	Item4(d)	농업통계	
	Item4(e)	비즈니스 레지스터	
	Item4(f)	관광통계	10:00 a.m.
	Item4(g)	물가통계	-
	Item4(h)	환경통계	1:00 p.m.
	Item4(i)	통계프로그램의 조정 및 통합	
	Item4(j)	글로벌통계기준 인벤토리	
	Item4(k)	데이터 및 메타데이터 교환·공유의 공통기준	
	Item4(l)	경제사회위원회정책결정에 대한 후속조치	
	Item4(m)	국가품질보증체계	
Item4(n)	글로벌 공간정보관리		
Item4(o)	경제·사회발전의 측정		
2.25 (금)	Item5	프로그램질의(유엔통계처)	10:00 a.m.
	Item6	제43차 유엔통계위원회 임시의제 및 일정	-
	Item7	제42차 유엔통계위원회 보고서 채택	1:00 p.m.

2 : 세계통계의 날에 대한 사무총장 보고서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on the World Statistics Day)

주요 논점

- ◇ 세계통계의 날의 성공적인 이행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
- ◇ 향후 세계통계의 날 정례화를 위한 준비작업 및 계획 논의

□ 개 요

- 통계의 중요성을 전세계에 널리 알리고 공식통계(Official Statistics)가 경제, 사회, 환경 등 여러 분야의 발전에 기여한 업적을 기념하고자 2010년 10월 20일을 제1회 『세계통계의 날(World Statistics Day)』로 제정
- 세계통계의 날 제정을 기념하여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각 국에 기념 행사를 권고하였으며, 이에 호응하여 UN을 비롯한 국제기구 및 회원국은 자체적으로 기념행사 실시
 - 유엔통계처는 “세계통계의 날”을 기념하는 각국의 활동을 살펴볼 수 있는 전용 홈페이지 개설 (‘10.10월 1개월 방문자수 5만명), 유튜브, 페이스북,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 활용, 로고 등을 제작
 - 전세계 130개 회원국에서 인구센서스 등 유관 행사 등의 홈페이지, 포스터 등에 세계통계의 날을 홍보하는 등 기념행사에 적극 동참

□ 평 가

- 세계통계의 날 제정은 통계종사자 뿐만이 아니라 정책입안자 및 일반 국민의 “공식통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 등 성공적인 결과
- 차기 세계통계의 날에는 금번의 경험을 기반으로 젊은 세대 및 교육 기관 등 각계각층의 통계이용자의 수요를 발굴할 필요

□ 논의사항

- “세계통계의 날” 준수 필요성, “세계통계의 날” 기념일 개최 간격 결정
- “세계통계의 날”의 국제적, 국가적 차원에서의 기념행사 정례화 여부
- 차기 “세계통계의 날” 개최를 위한 준비체계(mechanism) 마련 여부

“세계통계의 날”에 관한 의견

(통계청 국제협력담당관실)

□ 논의 배경

- 「제1회 세계통계의 날」의 성공적인 개최를 통하여 지속적인 발전 방향 및 정례화 필요성이 대두되어 향후 발전방향 정립이 필요

□ 최근 국제적 동향

- 전세계 130여국, 40개 국제기구 등이 “세계통계의 날”을 기념하여 다양한 기념활동, 홍보물 배포 등을 통하여 동 기념일을 적극 축하
- 이는 공식통계의 중요성을 통계종사자 뿐만이 아니라 정책입안자 및 일반국민에게도 홍보하는 좋은 기회로써 “통계기반정책관리제도” 정착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평가

□ 주요 이슈

- 각국이 “세계통계의 날”을 준수하여야 하는 필요성을 재정립
- “세계통계의 날”을 정례기념일화 하기 위한 준비체계 마련

□ 검토의견

- “세계통계의 날” 준수는 공식통계의 중요성을 홍보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
 - 특히, UN이 제정한 기념일은 공신력이 있기 때문에 일반국민에게 자연스럽게 홍보할 수 있음
 - 작년에는 한국의 인구주택총조사가 시행되어 세계통계의 날 제정을 홍보하며 통계의 중요성 및 인구주택총조사의 참여를 독려, 상승효과 발휘
- 세계통계의 날 정례화
 - 세계통계의 날을 정례화(UN 제안대로 5년이나 더 짧은 주기로) 하여 전 세계적으로 통계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각국에서 뜻 깊은 행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 이를 위하여 유엔통계처가 총괄 매커니즘으로서 각 국가의 세계통계의 날 기념을 위한 활동을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세계통계의 날” 기념행사 진행방식의 다양화 제안
 - 금번은 1차 기념행사로 미디어 홍보, 포스터 제작 등이 홍보방안으로 주로 활용되었으나, 차기 세계통계의 날에는 금번의 선진사례 등을 참고하여 다양한 기념활동을 진행할 수 있을 것임

<세계통계의 날 기념행사 주요 사례>

- 호주통계청의 경우 직원들을 대상으로 통계 관련 저명학자를 초청하여 강연회를 개최하였고, 미국통계국은 고위급 연사의 강연을 중심으로 통계유관기관 인사 등을 초청하여 세계통계의 날을 기념하는 조찬강연회 등을 개최하는 등 전문가 및 고위급 강연 등의 기념행사를 진행하여 세계통계의 날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
- 영국 및 호주의 경우 연방정부 및 주정부의 지역통계국에서도 다양한 강연회 등을 개최하는 등 적극적으로 기념행사를 진행하였음
- 미국통계청은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세계통계의 날을 알리는 동시에 공식통계의 중요성을 교육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 매뉴얼을 제작하여 보급, 국민들이 자연스럽게 교육을 통하여 통계의 중요성 및 세계통계의 날을 알 수 있도록 유도

Comments on World Statistics Day

- I would like to express my sincere appreciation to the UNSD for advocating and coordinating worldwide activities in commemoration of the first World Statistics Day, and congratulate the organization on the successful outcome of the celebration.
- Statistics Korea believes that the observance of World Statistics Day has proved to be quite effective in promoting the significance of official statistics and their contribution to socioeconomic progress in the world.
- A wide range of activities held around the world for this cause attracted the attention of the general public concerning the achievements and value of official statistics, and we hope that World Statistics Day is observed on a regular basis in the future.
- Statistics Korea lends its full support to the UNSD's proposal to hold it every five years, if not on a more frequent interval.
- We also recommend that the UNSD exploit World Statistics Day as a unique forum to assert the significance of official statistics in society and take the lead in organizing the next World Statistics Day as a common platform for official statisticians around the globe.

<Cases of creative celebration activities >

- In Australia and the USA, lectures on celebrating World Statistics Day were given by eminent professors, statisticians and high level policy makers. As opinion leaders delivered their speeches on the achievement and significance of official statistics, each one had a positive effect in raising the awareness of the official statistics.
- In the UK and Australia, not only the central statistical office but also regional offices held meaningful events such as competitions among staff members, and these endeavors in regional offices successfully promoted the nationwide celebrations.
- In the USA, a booklet was presented to students that introduced World Statistics Day, Federal Statistics and the US Census Bureau describing how students can collect, organize and analyze a variety of statistics. This is considered as a meaningful step in promoting the significance of official statistics for producers and users of statistics in the near future.

3 : 성인지통계에 대한 가나통계청 보고서

(Report of the Ghana Statistical Service on gender statistics)

주요 논점

- ◇ “성인지프로그램”에 대한 각 국의 인지도는 높은 반면, 실질적인 행동강령은 지역적인 범위에서 소극적으로 이행되고 있음
- ◇ 동 프로그램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실행하고 국제비교가 가능한 최소의 통계지표세트 마련 등을 통한 동 프로그램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하여 유엔통계청은 기술 및 재정 필요 국가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책을 마련하는 등 리더십을 발휘하여야 함

□ 개 요

- 1995년 베이징 유엔세계여성회의 이후 각국은 “글로벌 성인지프로그램 (Global Gender Statistics Programme)”을 실행하고 있으나, 국제사회의 공동 추진방향으로 발전시켜야 할 필요

* 유엔세계여성회의 개요 및 주요 기조

구분	연도	장소	주요 기조
제1차	1975년	멕시코시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계여성의 해’ 지정 · “유엔여성10년(1976~1985)” 선포 · “평등·발전·평화”를 주제로 선정
제2차	1980년	코펜하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엔여성 10년 중간평가 · 유엔여성 10년 후반기 사업계획 채택 · “교육·고용·보건”을 주제에 추가로 선정
제3차	1985년	나이로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엔여성 10년 사업 종합평가 · ‘2000년을 향한 나이로비 여성발전 미래전략’
제4차	1995년	베이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이로비 여성발전 전략 검토 및 평가 · “평등·발전·평화를 위한 베이징여성행동강령” 채택
	2005년	뉴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엔 제49차 여성지위위원회를 통해 베이징여성대회+10특별회의 개최, (제5차 세계여성회의는 개최하지 않기로 결정) · 베이징여성행동강령 10년 이행평가 · 각 대륙별로 정부최고위급 평가회의 개최(아태지역 2004년 9월 개최) · 각 대륙별로 NGO Forum 개최 (아태지역 2004년 7월 개최) · 밀레니엄개발정상회의+5(2005년 9월 개최예정)와 여성이슈 결합
	2007~20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5차 세계여성회의 개최 위한 노력 진행 중

- 동 보고서는 각국의 성인지프로그램 이행사항 점검을 위하여 “베이징 행동강령”에 초점을 맞추어 가나통계청* 주관 (필리핀통계청 협력) 설문조사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총 20개국¹⁾, 6개 국제기구에서 응답, 다음의 3개 분야를 기준으로 분석

* 가나는 성인지통계 관련기구 및 전문가회의(IAEG-GS) 의장국

- ① 베이징 행동강령을 지침으로 진행된 성인지통계 관련 사업 진척 상황
- ② 성인지프로그램 이행의 성공요인 분석
- ③ 성인지통계 및 관련분야 발전을 위한 제안

□ 각국의 이행상황 점검 분야

- ① 전담 조직 구성 등
 - 한국의 경우 통계청 및 여성 관련 부처(여성가족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양성평등교육진흥원)이 협력하여 성인지통계 제공
- ② 프로그램 세부내용 (국가정책의 성별영향 평가에 필요한 성인지통계 지표 개발 등) 이행여부
 - 한국의 경우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통계청)”을 발간
- ③ 주요성과
 - 한국의 “성인지통계프로그램” 등을 캐나다 사례 등과 함께 모범사례로 언급
- ④ 주요과제 (성인지통계 생산이 가능한 양질의 데이터 부족, 성인지통계 이용효과 최대화를 위한 이용자능력 제고 등)

□ 유엔통계처 리더십 역할 제공 필요

- ① 성인지통계 생산, 분석 관련 역량 강화 (직원교육 등)
- ② ICT 및 시청각기술을 활용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 ③ 성인지통계 관련 통계 생산을 위한 각종 매뉴얼 업데이트
- ④ 비체계적으로 수집되는 성인지통계의 개편 작업 진행
- ⑤ 성인지통계프로그램 이행을 위한 통계역량 강화
- ⑥ 각국의 성인지통계 생산 및 배포 유관기관 간 협조체계 구축
- ⑦ 통계선진국의 개발도상국 성인지통계 개발사업 지원

1) 아르메니아, 호주, 벨라루스, 보츠와나, 브룬디,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쿠바, 에스토니아, 핀란드, 독일, 가나, 일본, 대한민국, 리투아니아, 필리핀, 수리남, 푸에르토리코, 베네수엘라

□ 결 론

- “성인지프로그램”에 대한 인지도는 높은 반면, 여전히 “성인지통계 배포”에만 집중하는 등 지역적인 범위에서 행동강령을 이행 중
- 기술적인 지원 및 재정 부족 등으로 많은 국가에서 베이징행동강령의 기본원칙조차 이행하기 힘든 상황으로 역내 협력 및 국제기구 공조 등을 통하여 성인지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
- 유엔통계처는 지속적으로 기술적인 분야의 리더십을 발휘하여 각국이 동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

□ 논의 사항

- 유엔통계처의 지속적인 리더십 수행
- 동 프로그램 이행사항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실행하고 이를 국제적 차원에서 공유
- 유엔여성지위위원회와 공조하여 국제비교가 가능할 수 있는 최소의 성인지통계 지표세트 마련
- 성인지통계 관련기구 및 전문가회의의 역할을 강화하고 성인지통계 분야의 발전상황을 점검할 수 있도록 “성인지통계 글로벌포럼”을 2년에 1회 개최

성인지 통계에 관한 의견

(여성가족부 성별영향분석평가단,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논의 배경

- 1995년 제4차 UN 세계여성대회 행동강령 이후, 각국에서 성별구분 통계를 생산·보급하기 위한 통계프로그램들을 추진하고 있음
 - 성인지통계 프로그램의 근본 목적은 동일하지만 각국의 성인지통계 프로그램의 구조, 방향, 범위, 결과 등은 상이함.
 - 따라서 각국의 성별통계 프로그램이 UN 행동강령의 최소 수준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국제사회로부터의 지침이 필요함
- 이 보고서는 베이징 행동강령을 개념적 틀로 적용하여 각국 성인지 통계프로그램의 발전 상태를 검토하고 있음

□ 최근 국제적 동향

- UN, World Bank, 스웨덴 등에서 각국의 성인지통계 프로그램이 발전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지원 및 문서 공유 등을 통해서 협력을 모색하고 있음

□ 주요 이슈

- 각국의 성인지통계 프로그램의 발전을 위한 대안 모색
 - 1995년 제4차 UN 세계여성대회 행동강령의 취지와 달리, 성인지통계 프로그램들이 성별구분통계를 보급하는 것으로 매우 협소하게 이해하는 경우가 많음
 - 각국의 성별통계 프로그램의 발전을 위해서 UN 통계위원회의 전문적인 리더십 필요

□ 검토 의견

<총괄 평가>

- (여성가족부) 한국의 성인지통계 업무체계는 국가승인통계를 대상으로 하는 통계청과 양성평등정책 총괄 부처인 여성가족부가 상호 협력 하에 추진하고 있으며 여성가족부는 양성평등정책 총괄 부처로서 성별영향평가, 성인지예산제도 등 양성평등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각 부처의 성인지통계 생산 및 구축을 지속적으로 촉진할 예정임
 - 성인지통계는 성별구분통계를 보급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으므로, 성인지통계가 궁극적으로 성평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주요 핵심 통계를 발굴하여 지정·관리하는 사업 개발 예정
 - 성인지통계 프로그램을 발전시키기 위해 여러 방법들을 모색 중에 있으며, 2011년 연차보고서 발간을 추진할 예정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여성정책전문연구기관으로서 한국의 성인지통계 발전을 위한 연구, 성인지통계 간행물 발간 및 성인지통계 정보의 지속적인 확산을 통해 성인지통계의 정책적 활용도를 제고할 예정임
 - 성인지통계와 성인지 예산, 성별영향평가의 유기적 연계와 양성평등정책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성인지통계 생산에 대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
 - 『한국의 성인지통계』 등 한국 남녀의 지위와 상태를 보여주는 성인지통계 간행물을 정기적으로 발간, 배포
 - 2006년부터 구축·서비스하고 있는 성인지통계 DB 전문 사이트인 성인지통계 정보시스템(KWDI Gender Statistics Information System)의 지속적인 업데이트를 통해 시의성 및 활용도를 제고

<성인지통계 프로그램 검토에 따른 후속 행동>

- (여성가족부) 성인지통계 프로그램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성인지통계 프로그램에 대한 모델 지도 등의 후속 행동에 대해 동의함
 - 바람직한 성인지통계 프로그램에 대한 모델이 제시된다면, 성인지통계 프로그램을 구체적으로 개발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됨

- 특히, 성인지통계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성인지통계에 대한 개념정의가 필요하므로 법률에 적용 가능한 수준까지 구체화된 성인지통계에 대한 개념 및 범위 설정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가나 통계청 보고서가 2010년 현재 UN 회원국의 성인지통계 현황을 분석하고, 향후 UNSD의 활동 방향을 제안한 것은 의미 있는 성과임
 - 그러나 가나 통계청 보고서의 분석대상 국가가 20개로 UN 회원국 전체를 포괄하지 못하고 있음
 - 또한 한국과 같이 성인지통계가 일정 수준에 도달한 국가는 성인지통계의 선진국 사례에 대한 정보가 필요함
 - 향후 UNSD의 회원국 성인지통계 현황은 분석에는 스웨덴, 캐나다, 미국 등 성인지통계 분야의 선진국이 포함되어야 할 것임

<성인지통계의 정책적 활용 사례 수집·제시>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가나 통계청 보고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성인지통계 생산과 관련된 UN 회원국과 UN 지역위원회의 성인지통계 프로그램은 UN 회원국의 성인지통계 생산에 중요한 정보를 제공함
 - 그러나 가나 통계청 보고서와 UNSD의 설문지는 성인지통계 생산(자) 중심으로 내용이 구성되어 있어 성인지통계 활용(사용자 관점) 측면이 누락되어 있음
 - 한국과 같은 분산형 통계 시스템(Decentralized Statistics System)을 취하고 있는 UN 회원국의 중요한 특징은 각 정부 부처가 정책적으로 필요한 통계를 스스로 생산, 활용하는 것임
 - 따라서 각 정부 부처의 성인지통계 생산의 필요성은 이용자의 성인지통계의 정책적 활용도 및 필요성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
 - 성인지통계 생산의 필요성에 대한 법률적, 당위적 강조와 함께 UN 회원국의 성인지통계의 실제적인 정책적 활용 정도와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활용(사용자 관점) 측면에서 성인지통계 생산을 추동할 필요가 있음

Comments on Gender Statistics

Statistics Korea would like to express its deep appreciation for the extensive review of the Ghana Statistical Service on the status of the production of gender statistics among the UN member states and action plan for the United Nations Statistics Division.

We strongly support the follow-up actions suggested in the report. There is an urgent need for a comprehensive review of the model gender statistics programme. The identification of an appropriate model will help to develop this objective. Particularly, a more systematic definition of gender statistics is required to encompass a wide range of components involved in the production of gender statistics in affiliated countries.

Therefore, we recommend that the establishment of the definition of gender statistics that may be written into national law be included in the follow-up actions of the UNSD.

<General Comments>

- (Ministry of Gender Equality & Family) Statistics Korea and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are cooperatively designing a working system for gender statistics. As the ministry in charge of gender equality,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will continually promote the production and establishment of gender statistics for each ministry for the effective accomplishment of gender influence, policies including gender impact assessment and budget policies.
- As gender statistics needs to transcend the propagation of gender-differentiated statistics, a new project to develop and manage core statistics which improves gender equality is presently in the design process.
- Currently, various methods are being examined to develop the gender statistics programme, and an annual report that includes the findings will be published in 2011.
-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The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as a leading research institute for gender policy in Korea, is expected to improve the practical uses of gender statistics in policy-making through increasing the dissemination of publications and information as well as conducting research on gender statistics.

This can be accomplished through;

- Research that focus on producing gender statistics which effectively supports both gender equality policy and close connections among gender statistics, gender budget, and gender impact analysis
- Publication and distribution of gender statistics publications, such as *Gender Statistics in Korea*, which represent the status and condition of both women and men in Korea on a regular basis
- Improvement in timeliness and practical use by continually updating

on the KWDI Gender Statistics Information System, which has been in operation since 2006, as a specialized site for gender statistics.

<Follow-up actions to be taken in regards to the Gender Statistics Programme>

- (Ministry of Gender Equality & Family) We agree on the follow-up actions including the comprehensive review of the model gender statistics programme.
 - Once an appropriate model is proposed, the effects will be highly beneficial in developing a gender statistics program in detail.
 - As there is a need for an established definition on the concept of gender statistics in order to develop the programme, it is necessary to set up a specific concept and boundary for gender statistics that are applicable to laws.
-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The report of the Ghana Statistical Service is a significant achievement as it analyzes the conditions of gender statistics in the UN member states and suggests an action plan for the United Nations Statistics Division.
 - However, the report of the Ghana Statistical Service analyzes only 20 member states, therefore it does not include all UN member states
 - Member states, such as Korea, whose gender statistics have reached a sustainable level could benefit from the experience of advanced countries.
 - The United Nations Statistics Division needs to include specific cases from advanced countries, such as Sweden, Canada, and the United States, in the analysis of gender statistics among member states.

<Collection and Presentation for the Cases of Practical Use in Gender Statistics Policy>

-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Gender statistics programmes of the UN member states and the UN regional commission related to the production of gender statistics suggested in the report of the Ghana Statistical Service are providing important information in which to produce gender statistics among UN member states.
- However, the report of the Ghana Statistical Service and the questionnaires of the United Nations Statistics Division are organized with a majority of the focus on the producers of gender statistics, thereby omitting the aspects of users of gender statistics.
- The main characteristic of the UN member states which have adopted the Decentralized Statistics System, such as Korea, is that each government ministry is responsible for producing and utilizing statistics as required for policy making purposes.
- Therefore, the necessity for the production of gender statistics in each government ministry depends on the applicability and necessity of gender statistics policy of the relevant ministry
- Gender statistics need to be produced by analyzing the practical uses of gender statistics policy from the aspects of users as well as emphasizing the necessity of the production of gender statistics by law and requirements of the data.

4 : 성인지통계프로그램에 대한 사무총장 보고서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on gender statistics programme)

주요 논점

- ◇ 성인지통계에 관한 유엔통계처의 최근 활동 보고
 - 1) “세계의 여성 2010 : 트렌드 및 통계” 책자 발간
 - 2) 성인지통계프로그램 이행상황 점검
 - 3) 2011-2012 성인지통계 관련 유엔통계처 사업계획 소개

□ 검토 배경

- 1995년 베이징 유엔세계여성회의 이후 성인지통계의 필요성에 대한 국제적 공감대는 형성되었으나 여전히 성인지 관련 구체적 데이터 수집은 지역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한계 봉착
- 유엔새천년개발계획(MDG)의 “성평등 달성 및 여성역량 강화” 목표 달성을 위하여 성분리통계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 상당수 국가가 동 통계 제공에 난항을 겪고 있음
- 유엔통계처, 유엔인구기금(UNFPA), 세계은행 등은 “글로벌 성인지프로그램 (Global Gender Statistics Programme)”을 재정비하여 관련 사업을 진행하여 오고 있으며 이에 제42차 유엔통계위원회에서 동 프로그램에 대한 review를 논의할 예정

□ 「세계의 여성 2010 : 트렌드 및 통계」 발간

- 1995년 베이징 유엔세계여성회의에서 채택된 "베이징 행동강령"의 이행 여부 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1990년 출간된 「세계의 여성」을 매 5년마다 발간하는 것으로 정례화
 - '10년 세계통계의 날(10.10.20.)을 기념하여 제5권이 출간
 - 제5권은 총 8개* 정책부문에 대한 내용을 포함
 - * 인구 및 가족, 보건, 교육, 고용, 의사결정권, 여성폭력, 환경, 빈곤 부문

- 특히, 지난 10년간 많은 국가에서 성인지통계 생산이 가능해짐에 따라 항목별로 많은 국가의 성인지통계가 수록
- 국제비교가능 데이터 유효성 부족 및 성인지통계의 국가별 품질차이
 - 국가별로 성인지통계에 대한 개념, 정의, 조사방법이 달라 국제비교 가능한 데이터가 부족하고 여전히 성인지통계 생산에 어려움이 있는 국가가 많아 통계품질의 차이 존재

□ 성인지통계프로그램 최근 성과 - 제3차 성인지통계 글로벌포럼 개최

- 성인지통계 글로벌포럼 개최 배경
 - 다양한 정책 관심 영역에서 여성과 남성의 상대적 지위를 평가할 수 있는 양질의 통계와 지표를 수집, 공표, 활용할 수 있는 각 국가의 역량 향상을 목적으로 '07년부터 유엔통계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성인지통계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성인지 통계현황을 평가하고 향후 발전을 위한 국제적인 성인지 통계프로그램을 제안

※ 1차 ('07, 이탈리아 로마), 2차 ('09, 가나 아크라), 3차('10, 필리핀 마닐라)

- 주요 논의 내용
 - 보건통계에서의 성별 측면 고려방안을 중심으로 모자사망, 장애 등 모자보건에 대한 측정방법을 논의
 - 관련기구 및 전문가회의(IAEG-GS :Inter-Agency and Expert Group on Gender Statistics)가 동시에 개최되어 성인지통계의 핵심지표세트의 필요성에 동의하고 유엔통계처에 선진국 중심이 아닌 전세계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성인지통계 작성매뉴얼을 준비할 것을 권고

□ 2011-2012 유엔통계처 주요사업계획

- 여성폭력에 대한 통계생산 지침서(Guideline) 마련
- 생활시간조사 국제 분류 개정
- 성인지통계 생산 작성자를 위한 교육 매뉴얼 마련 등

성인지통계프로그램에 관한 의견

(여성가족부 성별영향분석평가단,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여성가족부>

- 유엔통계처의 성인지통계 사업으로는 성인지통계 프로그램의 주요 문제인 성인지통계 자료수집체계, 성인지통계의 접근성, 성인지통계 활용 부분 해결 업무 등을 추진 중
 - 이와 관련하여, 성인지통계 자료수집체계의 경우 분야별 핵심적인 성인지통계가 수집·보급될 수 있도록 분야별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진행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유엔통계처는 2011-2012년 UN 성인지통계 업무로 여성폭력에 관한 통계생산 가이드라인을 준비할 예정임
 - 이와 관련하여, 성평등에 관한 목표를 평가할 수 있도록 여성폭력에 대한 핵심적인 지표들이 생산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이 준비되는 것이 필요
 - 향후 폭력행위별 성별현황을 볼 수 있는 통계의 생산·활용도 필요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여성정책전문연구기관으로서 한국의 성인지통계 발전을 위한 연구, 성인지통계 간행물 발간 및 성인지통계 정보를 지속적으로 확산 추진 중
 - 여성장애인 지표 개발 연구 등 새로운 영역과 분야의 성인지통계 발전 방안에 대한 연구 수행
 - 『한국의 성인지통계』 등 한국 남녀의 지위와 상태를 보여주는 성인지통계 간행물을 정기적으로 발간, 배포
- 회원국의 성인지통계 발전 수준을 반영한 UN 성인지통계 프로그램의 다양화
 - 회원국의 성인지통계 발전을 위한 UN 사무총장과 유엔통계처의 적극적인 의지를 지지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에 동의함

- UN 성인지통계 프로그램의 효율성 증진을 위해 UN 회원국의 성인지통계 발전 수준을 반영할 수 있도록 UN의 성인지통계 프로그램을 세분화할 필요가 있음
 - 한국의 경우, 통계법에서 성인지통계 작성을 규정하고 있으며, 생활시간조사, 인구총조사 등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전국 단위의 성인지통계 책자 뿐 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수준의 성인지통계 간행물 발간이 정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2006년부터 구축·서비스하고 있는 성인지통계 DB 전문 사이트인 성인지통계 정보시스템(KWDI Gender Statistics Information System)의 지속적인 업데이트를 통해 시의성 및 활용도를 제고
 - 한국과 같이 성인지통계 발전 정도가 일정 수준에 도달한 UN 회원국의 경우, 기존 UN의 성인지통계 프로그램은 적합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음
 - 따라서 한국과 같이 성인지통계가 발전한 회원국에 적합한 성인지통계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음
- ※ 예: 남성과 여성의 일·가족 양립은 한국 등 선진국에서 제기되고 있는 정책 현안으로, 이와 관련된 성인지통계 생산이 선진국의 주요 과제로 대두할 것으로 예상됨

- 성인지통계 활용과 관련된 향후 유엔통계처의 활동 방향 제언
 - **UNSD**가 그 동안 개발·보급한 다양한 방법론과 가이드라인은 UN 회원국의 성인지통계 생산을 촉진하는데 크게 기여하였음
 - 그러나 기존 **UNSD**의 성인지통계 관련 활동은 생산자에 초점을 맞춘 경향이 있음
 - 최근 **UNSD**가 **UNECE**, **World Bank** 등과 공동으로 개발한 훈련교재 역시 성인지통계 생산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임
 - 성인지통계 생산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성인지통계 사용자의 수요가 있어야 하며, 이것은 성인지통계 사용자의 성인지통계에 대한 인식과 활용 방법에 대한 교육을 통해 구체화될 수 있음
 - 따라서 **UNSD**는 성인지통계 생산자 대상의 훈련 매뉴얼뿐만 아니라 성인지통계 사용자 대상의 훈련 매뉴얼을 개발·보급할 필요가 있음

Comments on for the Gender Statistics Programme

We support various programmes to develop gender statistics in member states. And we need to subdivide the gender statistics programmes of the UN in order to apply the appropriate level for sustainable development of gender statistics in member states and to improve the efficiency of the UN gender statistics programme.

In Korea , production and dissemination were mandated by Statistics Law in 2007. Since then, gender statistics have undergone substantive improvement in the scope of production and data quality. Timeliness and use of gender statistics have increased noticeably by constantly updating the Gender Statistics Information System which is solely devoted to the dissemination of gender statistics.

Member states, such as Korea, whose gender statistics have reached a sustainable level, would benefit significantly from a tiered Gender Statistics Programme. For instance, work-family balance is a key policy issue in many countries, so we strongly recommend that this need be addressed as a priority in developing the gender statistics programme.

The guidelines and various methodological work in gender statistics, which the United Nations Statistics Division developed and disseminated, have contributed immensely to promoting the production of gender statistics in UN member states. The existing activities of the United Nations Statistics Division related to gender statistics tend to focus on the producers of gender statistics. The training manual recently developed by United Nations Statistics Division in collaboration with UNECE and the World Bank also focuses on the producers of gender statistics.

To invigorate the production of gender statistics, the demands of users should be identified and translated into the production process. This can be achieved more effectively by training users of gender statistics to improve their awareness and utilization skills. Therefore, we would like to ask the UNSD to make further efforts to develop and disseminate a training manual designed not only for the producers but also the users of gender statistics.

<Ministry of Gender Equality & Family>

- The UNSD has been working on sensitive gender data collection systems, the limited availability and accessibility of gender statistics, and under-utilization of gender statistics.
 - It is important to prioritize among these corresponding areas so that core gender statistics can be collected and disseminated.
- The UNSD is planning to establish a statistical production guideline on violence against women, as one of its 2011-2012 activities.
 - There is a need for the guideline to be effectively prepared so that core indicators on violence against women can be produced and the objectives on gender equalities can be properly assessed.
 - Production and utilization of statistics that represent specific types of violent behaviors are also necessary.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 The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is expected to increase its dissemination of publications and information as well as research on gender statistics in Korea. This can be accomplished through;
 - Research on a development plan for gender statistics in new areas and fields, such as the development of indicators for women with disabilities, and
 - Publication and distribution of gender statistics publications, such as *Gender Statistics in Korea*, which represent the status and condition of both women and men in Korea on a regular basis.
- The diversification of the Global Gender Statistics Programme of the UN reflected the development of gender statistics from member states.

- We support the endeavors of the secretary-general and United Nations Statistics Division and agree with various programmes to develop gender statistics in member states.
- One recommendation is to subdivide the gender statistics programme of the UN and apply the various levels for development of gender statistics in member states and to improve the efficiency of the gender statistics programme of the UN.
- Gender statistics are incorporated in the Statistics Law in Korea. Issue of gender statistics are successfully represented in the Time Use Survey and Population Census resulting in gender statistics publications that are regularly published at the both national and regional level.
- Member states, such as Korea, whose gender statistics have reached a sustainable level are weak in terms of comparability with existing Gender Statistics Programme of UN.
- Therefore, there is need for further development in order to apply the Gender Statistics Programme to all member states whose gender statistics have reached a sustainable level.
- * For instance, work-family balance between men and women has been expressed as a policy issue in advanced countries including Korea so developing gender statistics related to this is expected to come to the forefront as a major issue.
- We would like to suggest an outline for future activities of the United Nations Statistics Division related to the use of gender statistics
- The guidelines and various methodological work accomplished in the area of gender statistics, which the United Nations Statistics Division developed and disseminated, have contributed to promoting the production of gender statistics among UN member states.

- However, existing activities of the United Nations Statistics Division related to gender statistics tend to focus on the producers of gender statistics.
- The training manual on gender statistics recently developed by the United Nations Statistics Division in collaboration with UNECE and the World Bank also concentrates on the producers of gender statistics.
- To invigorate the production of gender statistics, the demands of users need to be identified and translated into the production process. This can be achieved more effectively by training the users of gender statistics to improve their utilization skills.
- Therefore, we would like to ask the UNSD to make additional efforts to develop and disseminate a training manual, not only for the producers, but also the users of gender statistics.

5 : 여성폭력에 대한 유엔통계위원회 FoC 보고서

(Report of the FoC of the UN Statistical Commission on violence against women)

주요 논점

- ◇ “여성폭력에 대한 의장지원단회의(FoC)-’09년 멕시코 개최- 결과 및 향후 FoC 주요 사업방향 보고
- ◇ 동 회의에서 여성폭력에 대한 핵심지표(9개)를 선정하였으며, 여성폭력에 대한 통계생산 지침서 및 각종 행정자료의 생산 및 공표시 성인지통계를 포함시키는 권고안 마련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

□ 여성폭력에 대한 의장지원단 개요

○ 연 혁

- 제39차 유엔통계위원회(’08)에서 회원국의 여성폭력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
- ’09년 의장지원단회의(약칭 FOC, 멕시코 아구아스칼리엔테 개최)에서 여성폭력에 대한 각국 및 국제기구가 수집한 통계 및 메타데이터 기반 통계지표 개발에 대한 세부 논의 진행
- 제41차 유엔통계위원회(’10)에서 여성폭력의 범위, 빈도, 가혹성 등을 평가할 수 있는 기초지표를 제안

○ 의장지원단(FOC) 국가 (15개국 + 유엔통계처)

- 멕시코(의장국), 호주, 방글라데시, 보츠와나(아프리카 남부 독립국), 불가리아, 캐나다, 칠레, 중국, 코스타리카, 이집트, 가나, 이탈리아, 태국, 터키, 미국, 유엔통계처

※ 의장지원단은 협상의 쟁점을 확인하고 대화를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비상설그룹으로 의장국이 지원 국가를 선정하여 구성

□ 의장지원단회의('09, 멕시코) 주요 결과

- 여성폭력에 대한 통계조사 관련
 - 기본적으로 여성폭력에 대한 통계조사는 기존의 데이터와 독립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전용(專用) 표본조사가 필요
- 여성폭력에 대한 통계 제공 가능 기관(administrative resource) 발굴
 - 여성폭력에 대한 통계는 경찰청, 병원, 여성보호기관 등 다양한 기관에서 생산되기 때문에 이러한 유관 기관을 보다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새로운 지표 등을 만들어 내는 작업 필요
- 여성폭력에 대한 핵심지표(9개) 선정
 - ① 신체적 폭력의 가혹성, 가해자와의 관계, 빈도에 따른 전체 및 연령별 비율(지난 1년간)
 - ② 신체적 폭력의 가혹성, 가해자와의 관계, 빈도에 따른 전체 및 연령별 비율(평생)
 - ③ 성학대의 가혹성, 가해자와의 관계, 빈도에 따른 전체 및 연령별 비율(지난 1년간)
 - ④ 성학대의 가혹성, 가해자와의 관계, 빈도에 따른 전체 및 연령별 비율(평생)
 - ⑤ 혼인경험여성의 현·전 배우자에 의한 신체적 폭력 및 성학대의 전체 및 연령별 비율(지난 1년간)
 - ⑥ 혼인경험여성의 현·전 배우자에 의한 신체적 폭력 및 성학대의 전체 및 연령별 비율(평생)
 - ⑦ 가까운 파트너(intimate partner)에 의한 정서적 폭력의 전체 및 연령별 비율(지난 1년간)
 - ⑧ 가까운 파트너(intimate partner)에 의한 경제적 폭력의 전체 및 연령별 비율(지난 1년간)
 - ⑨ 여성할례(Female Genital Mutilation) 전체 및 연령별 비율
- “여성폭력에 대한 통계생산 지침서(Guideline) 지지
 - 여성폭력에 대한 통계조사의 중요성, 정의, 주요 특징 및 동 통계조사 설계 및 운영 등에 대한 세부 설명이 포함

□ 의장지원단 향후 사업계획

- 1단계
 - 여성폭력에 대한 핵심 및 추가지표 확정
 - “여성폭력에 대한 통계생산 지침서(Guideline)” 확정
- 2단계
 - 여성폭력에 대한 기존 통계를 핵심지표세트로 통합
 - 각종 행정자료의 생산 및 공표 시 성인지통계를 포함할 수 있도록 하는 권고안 마련

□ 검토 의견

-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여성정책전문연구기관으로 여성폭력 등 한국 여성의 인권 보장 및 성폭력 등 다양한 폭력으로부터의 보호를 위한 정책 및 통계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할 예정임
 - 여성의 성폭력 피해에 대한 다양한 조사 수행
 - 여성에 대한 폭력의 사회적 비용 추계 등 관련 연구 수행
 - 여성에 대한 폭력 방지 및 여성인권보장을 위한 법제도 방안 마련
- 여성폭력 조사 핵심 지표의 문화적 특수성
 - UN 회원국의 여성폭력 관련 통계 및 지표 발전을 위한 FOC 보고서의 내용과 제안에 동의함
 - FOC 보고서에서 제안된 여성폭력 조사의 핵심 지표의 문화적 특수성에 대한 검토를 통해 핵심 지표의 보편성이 확보되기를 기대함
 - 핵심 지표 ix. 전체 여성 및 연령별 여성 성기 할레 피해율은 한국과 같은 국가에는 적합하지 않은 지표로, 모든 회원국에 적용되는 핵심 지표로는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행정자료에 기반한 여성폭력 통계의 한계 극복 방안
 - FCG 보고서에서 제안하는 행정자료에 기반한 국제적으로 비교가능한 여성폭력 통계가 효과적으로 생산될 수 있기를 기대함
 - 그러나 법원, 경찰 등 행정자료에 기반한 여성폭력 통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신고(보고)에 기반하고 있어, 여성폭력을 과소보고할 가능성이 큼
 - 따라서 위와 같은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동시에 검토되어야 할 것임

Comments on violence against women

- The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is expected to conduct continual research focusing on policy and statistics that protect women against violence, such as abuses of women's rights and sexual violence. This can be accomplished by;
 - Conducting various surveys for women who suffer from sexual violence
 - Conducting research to estimate the social costs of violence against women, and
 - Establishing a legal system to prevent violence against women and ensure women's rights.

- In terms of cultural specificity of the core indicators on violence against Women;
 - We agree with the details and suggestions from the report of the FOC to develop statistics and indicators related to violence against women in member states.
 - By examining the cultural specificity of the core indicators for surveys on violence against women, as suggested in the report of the FOC, the universality of the core indicators can be ensured.
 - The core indicator 'ix. Total and age specific rate of women subjected to female genital mutilation.' is not a proper indicator for countries such as Korea. It is not applicable to all member states and is inappropriate as a main indicator. Thus, we recommend that it be reevaluated.

- In regards to the solution to overcome the limitations of statistics on violence against women based on administrative data;

- We anticipate the ability to effectively produce statistics on violence against women based on administrative data and to conduct international comparisons, as suggested in the report of the FOC.
- However, statistics on violence against women that is based on administrative data from courts of law or the police, relies on the reports of victims so there is a distinct possibility that violence against women is under-reported.
- Therefore, a solution to overcome this limitation needs to be examined.

6 : 국민계정 작업반 보고서

(Report of the Intersecretariat Working Group on National Accounts)

주요 논점

- ◇ 2008 SNA 번역 및 발간
- ◇ 2008 SNA 연구의제, 국민계정작업반의 권한 및 책임범위
- ◇ 2008 SNA 이행 범위, 준수 및 이행프로그램

□ 개 요

- 제41차 UN통계위원회는 2008 SNA 이행 프로그램 추진을 주도해온 국민계정작업반(ISWGNA)의 노력을 치하하면서 아래와 같은 사업 수행을 추가 요청
 - 2008 SNA의 세 가지 이행단계별로 일관된 이행지침 제시
 - UN통계처와 Eurostat의 속보성지표 및 종합경기순환지표의 데이터 템플릿 개발사업 추진 등과 2008 SNA 이행 프로그램의 통합 가능 여부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보고
 - 각 지역의 교육훈련기구들과 협력하여 국민계정 교육 및 관련 지식 전파
 - 2008 SNA의 연구의제들을 최근 새롭게 부상하는 이슈들과 연계하여 재평가

□ 2008 SNA 이행 프로그램 추진 경과 및 ISWGNA의 활동

- 2008 SNA의 영어판이 UN 출판국에 제출되어 2010년 6월 발간되었고, 이어 UN통계처 경제사회분과의 주도 하에 5개 공식 언어(아랍어, 불어, 중국어, 러시아어, 스페인어)로 번역하기 위한 작업이 진행 중
- 한편, ISWGNA는 지역위원회와 협력하여 각국의 통계역량 제고 및 2008 SNA 이행을 위하여 아래와 같은 활동을 전개
 - 2008 SNA 공표 이후 새롭게 부상한 연구의제들에 대한 연구
 - *Essential SNA*, *2008 SNA-Concepts in Brief*, *2008 SNA-Implementation in Brief* 등의 책자를 발간하여 SNA에 대한 지식 보급 및 이행 촉진
 - 2008 SNA 이행 추진을 위한 회원기구들(World Bank, OECD, IMF, Eurostat, UN통계처)의 활동 지원

□ Research agenda

- 2008 SNA에는 작성 당시 부상하였던 연구의제들을 명시한 바 있으나 이후 좀더 심도 있는 검토가 요구되는 새로운 이슈들이 나타남에 따라 ISWGNA의 관리 하에 이에 대한 연구 추진 중
- 연구의제들에 대한 검토 및 그 결과의 국제기준/편람 반영작업은 전세계적 대표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ISWGNA의 주도 아래 조정되어야 함

〈 현재 진행 중인 연구 〉

- 배출허용한도(Emission allowance) 및 배출허가권(Emission Permit)의 처리
- 금융중개서비스(FISIM)의 처리
- Stiglitz 보고서와 'GDP and beyond'

□ 국민계정작업반(ISWGNA)의 임무 및 지원그룹

- ISWGNA는 Eurostat, IMF, OECD, UN, World Bank로 구성되어 있고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
 - SNA의 방법론적 개선 및 이행 관련 전략과 방향 등을 제시
 - 국민계정 관련 국제적, 지역적, 국가적 수준의 DB 개발 촉진
 - SNA의 이행 및 관련 기초통계의 작성 권장
 - 정책형성과정에서 국민계정 및 관련 기초통계의 활용 권고
- 전문가그룹(AEG)은 ISWGNA의 업무수행을 지원
 - SNA 이행 프로그램의 개발, 연구의제 및 새로 부상하는 이슈들의 연구 지원
- 의장단 후원그룹(FOCG)은 ISWGNA를 도와 1993 SNA 이행이 부진한 국가의 진척상황 점검 및 이행 장애요인 파악 등의 업무 수행(주로 이메일을 통하여 업무 수행)
 - 향후 선진국 및 개도국에 대해 적절한 거시경제통계의 개발과 관련한 제언을 담은 분석보고서 작성 예정

□ 속보성 지표와 2008 SNA

- 세계경제위기가 닥침에 따라 세계 각국과 국제기구들은 경제의 급속한 변화를 모니터하여 보다 신속하고 적절한 정책적 대응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속보성 지표의 작성 및 관련 정보의 교류를 모색

- 그 일환으로 UN통계청은 Eurostat와 공동으로 조기경고·경기순환지표 (Early Warning and Business Cycle Indicators) 관련 국제세미나 개최
- IMF와 금융안정위원회(FSB)는 금융위기와 정보 공백(information gap)에 관한 보고서(2009.10월 및 2010.5월) 발표
- 한편, 2008 SNA가 금융 및 경제위기의 구조적 측면을 좀더 잘 이해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를 제공하고 있는바, 속보 추계 및 그 조기 공표는 2008 SNA의 이행에 기여할 수 있는 측면이 있으며,
 - 속보성지표의 데이터 템플릿 및 그 작성지침 개발사업 등은 2008 SNA 이행 프로그램에 통합될 예정

□ SNA의 이행

- SNA 이행 프로그램은 두 가지 측면에서 각국의 통계역량을 확장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데
 - 첫째, 1968·1993 SNA에서 2008 SNA로 개념적 변화 수용 역량
 - 둘째, 국민계정 및 관련 경제통계들에 대한 범위, 세분수준 및 질적 측면에서의 개선 역량
- 이행단계는 아래의 3단계로 나뉘어 짐
 - 1단계: 전략 프레임워크의 점검, 국가적·지역적 이행 프로그램의 상세화
 - 2단계: 분류 체계, 사업체 명부, 조사, 행정자료 출처, 정보기술 인프라 등의 조정
 - 3단계: 조정된 분류체계 및 출처자료의 적용, 소급 적용, 2008 SNA로의 이행
- 각국은 자국의 실정에 맞게 2008 SNA로 이행하는 각 단계의 경과기간을 정하도록 되어 있고, 각 단계별로 2~3년간의 이행기를 거쳐 2014년부터 다수의 회원국이 2008 SNA로 이행 예정

□ 2008 SNA 이행의 모니터를 위한 지침

- ISWGNA는 1993 SNA 이행을 모니터하기 위해 6개의 이정표를 개발하여 이를 척도로 각국에서 작성되고 있는 계정의 범위를 평가하였으며, 이러한 이정표들은 후에 3개의 자료집합을 통하여 보완되었음

〈 자료집합 〉

- 최소한 요구되는 자료집합(Minimum Requirement Data Set)
- 권장 되는 자료집합(Recommended Data Set)
- 이상적인 자료집합(Desired Data Set)

- 또한 ISWGNA는 각국 국민계정통계의 1993 SNA 이행 충실성을 평가하기 위해 일련의 체크리스트를 개발하였음

○ 1993 SNA (이행) 충실성 측정 요소들은 2008 SNA에도 유용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보다 시의성 있는 정보의 필요로 인해 분기 국민계정 작성에 강조됨에 따라 어느 정도의 조정이 필요하게 됨

- 최소요구자료집합(MRDS)는 산업 및 지출항목별 분기 GDP(명목 및 실질) 및 분기 통합계정의 작성으로 확대되고, 연간 제도부문별 계정의 추계를 순채권까지 작성하도록 확대되었음

- 권장자료집합에 부문별 금융계정 및 대차대조표 등의 연간 추계가 추가적으로 포함되고 이들의 분기 추계가 이상적 자료집합에 포함되었음

□ 논의 사항

- 2008 SNA 발간 및 번역과정, 연구의제 검토
- ISWGNA 및 AEG의 권한범위
- 속보성 자료 및 지표의 설정작업
- 2008 SNA 이행범위 및 준수

국민계정 작업반 보고서에 관한 의견

(통계청 지역소득통계팀, 한국은행)

□ 논의 배경

- UN 통계위원회는 2008 SNA의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국민계정 작업반 (ISWGNA)에 대해 이행지침 마련, 주요사항에 대한 검토 등을 요청하였으며, 이에 따라 ISWGNA는 최근 1년간의 주요 활동내용 등을 보고

□ 최근 국제적 동향

- 탄소배출권 처리방법 연구, 금융중개서비스(FISIM) 관련 2008 SNA 규정 명확화, 사회발전 및 복지 측정, 가계부문의 소득·지출·부·생산에 대한 세부통계 확충, 녹색성장지표 개발 등을 위해 OECD, Eurostat 및 프랑스(INSEE) 등 주요국을 중심으로 Task Force가 구성·운영
- 1993 SNA 이행 장애요인 분석, 1993 SNA 및 2008 SNA 이행방안 제시 등을 위해 FOCG(Friends of the Chair Group)가 설립
-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조기경보 및 경기종합지표 개발, 정보 갭 (information gap) 축소, 속보성 지표(high-frequency indicator)의 data template 개발 등과 관련된 국제적 논의가 활발히 진행
- ISWGNA는 각국의 2008 SNA 이행정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이정표(Milestones), 단계별 자료집합(Data Set), 질의서(Questionnaire) 등을 2008 SNA에 맞게 수정
- 국민계정 작업반, World Bank, Eurostat, OECD, IMF, UN통계처, 지역위원회 등은 2008 SNA의 원활한 이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핸드북 발간, 기술지원 및 교육 프로그램 마련 등을 추진

□ 주요 이슈

- 2008 SNA의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국민계정 작업반의 전반적인 활동에 대해 통계위원회의 지지 또는 지침 제시 필요

□ 검토 의견

<총괄 평가>

- (통계청) 2008 SNA 이행 프로그램 추진, 연구의제의 재평가, ISWGNA와 AEG의 권한과 책임범위 명확화 등 보고서의 내용에 전반적으로 동의하며, 우리 청도 ISWGNA의 2008 SNA 이행을 위한 노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겠음
- (한국은행) 2008 SNA의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그동안 국민계정 작업반과 전문가 그룹이 보여준 노력을 매우 높이 평가함
 - 또한 국민계정 관련 주요 이슈에 대한 IMF, OECD, World Bank, Eurostat, UN통계처와 지역 위원회, FSB, IAG 등 국제기구들의 활동과 공조도 대단히 인상적임

<보고서 논점 (a): 2008 SNA 발간 및 번역과정 관련>

- (통계청) 2008 SNA 발간 및 배포를 환영하고, 그 과정을 주도한 ISWGNA의 노력에도 치하를 보내며 2008 SNA의 5개 국어 번역은 각국이 2008 SNA로 이행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하며, 애초의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되기를 바램
- (한국은행) 한국은행은 2008 SNA 국어 번역본을 2010년 2월 발간

<보고서 논점 (b): 제안된 연구의제 관련>

- (통계청) 지속가능 성장전략 수립의 불가피성, 삶의 질에 대한 관심 고조 및 금융부문의 혁신 등을 감안할 때, 배출허용한도 및 허가권의 처리방법 개선, 사회발전 측정지표의 개발 및 FISIM 처리방법의 명확화 등 제안된 연구의제들은 매우 시의적절한 것으로 생각함
 - 다만, 단계별로 연구 결과물을 인터넷에 게시하고, 각국의 전문가 및 관계자들의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각국의 다양한 의견 및 아이디어를 수렴하고, 또한 각국의 상이한 여건도 고려함으로써 전세계적 대표성도 확보할 수 있는 장치도 함께 마련되었으면 함

<보고서 논점 (c): ISWGNA 및 AEG의 권한과 책임범위 관련>

- (통계청) ISWGNA와 AEG의 역할과 업무범위 관련하여 보고서에서 제안된 내용에 전반적으로 동의하나,

- 전문가자문그룹(AEG)과 특수전문가그룹(TEG)은 그 구성이나 역할 측면에서 (약간의 언급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차이가 있는지 다소간 불분명한 것 같으며, 따라서 양자 사이의 관계를 좀더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음

<보고서 논점 (d): 필수 속보성지표 설정작업의 2008 SNA 이행 프로그램 통합 관련>

- (통계청) 보고서에서도 지적하고 있듯이, 속보성지표 생산·보급 및 그 조기 공표는 2008 SNA의 이행에 기여할 수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속보성지표의 데이터 템플릿 개발사업을 2008 SNA 이행 프로그램의 한 부분으로 통합하려는 노력은 매우 바람직한 시도라고 생각함
- 특히, 속보성지표의 데이터 템플릿 개발 관련 기존의 연구 성과 및 각국 자료의 입수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구체적 통합방안을 조기에 마련·제시할 수 있기를 희망함
- (한국은행) 최근 논의되고 있는 개별 이슈들이 2008 SNA에 부합하거나 통합되어야 한다는 점에 전적으로 동감하며, 이를 위해 국민계정 작업반과 전문가 그룹이 앞으로 더욱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주기를 기대함

<보고서 논점 (e): 2008 SNA 이행의 범위 및 충실성 평가 관련>

- (통계청) 범위 평가척도(scope measure) 중 자료집합의 범위를 분기 국민계정의 작성을 포함하도록 조정한 것은 시의성 확보라는 현실적 요구를 반영하기 위한 노력으로 매우 시의적절한 조치라고 생각함
- 또한 충실성 평가 질의서(compliance questionnaire)를 2008 SNA 개정 에 맞추어 조정함으로써 각국이 자국의 2008 SNA 이행 수준/품질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한 것도 필수적인 조치로서 적극 환영함
- (한국은행) 본 보고서의 토의 주제들과 관련하여 국민계정 작업반의 활동 결과를 전적으로 지지함
- 특히 국민계정 작업반이 마련한 3가지 2008 SNA 이행평가 기준은 각국이 2008 SNA 로드맵을 수립하거나 이행중인 국가들이 자체 평가를 실시할 때도 매우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다만 각 국가들의 통계여건이 상이한 점을 감안하여 동 기준들이 유연하게 적용되기 바라며 평가 결과만을 가지고 국가별 이행정도를 직접 비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

<보고서 논점 (f): 2008 SNA 및 관련 기초통계 이행 프로그램 관련>

- (통계청) 각국의 통계적·제도적 역량 개발이라는 이행 프로그램의 목표, 각국의 상이한 이행수준을 고려한 이행전략의 원칙, 그 원칙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요소 및 단계 설정 등 ISWGNA의 2008 SNA 이행 프로그램 전반에 대하여 동의하며,
 - 각국의 통계역량 제고 및 2008 SNA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ISWGNA의 다양한 활동(각종 핸드북·지침서 발간, 교육·훈련프로그램 제공 및 세미나 개최 등)에도 치하를 보냄
 - 특히, 세계은행에서 계획하고 있는 온라인 교육과정(*e-learning course on national accounts*)은 시간과 언어상의 제약을 일정부분 받을 수밖에 없는 각국의 추계 담당자들에게 매우 유익할 것으로 확신하며, 나아가 다른 교육·훈련프로그램의 온라인 제공도 확대되길 희망함
 - 다만, 시의성이 매우 강조되는 현실을 반영하여 분기 국민계정의 작성을 필수자료집합에 포함시킨 것과 보조를 맞추어 발간된 지 꽤 많은 시간이 지난 분기 국민계정 편람의 개정에도 관심을 기울였으면 좋겠음
- * IMF의 분기 추계편람: 2001년 발간, Eurostat 분기 추계편람: 1999년 발간
- (한국은행) 한국은행은 2014년 이행을 목표로 2010년 12월 2008 SNA 이행 로드맵을 수립함
 - 또한 한국은행은 2008 SNA 이행과 관련된 경험을 공유하고 주요 이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기 위하여 2011년 중 국제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에 있으며, 국제기구와 회원국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함

<보고서 논점 (g): 1993 SNA 이행의 장애요인 파악을 위한 의장단후원 그룹(FOCG) 설치 관련>

- (통계청) 의장단후원그룹(FOCG)의 활동은 1993 이행의 장애요인을 분석하고, 그 해결방안을 찾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되는바, 동 그룹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길 바라며, 우리 청도 필요 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임

Comments on the Report of ISWGNA

Korea greatly appreciates the efforts and contributions of the Intersecretariat Working Group on National Accounts (ISWGNA) and the Advisory Expert Group (AEG) toward the implementation of the 2008 SNA. In addition, the activities and cooperation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s, including the IMF, OECD, World Bank, Eurostat, UNSD, Regional Commissions, the FSB and IAG, in regard to national accounts-related issues have been very impressive.

Korea generally supports the efforts that ISWGNA has made to facilitate the implementation of the 2008 SNA, and agree to the proposals contained in the report by ISWGNA regarding the implementation strategy, research agenda and the mandates and governance of ISWGNA and AEG. And we are eager in joining other nations, and international and regional organizations to assist in the implementation and progress.

We welcome the publication and dissemination of the 2008 SNA and appreciate the endeavors of the ISWGNA to make it available. The translation of the 2008 SNA into other official languages will accelerate the implementation, and we also hope that this project will proceed smoothly.

Korea fully agrees with the view that all of the recent debates concerning critical issues need to be consistent with the 2008 SNA and be integrated into the 2008 SNA. For this reason, we anticipate that ISWGNA and AEG will continue to play a highly important role in the implementation process of the 2008 SNA in the future. We also hope that concrete programs concerning its integration will be provided soon, following the studies on the development of a data template of high-frequency indicators and the reviews of practices in countries.

Considering the growing importance of timeliness, we would like to recommend the revision of the quarterly national accounts manuals which remain relatively unchanged following their publication, keeping pace with the inclusion of quarterly accounts in the Minimum Required Data Set.

* IMF(2001), Eurostat(1999)

<General Comments>

- **(Statistics Korea)** We generally support the efforts ISWGNA has made to facilitate the implementation of the 2008 SNA, and agree to the proposals contained in the report by ISWGNA regarding the implementation strategy, research agenda and the mandates and governance of ISWGNA and AEG.
 - We are eager in joining other nations, international and regional organizations to assist in the implementation progress.
- **(The Bank of Korea)** The Bank of Korea greatly appreciates the efforts and contributions of the Intersecretariat Working Group on National Accounts(ISWGNA) and the Advisory Expert Group(AEG) toward the implementation of the 2008 SNA.
 - In addition, the activities and cooperation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s, including the IMF, OECD, World Bank, Eurostat, UNSD, Regional Commission, FSB and IAG, in regard to national accounts related issues have been very impressive.

<Discussion Point (a): Publication and Translation of 2008 SNA>

- **(Statistics Korea)** We welcome the publication and dissemination of the 2008 SNA and appreciate the endeavors of ISWGNA to make it available.
 - The translation of the 2008 SNA into other official languages will contribute to accelerating the implementation, and we hope that this project will proceed smoothly.
- **(The Bank of Korea)** The Bank of Korea published a Korean version of the 2008 SNA in February 2010.

<Discussion Point (b): Proposed Research Agenda>

- **(Statistics Korea)** In consideration of the necessity for establishing the strategy for sustainable growth, rising interest in quality of life

and reformation of the financial sector, we recommend that additional issues, such as emission permits, treatment of FISIM and measuring quality of life, be included in the research agenda.

- However, there is a need for the results of the research to be released on-line during each step of the process so as to encourage the participation of specialists and professionals world wide.
- We believe that the research should be open to various, and even conflicting ideas and opinions from all around the world to guarantee a global representation.

<Discussion Point (c): The Mandate and Governance of ISWGNA and AEG>

- **(Statistics Korea)** We generally agree to the proposals by ISWGNA on the mandate and governance of ISWGNA and AEG.
 - However, in terms of composition and roles, the distinction between AEG and TEG is not always clear, and we feel further clarification is required.

<Discussion Point (d) : The Integration of High-Frequency Data and Indicators into the Implementation Program of 2008 SNA>

- **(Statistics Korea)** Since production and early release of high frequency data are expected to contribute to the implementation of the 2008 SNA, we recommend that the development of a data template of high-frequency indicators be included as part of the implementation program.
 - We also hope that concrete programs concerning the integration will be provided in the new future following the studies concerning this matter and the reviews over practices from countries all over the world.
- **(The Bank of Korea)** The Bank of Korea fully agrees with the opinion that all the recent debates concerning critical issues need to be consistent with the 2008 SNA and ought to be integrated

into the 2008 SNA. For this reason, we anticipate that ISWGNA and AEG will continue to play a highly important role in the implementation process of the 2008 SNA in the future.

<Discussion Point (e) : The Assessments of the Scope and Compliance of the Implementation of 2008 SNA >

- **(Statistics Korea)** We deem it a timely action to include quarterly accounts in the boundaries of Data Sets, considering the growing demand for high-frequency data.
 - We also welcome the adjustment of the compliance questionnaire to the 2008 SNA, for it can provide some criteria for countries to assess their own levels and qualities of the implementation.
- **(The Bank of Korea)** Regarding the discussion points in the report, the Bank of Korea fully supports the result of the activities of ISWGNA.
 - In particular, the information system for assessing the progress of the implementation of the 2008 SNA is expected to be useful both to those countries that are trying to establish a road map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2008 SNA and to those that want to undertake a self-assessment during the implementation.
 - However, we do hope that the assessment criteria can be applied to individual countries more flexibly, taking the statistical environment of each country into consideration. We believe that comparing a countries' performance directly on the basis of the assessment results alone might be counterproductive.

<Discussion Point (f) : The Implementation Program for the 2008 SNA and Supporting Statistics>

- **(Statistics Korea)** We generally agree to the overall implementation program designed by ISWGNA
 - and give support to various activities including publication of handbooks, development of training programs and materials, and

organizations of seminars.

- We especially hope that the e-learning course developed by the World Bank will provide a useful tool for staffs responsible for the matter as they face time and language restrictions.
 - However, in reference to the growing importance of timeliness, we recommend the revision of the quarterly national accounts manuals which remain relatively unchanged following their publication, keeping pace with the inclusion of quarterly accounts in the Minimum Required Data Set
- **(The Bank of Korea)** The Bank of Korea established a road map toward the 2008 SNA in December 2010 with the goal of the implementation in 2014.
- In addition, the Bank of Korea is planning to hold an International Seminar on the New Framework for Economic Statistics this year in order to share in the experiences and the opinions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advanced countries as to the implementation of the 2008 SNA. We look forward to your active participation and warm assistance.
 - The Bank of Korea fully agrees with the opinion that all the recent debates concerning critical issues need to be consistent with the 2008 SNA and should be integrated into the 2008 SNA. For this reason, we anticipate that ISWGNA and AEG will continue to play a highly important role in the implementation process of the 2008 SNA in the future.

<Discussion Point (g) : The Establishment of the Friends of the Chair Group(FOCG)>

- **(Statistics Korea)** We hope that the activities of FOCG will produce fruitful results regarding the elimination of obstacles for implementing the 1993 SNA, and we will provide our support to the efforts made by FOCG

7 : 환경경제계정 전문가 위원회 보고서

(Report of the Committee of Experts on Environmental-Economic Accounting)

주요 논점

- ◇ SEEA* 개정안 Volume1 이슈에 대한 권고안
- ◇ 환경경제계정에 대한 전문가 위원회의 개정 작업

* System of Environmental-Economic Accounting

□ 개 요

- 제41차 유엔통계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사무총장은 “환경경제계정에 대한 전문가 위원회 보고서”를 제출
 - SEEA 개정을 중심으로
- 2010년 제41차 유엔통계위원회 활동
 - 전문가 위원회의 권한·관리범위의 승인 및 SEEA 개정이 전문가 위원회의 최우선순위 업무임을 재확인
 - 물 통계에 대한 국제권고안 파트1 채택, 파트2 지지 및 권고안 번역 독려

□ SEEA 개정 작업

- 신탁기금 설립, 에디터 임명·편집위원회 구성(2010.5) 등 개정작업 진행
- Volume1
 - 21개 이슈*로 형성, 최종 권고안은 2011년 가을 글로벌 컨설팅이션 완료 후 국제기준채택을 위해 제43차 유엔통계위원회(2012년)에 보고 예정
 - * 재생가능에너지, 배출허가권, 자산분류 등 21개 이슈
- Volume2·3
 - 전문가 위원회 서브그룹에서 로드맵, 범위 및 내용 등 준비 중
 - 제43차 유엔통계위원회(2012년)에 보고 예정

□ SEEA-Energy 작업 과정

- SEEA-Energy는 SEEA의 하부시스템으로 독일통계청의 금융지원으로 시작, 2011년 1사분기 전문가 그룹 미팅에서 논의 예정
- 에너지통계에 대한 국제권고사항(IRES) 최대한 고려하여 준비, 제43차 유엔통계위원회에 보고 예정

□ SEEA 홍보

- 전문가 위원회는 SEEA 및 그 하부시스템의 이행을 위해 SEEA 홍보의 중요성을 강조
- SEEA의 이점을 각인시키고 녹색경제, 녹색성장프로젝트와 같은 정책 프레임워크의 평가·모니터링과 연계하여 인식할 필요 강조

□ 협조

- 환경계정에 관한 런던그룹
 - 작년 10월 산티아고회의에서 Volume1, Volume2에 관한 논의
- 에너지통계에 관한 오슬로그룹
 - IRES 초안 검토 및 금번 통계위원회 상정 예정
- OECD
 - 각료회의에서 녹색성장전략 중간보고서 지지, 2011년 각료회의에서 녹색성장전략 완료 예정
 - 상품흐름과 자원생산성에 대한 작업, 환경통계 및 환경계정 분야의 개발에 대한 설문 리뷰
- Eurostat
 - 프랑스통계청과 스폰서그룹을 형성하여 환경적 웰빙과 지속가능성을 측정하는 지표를 작성하기 위한 권고안 개발 중
- 환경통계에 관한 작업반
 - 서로 다른 국제기구에 의한 데이터 수집의 중복을 막기 위한 조정 등

- 국민계정의 배출허가권에 대한 OECD/Eurostat 태스크포스
 - 개정 SEEA 이슈 중 하나로서, 이와 관련 두개의 대안 검토 중
- 지속가능발전 측정에 관한 UNECE/Eurostat/OECD 태스크포스
 - 삶의 질에 관한 지표를 포함한 현재와 미래 복지의 중요성을 강조한 보고서 초안 작성, 동 보고서 2011년 완료 예정
- 환경지표에 대한 UNECE 태스크포스
 - 동유럽·중앙아시아 국가의 환경통계자료의 비교성 증진
 - 동유럽·중앙아시아 국가 관련 환경지표 리뷰(2009~2010)
- UNECE의 기후변화통계 활동
 - CES 회원국에 통계청의 기후변화 관련 작업 관여정도 등 조사
 - 올해 6월 조사결과 보고, CES 비회원국에도 조사 예정(2011년)

□ 논의 사항

- SEEA 개정안 Volume1 이슈에 대한 권고안
- 전문가 위원회의 작업 진행

환경경제계정에 관한 의견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논의 배경

- 리우회의(1992)에서 지속가능발전 이념을 국민계정체계와 연계할 수 있는 틀의 개발을 요구
 -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여 유엔통계국 주도로 개발된 환경경제계정체계가 SEEA 1993과 SEEA 2003임
- 유엔통계위원회는 SEEA(System of Environmental-Economic Accounting)를 국제통계표준(international statistical standard) 격상시키기 위한 작업 추진
 - 이 작업을 실무적으로 총괄하기 위해 UNCEEA* 신설('05.12)
 - * UN Committee of Experts on Environmental-Economic Accounting

□ 최근 국제적 동향

- SEEA 개정 및 하위계정(SEEA-Water, SEEA-Energy 등) 개발 작업 진행
- SEEA Volume I 개정과 관련된 21개의 주요 이슈에 대한 global consultation 완료

□ 주요 이슈

- SEEA Volume II 및 Volume III의 세부 구조와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 진행 예정

□ 검토 의견

- 유럽선진국을 제외한 많은 나라에서 SEEA의 필요성과 유용성에 대한 국내 공감대 형성이 미약
 - 따라서 특정 정책이슈(기후변화, 물문제 등)와 관련된 SEEA의 유용성을 설명하기 위한 glossy publication은 매우 유용(문서 p. 11)

- OECD의 녹색성장지표 개발 작업이나 유럽통계청의 삶의질 관련 지표 개발 작업(예: "GDP and beyond")과의 관계에 대한 좀더 명확한 설명 필요
 - 계정체계를 이용하는 방법("accounting approach"; SEEA)과 지표집합을 이용하는 방법("indicators approach"; 녹색성장지표 등)은 각각 장점과 단점을 지니고 있음
 - 한국의 경우, SEEA 개발·편제 작업과 녹색성장지표 개발 작업이 거의 독립적으로 진행(전자는 주로 환경부/한국은행, 후자는 주로 통계청/녹색성장위원회)

Comments on Environmental-Economic Accounting

- The necessity of SEEA in Korea as well as many other countries excluding several developed countries in Europe, is under recognized.
 - Therefore, the glossy publication is highly beneficial in demonstrating the usefulness of SEEA related to policies such as climate change or water issues. (See p.11)

- There is a necessity for more detailed explanation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EEA and the development process of green growth indicators by the OECD and the quality of life indicators by Eurostat.
 - There are strengths and weaknesses in the approach using accounting (such as SEEA) and using indicators (as green growth indicators) respectively.
 - In Korea, the organization process for SEEA and the development process for green growth indicators are coordinated independently in most cases. (The former is performed by the Ministry of Environment and Bank of Korea, and the latter by Statistics Korea and the Presidential Committee on Green Growth.)

8 : 에너지 통계에 대한 사무총장 보고서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on energy statistics)

주요 논점

- ◇ 에너지 통계를 위한 국제 권고안의 검토와 수용
- ◇ 에너지 통계를 위한 국제 권고안 이행프로그램 주요 요소 승인

□ 개 요

- 37차 세션에서 통계위원회는 에너지 정의에 대한 조화 필요성 및 통계 작성 방법론, 그리고 에너지 통계를 위한 국제 기준의 발전 필요성 강조

□ 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수행된 활동들

- 에너지통계에 관한 국제적 권고사항(IRES) 검토
 - 전문가 검토를 위한 최종 권고안은 IRES(International Recommendations for Energy Statistics)라는 제목으로 위원회에 제출
 - IRES 개발은 다양한 국가의 자문을 거쳐 이루어짐
 - IRES 준비과정에서 주요 부분인 에너지통계 생산의 기준분류 개발은 국제경제와 사회분류에 관한 전문가그룹의 자문을 받아 최종안에 반영
 - <에너지통계연감> 및 소비연료, 전기생산, 화력발전소 데이터를 다루는 <에너지균형과 전기분석표>를 출판

□ 에너지 통계에 관한 권고안 정리

- IRES는 국제적 경제 분류 및 데이터 종합 프레임워크의 연장선상에서 에너지 생산에 대해 국제적으로 동의된 정의셋 제공
- 공식통계의 기본원리에 기초한 공식 에너지 통계에 대한 장기적 개발에 대한 견고한 기반 제공

- InterEnerStat에 의한 정의 반영 및 다른 통계도메인으로의 통합을 촉진하고 에너지통계에 대한 배포를 제공하는 표준 국제 에너지 분류 (SIEC) 발표
- 품질지수 사용 및 메타데이터에 관한 보고를 포함하는 국가에너지 데이터품질 프레임워크 개발 방법에 대한 권고사항 제공
- 기밀성 표시 방법 등 에너지통계의 배포에 관한 권고사항 및 온실가스 계산을 위한 에너지통계 등 참고자료 및 관련지수 제공

□ 향후 업무

- 에너지통계 컴파일러 매뉴얼(ESCM)준비
 - 2013년 완성예정인 ESCM은 다양한 환경에 적용 가능한 사례가 있는 실용적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정기적으로 업데이트, 관련 자료는 지식 기반 플랫폼에 게시
- 기술지원
 - IRES 이행국 지원을 위해 지역위원회 및 기타기관들과 기술지원 프로그램 개발을 계획함. 주로 실용적 문제를 다루는 지역워크숍으로 통계 생산의 전 과정을 다룰 것으로 기대
 - 이러한 노력은 에너지 통계에 관한 지역적, 국제적, 초국가적 기관과 더불어 이루어지며 워크숍을 위한 표준교육모듈이 준비될 예정
- UNSD에 의한 데이터수집
 - 에너지 통계에 관한 UNSD의 연별검토는 IRES에 포함되는 권고사항을 반영하도록 되어 있으며 응답부담을 줄이기 위해 IEA 및 기타 관련기관들과 공동 질문사항 개발을 추진 중

□ 논의 사항

- 에너지 통계를 위한 국제 권고안의 검토와 수용
- 에너지 통계 컴파일러 매뉴얼 준비와 추가교육자료, 다른 국가를 위한 기술지원 등 이행프로그램의 주요 요소 승인

에너지통계에 대한 보고서에 관한 의견

(통계청 통계기준팀, 에너지경제연구원)

□ 논의 배경

- 37차 유엔통계위원회 회의 결정에 따라 유엔통계처, 에너지통계 오슬로 그룹2), 에너지통계협력 사무국간 실무그룹3) 및 관련기관들이 에너지통계 국제 권고사항(IRES)4) 개발에 합의 (2005년)
 - 국제표준에너지분류(안)는 개발 추진 중인 에너지통계 국제권고사항의 일부분(제3장)
 - * Chapter 3. Standard International Energy Classification(SIEC)
- 유엔통계처에서 '11년 2월에 개최하는 유엔통계위원회에서 동 분류(안) 확정을 목표로 각 국가 통계청에 동 분류(안)에 대한 검토 요청
 - 국내 관련기관*을 대상으로 동 분류(안)에 대한 의견 수렴 실시 ('10.07.14~'10.08.16) 및 지지 의견 회신('10.08.24)
 - * 지식경제부,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관리공단

□ 검토 의견

<통계청>

- 국가간 비교 가능한 에너지통계를 생산하기 위해서 국제적으로 조율된 프레임워크 개발의 중요성에 동감
 - SIEC가 국제적으로 합의된 에너지상품 정의, 표준 코딩방식, 분류 구조의 프레임워크 그리고 중앙생산물분류(CPC) 및 HS와의 연계를 제공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
- IRES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하여 유엔에서 향후 계획하고 있는 기술지원 활동 및 지역별 워크숍 적극 지지

2) 에너지통계 프로그램 검토 내용을 유엔통계위원회에 제출한 노르웨이 통계청 및 관련 권고안을 제시한 에너지통계 특별전문가 그룹(Ad-Hoc Expert Group on Energy Statistics)을 지칭

3) Inter-secretariat Working Group on Energy Statistics: 에너지통계를 작성 또는 수집하는 24개의 지역 및 국제기구로 구성

4) International Recommendations for Energy Statistics

<에너지경제연구원>

- 에너지통계의 투명한 작성을 위해 국제기준의 정립은 매우 바람직한 활동으로 적극 동의
 - 에너지경제연구원은 IRES에 포함되어 있는 SIEC분류와 HS분류의 대비표에 관한 의견을 이미 제시한 바 있음(2010. 8)
- 에너지통계 컴파일러 매뉴얼(ESCM)을 포함한 각종 프로그램 승인
 - 에너지통계 컴파일러 매뉴얼(ESCM) 마련 동의
 - 에너지밸런스의 컴파일러는 매우 유용한 수단이 될 것으로 사료
 - UNSD의 에너지통계 수집활동 지원

Comments on energy statistics

<Statistics Korea>

- Statistics Korea supports the need for the development of SIEC which is to provide a common framework for international comparability of energy statistics.
- We anticipate that SIEC will make significant contributions in providing internationally approved energy product definitions, a standardized coding scheme and links with other product classifications such as the Central Product Classification(CPC) and the 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HS).
- For the successful implementation of IRES, Statistics Korea fully endorses various proposed programs such as technical assistance programs and regional workshops.

<Korea Energy Economics Institute>

- We strongly agree with the idea of developing international standards, which would certainly be a highly beneficial activity resulting in the production of accurate energy statistics.
- The Korea Energy Economics Institute provided its assesment of the SIEC and HS that are included in IRES. (August, 2010)
- Specifically, classifications with coking coal, other bituminous coal, sub bituminous coal are not very clear.
- Energy Statistics Compilers Manual and other programs
 - We agree with the preparation of the ESCM.
 - We believe that the compiler of energy balances will be highly useful.
 - We will actively support the UNSD's data collection activities for energy statistics.

9 : 에너지통계에 관한 오슬로그룹 보고서

(Report of the Oslo Group on Energy Statistics)

주요 논점

- ◇ 오슬로 그룹의 최근 활동(2009년, 2010년)
- ◇ 오슬로 그룹의 향후 활동

□ 개 요

- 오슬로그룹은 에너지 통계의 방법론적 문제들을 표출하고 국제기준 향상을 위해 통계위원회에 의해 2005년 창설
- 오슬로그룹의 의무사항 중 하나인 UN핸드북과 매뉴얼 검토를 위해 에너지통계에 관한 에너지통계에 관한 작업반(InterEnerStat)이 에너지 통계분야에서 활동적인 기구들 간의 제도적 업무 촉진을 목적으로 창설

□ 2009년과 2010년 오슬로그룹의 활동

- 캐나다통계청의 주최로 2009년 2월 제4차 회의가 열려 에너지통계에 관한 국제적 권고안(IRES)의 기술(writing)과정에 대해 논의했으며 모든 회원국이 새로운 매뉴얼 작성에 대한 기여에 자발적으로 참여
- 아일랜드에서 2010년 2월 제5차 회의가 열려 IRES의 초안 검토
 - 이는 다른 분야에서의 국제적 권고안의 포맷을 기초로 회원국의 대표들이 작성
- 오슬로그룹의 2009-2010년 활동은 주로 에너지통계에 관한 UN 매뉴얼의 재검토였으며 주요 업무였던 IRES 초안은 2010년 여름 국제자문을 위해 보내졌으며 각 국은 응답을 통해 적극적으로 지원

□ 타그룹들과의 조정 작업

- 자산과 준비금 문제를 주로 다루는 런던그룹과는 업무의 중복과 오해 해소를 위해 공동작업 진행

- UN환경경제계정 전문가위원회(UNCEEA) · InterEnerStat 회의 참석
 - InterEnerStat은 오슬로그룹과 함께 IRES의 주요한 내용 제공자로서 국제기구 간 에너지에 관한 공동 정의, 단위, 전환계수 등 작업
- UNECE 주최 자원분류에 관한 전문가그룹의 회의에 참석

□ 오슬로그룹의 향후 활동

- 에너지통계 컴파일러매뉴얼(ESCM) 준비
 - 2011년 오슬로그룹의 주요 활동은 2013년 최종확정예정인 에너지통계 컴파일러매뉴얼(ESCM)의 초안과 연관되어 이루어질 예정
 - ESCM의 초점은 에너지통계의 편집과 보고이며 제도적 환경으로부터 실행된 통계매니저와 데이터품질 평가 등에 관한 다양한 자료로부터 데이터수집과 관련된 기술정보를 포함
- 우수사례
 - 우수사례 수집은 그룹의 의무사항으로써 제도적 구성, 데이터편집, 에너지지수 개발, 품질보증프로그램 문제 등을 세부적으로 다룸
 - ESCM은 기술적 세부사항 및 데이터편집과정의 전 단계에 대한 우수 사례 및 데이터자료에 관한 지침을 제공하고 경제센서스, 기업 및 가계 조사에서의 에너지통계 필수사항 반영방법을 논의할 예정
 - 다양한 국가의 사례를 통한 조사주기가 포함되는 세션이 예정되어 있으며 행정데이터 자료의 우수 이용사례가 제공될 예정

□ 별첨- 에너지통계에 관한 오슬로그룹의 회원과 의무사항

- 오스트리아, 미국, 프랑스, 중국 등의 회원국과 Eurostat, IMF, IAEA, UNSD 등의 기구가 참여
- 에너지통계 관한 문제를 표출하고 국제기준 및 방법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그룹
- 주요 활동은 사용자수요 및 범위의 정의, 국내외 우수 사례수집, 격차 해소방법개발, 다른 통계시스템과의 통합촉진을 위해 국제적 기준과의 연계 개발 등

10 : 경제통계의 통합에 관한 FoC 보고서

(Report of the Friends of the Chair on Integrated Economic Statistics)

주요 논점

- ◇ 기초경제 및 거시경제통계의 일관성 제고를 위해 집중형 및 분산형 통계시스템을 통해 생산되는 경제통계의 통합 가이드라인을 금번 제42차 유엔통계위원회에 제시하고 채택하고자 함
- ◇ 경제통계 통합 가이드라인(안) 및 적용가능성에 대한 견해와 실제 국가별 경험 등 논의
- ◇ 각국 검토의견을 참조하여 가이드라인 확정에 필요한 우선순위와 주요 개선방안을 제시

□ 경제통계 통합에 관한 FoC보고서 및 가이드라인 채택

- 2008년 제39차 UN통계위원회 요청에 의해 마련된 '경제통계 통합에 관한 가이드라인(안)'을 금번 42차 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채택을 요청

※ Friends of Chair on integrated economic statistics

- FoC는 금번 제42차 유엔통계위에 보고서 3종을 제출함

1) 경제통계 통합에 관한 FoC보고서 배경, 2) 경제통계 통합에 관한 가이드라인, 3) 가이드라인에 대한 각국 검토의견 모음

□ 경제통계 통합에 관한 FoC 보고서 배경

- 경제통계의 통합목적은 글로벌 경제의 상호연계하에서 국내외 경제 정책 수립에 있어 통합된 경제통계를 제공하기 위함

- FoC는 제37차 유엔통계위('06년)에서 발족하여 경제통계 통합 표준에 대한 컨셉노트 준비를 요청받고 제39차 UN통계위('08년)에 보고서를 제출한 바 있음

- FoC 보고서 결론

- 경제통계의 통합은 통계조정과 관련되고, 조정은 주요경제통계, 거시경제계정, 장·단기 경제통계, 국가·국제경제통계를 포괄
- 개념적, 통계적 생산 및 제도적 이슈도 포함하며 인적자원 및 IT 이슈 또한 고려함
- 경제통계통합은 자료의 일치성 및 일관성을 위해 사용자 요구에 의해 주도됨
- 통합경제통계에 대한 단독의 세부이행 접근법을 보급하는 것은 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음(국가통계시스템이 상이)
- 국가적·국제적 수준에서의 제도적 마련이 통합경제통계의 관리를 위해 중요하며 유사한 개혁프로그램의 일부가 되어야 함

○ 제39차 UN통계위원회 채택사항

- 경제통계의 조정체재(體裁)로서 SNA의 역할을 재확인하며 기초경제통계 및 거시경제통계의 품질향상을 통해 경제통계의 일관성 증진이 중요함을 인식함
- 통합접근을 도입중인 국가를 지원하기 위해 실례관련 사례와 실질적인 관련 자료를 제공할 필요성에 대해 합의함
- 실질적 내용의 가이드라인을 포함한 프레임워크 개발 필요성에 대해서도 합의함

□ 경제통계 통합에 관한 가이드라인(안) 마련 과정

- 동 권고사항에 대한 대응으로 '09년에 2차 FoC를 형성하고 광범위하고 실질적인 가이드라인 개발을 주도
- 동 그룹은 미국 경제분석국(BEA)이 의장(Steve Landefeld)을 맡고 국가기관 및 국제기관을 대표하는 활동 회원(11)으로 구성
 - ※ 캐나다통계청, 멕시코 통계청, 네덜란드 통계청, 뉴질랜드 통계청, 남아공 통계청, IMF, 유럽중앙은행(가이드라인 편집담당), Eurostat, OECD, UNECE, UNSD
- 본 가이드라인(안)은 '09.12월 제2차 FoC 그룹회의(워싱턴 D.C)를 거쳐 '10.12.2. Draft에 대한 의견을 각국으로부터 수렴하였고 '10.11월 유럽통계회의에 초청받아 가이드라인에 대해 보고함

□ 가이드라인(안) 요약

- 본 가이드라인은 1차그룹의 결론을 토대로 2008 SNA, 국제수지 편람, 제6차 BPM 등 국제적으로 승인된 기준에 근거하여 작성됨
- 동 가이드라인은 경제통계 자료의 일치성 및 일관성을 증진하기 위한 원칙과 세부사례를 기술함으로써 정책에 유용한 데이터와 국제표준 매뉴얼을 개발하는 것이며, 특히 일치성 및 일관성 달성을 위한 사용자 필요성(Needs)에 주안점을 둠
- 또한 단가지표에서 국가적·국제적 거시경제지표를 아우르는 경제통계 전반에서의 일치성·일관성에 초점을 둠
- 관련 개념, 생산 및 제도적 이슈 전반이 해결되어야 하며 동 이슈는 일치성 정의, 질문지, 분류, 표본틀 사용에서부터 국민계정에서의 일관성 개념 및 balancing 기법의 사용까지를 포괄하고 있음
- 가이드라인은 집중형의 기관에서 분산형의 통계기관 등 전 범위를 포괄하며 경제통계의 조정을 위한 실질적 조언뿐만 아니라 일반적 지도 지침도 제시함
- 권고사항은 국가별로 매우 다양하며 집중형 국가는 bottom-up방식(사업 계획, 정의, 조사 등의 합동실시)을 통해 일관성 유지가 유리한 입장에 있으나 반면, 분산형 국가는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한데 top-down방식의 조정기법을 통해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음
- 정확성·신뢰성 있는 경제통계 개발을 위해서는 포괄적이고 일관성 있는 원시자료(source data)가 필수적이나 현실적으로 이는 어려움
 - 원시자료는 국민경제계정에서 직접 생산할 수 있지만 대부분 자료는 조세·관세자료, 재무 자료 등으로부터 산출가능
 - 가이드라인은 후자형태의 자료가 통합경제시스템에 조화되고 조정되는 방법에 대해 주로 기술

□ 논의 사항

- 경제통계 통합 가이드라인(안) 및 실제 국가별 경험
- 가이드라인 확정에 필요한 우선순위 및 주요 개선방안

경제통계의 통합에 관한 FoC 보고서에 관한 의견

(한국은행 국민소득총괄팀)

□ 논의 배경

- 국내외 경제여건이 급변함에 따라 정부, 가계 및 기업 등 경제주체들이 정확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목적으로 작성되고 있는 경제통계들간 일관성 및 연관성을 제고할 필요성 증대
- FoC(the Friends of the Chair Group on Integrated Economic Statistics)가 2006년에 이어 2009년에 두 번째로 설립되어 통합경제통계에 대한 지침 초안(Draft Guidelines on Integrated Economic Statistics)을 마련

□ 검토의견

- 경제통계 통합의 필요성 및 효익에 대해 깊이 공감하고 있으며 FoC의 통합경제통계에 대한 보고서에 대체로 동의함
- 특히 경제이론, 개념 및 분류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SNA와 BPM에 기초한 국민계정이 통합경제통계의 중심 틀이 되어야 한다는 원칙에 전폭적으로 찬성함
- 분권형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한국의 경우 경제통계간 일관성 유지를 위해 기본적으로 top-down 방식의 조정 과정을 거치고 있으며, 국가통계기관인 통계청을 중심으로 기관간 협의 강화, 국세자료의 공동이용 등을 통해 경제통계간 일관성 및 연관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Comments on the Report of the FoC on Integrated Economic Statistics

- Korea fully recognizes the necessity and benefits of integrated economic statistics, and generally agrees with the Report of the Friends of the Chair Group on integrated economic statistics.
- Especially, we fully support the principle that national accounts which are based on the System of National Accounts(SNA) and the Balance of Payments Manuals(BPM) ought to provide the central organizing framework for integrated economic statistics in order to ensure consistency in relation to economic theory, definitions and classifications.
- Basically, Korea is following top-down adjustment procedures to achieve consistency under the decentralized system.

In addition, Korea is making every effort to enhance consistency and coherence among economic statistics through inter-agency meetings and data sharing of the tax reports from the National Tax Service in cooperation with Statistics Korea, the national statistics organization in Korea.

11 : 단기경제지표에 대한 사무총장 보고서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on short-term economic indicators)

주요 논점

- ◇ 금융경제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단기경제통계 프로그램 전반에 대한 의견
- ◇ 국가별 단기통계에 대한 접근성을 증진하기 위해 각국에 단일 접근 방식의 국가 중앙데이터허브 구축을 권고
- ◇ 경기종합지수/조기진단에 대한 국제평가에 각국의 참여를 촉진하고 단기경제지표의 작성·활용사례를 유엔통계처에 제출권고 등

□ 목 적

- 금융경제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유엔통계처/Eurostat 주관하에 캐나다 통계청, 네덜란드통계청, 러시아통계청 공동으로 단기경제통계에 관한 국제회의를 3차례 개최
- 상기 국제회의 개최를 통해 단기경제통계(short term economic statistics) 국제실무 프로그램에 관한 통계대응활동의 조정을 도모

□ 배 경

- 글로벌 금융·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UN통계처는 2009년부터 조기경보, 경기순환지수 등 국제회의를 Eurostat와 공동 개최
- 경기 조기에측에 관한 국제회의 개최 ('09.5월, 오타와, 캐나다 통계청)
 - 그 결과, 단기지표 국제템플릿 개발을 지지하면서 고빈도 지수의 이용 가능성과 시의적 유용성 등에 대해 각국의 평가를 요청
 - 또한 조기에측에 관한 용어정의, 경기지표에 관한 핸드북 수정 필요성에 대해서도 논의
- 조기경보 및 경기순환지표에 관한 국제회의('09.12월 네덜란드통계청)

- 단기지표 국제템플릿에 대한 각국의 평가 내용에 대해 논의
 - 경제흐름정보 추적을 위한 조기경보 및 경기순환 지수 기법에 대해 논의
- 분야별 4개 실무그룹 구성(제41차 유엔통계위 부대행사) 및 화상회의
- 조기에측(Rapid Estimates) 실무그룹: Eurostat(총괄), 네덜란드통계청, UNSD
 - 경기순환종합지수 실무그룹 : 네덜란드통계청(총괄), Eurostat
 - 경기조사(Tendency Survey) 실무그룹 : UNSD(총괄), Eurostat, EU, OECD, KOF, ETH Zurich
 - 데이터 템플릿 및 분석지수 실무그룹 : UNSD(총괄), Eurostat, 브라질 통계청, 인도통계청
- 조기경보 및 경기순환지수 국제회의('10.11월 모스크바, 러시아통계청)
- 4개 실무그룹 작업결과에 대해 논의하고 단기경제통계 프로그램에 대한 제42차 유엔통계위원회 보고서(안) 작성
- ※ 3개 국제회의에 총 50개 국가, 15개 국제기구 300여명 참가 (장관급, 정책입안자, 통계청 고위인사 등)
- ※ 'Modern Tools for Business Cycle Analysis 국제회의'('10.10월 룩셈부르크)에서도 '조기에측, 경기조사, 경기순환종합지수, 국가통계청의 역할'에 대해 논의

□ 단기경제통계 프로그램에 관한 제안서 및 실행방안

① 조기에측 **Work** 프로그램

- 실황예보, 잠정예보 등 조기에측은 몇 나라에서 정기적으로 작성되고 많은 국가에서 참고통계로 생산 중에 있으며, 단기 거시경제지수로의 중요성이 점차 인식되고 있음
- 대상은 GDP 뿐만 아니라 소비자물가지수, 산업생산지수, 실업률 등도 포함
- 조기에측은 단기 경제활동 변화상에 대한 공식자료를 처음으로 제공한다는 점에서 중요
- 결과물(Deliverables)

- 용어해설집(Glossary of terms)
 - 조기에측에 대한 이해증진을 위해서는 용어통일이 필요하며 2011년 말 용어집 발간계획
- 조기에측 국가별 사례집(Inventory of country practices)
 - 국제비교성 제고와 모범사례 발굴을 위해 조기에측에 관한 국가별 사례와 방법론에 관한 인벤토리를 핸드북에 포함할 것이며, 2011년에 국가별 조기에측 사례에 대한 각 국 평가 시도예정
- 조기에측 핸드북 마련(Handbook on Rapid Estimates)
 - 조기에측 작성의 모범사례와 기본원칙에 근거한 국제 가이드라인을 핸드북에서 제시
 - 주요내용 : 실용적인 집계방안, 실제사례, 활용이점 등
 - 2011년 말 초안이 작성되고 2012년 완성예정

② 경기순환종합지수(Business Cycle Composite Indicators) 실무그룹

- 그 중요성에 불구하고 경기순환종합지수에 관한 국제표준이 없는 상황
- 특히 개도국의 경우 세계경제 위기상황에 매우 취약한데 그 이유는 농업기반 경제에서 시장경제체제로 구조적 변화를 거치면서 비농업 부문 및 외부시장 의존도가 증가하기 때문
- 대부분 개도국은 아직 단기경제 통계 및 경기순환지수가 미비한 실정으로 국가통계시스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할 필요성 증대
- 결과물(Deliverables)
 - 경기순환종합지수에 대한 국가별 인벤토리 개선
 - 지수작성에 초점을 두어 기존 인벤토리를 개선하고 각국 의견을 수렴하여 질적 개선을 추진(2011년)
 - 경기순환종합지수 핸드북 마련
 - 모범사례와 기본원칙 등 경기순환 지수작성에 관한 표준안을 핸드북에서 제시
 - 국제비교가 가능한 형식으로 지수가 작성되도록 할 것이며 개도국에 지수작성 방법에 관한 지원도 할 계획임

- 또한 이용자 편리성을 고려해 지수작성에 적용된 통계기법 등에 대해서도 안내
- 2011년 말 초안이 작성되고 2012년 완성예정

③ 경기조사(Tendency Survey) 실무그룹

- 샘플선정, 질문지 작성, 조사 진행, 자료처리 및 경기지수에 있어 모범 사례 및 원칙을 제공하기 위해 실무그룹을 구성
- 본 조사는 양적 통계조사에 의해 얻을 수 없는 질적 정보를 제공하기 위함이며 비용대비 효과가 높은 단기경제 정보 수단으로 평가됨
- 현재 OECD 및 EU 경기조사 가이드라인이 있으며 이는 핸드북 개발에 기본이 될 것임. 핸드북은 모든 국가에 적용가능한 국제적으로 승인된 가이드라인 set이 될 것임
- 경기조사 핸드북 (Handbook on Tendency Surveys)
 - 현 OECD 및 EU 경기조사 가이드라인에 기반하되 농업, 에너지 등 경제부문과 개도국 수요도 포괄하는 내용이 될 것임
 - 2011년말 초안이 작성되고 2012년 완성예정

④ 데이터 템플릿(template) 및 분석지수 실무그룹

- 경제금융위기 조기경보와 경기전환점 포착을 위해 현재 미흡한 단기 경제지수 데이터 템플릿 표준을 개발하기 위함
- 이를 위해서는 SDMX와 같은 최신 자료공유·교환 기법이 필요하며 새로운 데이터 생산보다는 기존 단기경제통계 활용을 증진할 것을 권고함
- 국가통계시스템 적용가능성에 대한 2009년도 각국 평가에 근거하여 3 단계별 추진일정을 권고
 - 1단계는 전략적으로 중요하고 널리 이용 가능한 최소한의 단기경제지수로 구성(minimum required)
 - 2단계는 분석적으로 중요한 단기경제지수로 구성(analytically important)
 - 3단계는 주어진 경제구조하에서 국가적으로 중요한 단기지수로 구성(national significance)

- 경제통계에 관한 방법론적 가이드와 국가 사례에 관한 광범위한 인벤토리는 이미 구축되어 있는데, 이는 UNSD 웹사이트의 Knowledgebase on Economic Statistics 개설에 기여하였음
- 결과물(Deliverables)
 - 국제적으로 승인된 데이터 템플릿 및 메타데이터
 - 마련 중인 템플릿은 G20의 PGI(Principal Global Indicators)와 같은 국제적 추세를 고려하여 2011년에 국제적으로 승인된 템플릿으로 최종 결정될 예정
 - 국제적으로 승인된 데이터 템플릿에 대한 통계가이드
 - 단기경제통계에 대한 통계와 분석 도구를 제공하기 위한 본 가이드는 2011년 초안이 마련되고, 2012년 완성예정
 - 경제통계에 대한 새로운 지식과 방법론의 업데이트
 - 국가별 중앙데이터 hub구축에 대한 국가별 사례보고서 작성
 - 현재 5~6개 나라에서 단기경제 통계 데이터 템플릿에 관한 hub를 시험적으로 구축중이며 이에 관한 보고서는 2011년 예정
 - 표준화 촉진 및 품질제고 측면에서 데이터 허브에 대한 접근은 단일 접근(single access point) 방식이 유용할 것임

□ 향후 계획

- UNSD · Eurostat · 캐나다통계청 · 러시아통계청은 전문가그룹(Technical Expert Group)과 협력하여 4개 하위 프로그램별로 ToR을 세부적으로 마련할 것임
- 핸드북과 기타 통계가이드는 기술전문가그룹에 의해 마련될 것이며 2011년에는 자문그룹 회의가 예정되어 있음

□ 논의 사항

- 금융경제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단기경제통계프로그램
- 단일접근 방식의 국가 중앙데이터허브 구축
- 단기경제지표의 작성 및 활용 사례

단기 지표에 대한 보고서에 관한 의견

(통계청 경제통계기획과)

□ 논의 배경

- 경제·금융위기 발생시 조직적인 통계대응이 가능하도록 단기동향 경제통계의 전반적인 프로그램에 대한 국제적인 지침(가이드) 마련이 필요
- 이를 위하여 모든 국가가 협력하여 지표작성에 관하여 논의가 필요

□ 최근 국제적 동향

(1) 통계적 공동대응 모색을 위해 각종 국제세미나 및 회의 개최내용

1) 1차 세미나 논의사항 (캐나다 오타와, 2009. 5.27~29)

- 금융 및 경제적 동요를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GDP 등 거시경제지표의 속보치 작성 및 제공 필요
- 경제동향 속보지표 관련 국제 데이터 템플릿을 지원
- 데이터 템플릿의 타당성과 실현가능성을 속보성 지표(high frequency indicators)의 이용가능성, 주기성, 시의성, 배포성 관점에서 평가하기 위해 국제 공동체가 요구
- 속보치에 대한 용어집 작성과 경기종합지수, 속보치, 심리조사에 대한 핸드북 작성 필요

2) 2차 세미나 논의사항 (네덜란드 슈베닝겐, 2009. 12. 14~16)

- 제안된 국제데이터 템플릿에 대한 국제적인 평가결과를 이용가능성, 시의성, 비교가능성, 배포성의 측면에서 토의
- 조기경보와 경기지표 그리고 특정 주요 분야와 경제발전을 파악할 수 있는 정보를 도출하기 위한 기법에 대해 논의
- 세부 세션에서 과제에 대한 초기평가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각 영역별로 국제적인 작업에 대한 가능성 있는 전략을 제시

3) UN 통계위원회 부가회의(2010.2월)

- 4개 테마*별 작업반(working group) 구성에 합의하고 작업반에서 주제별 work program을 준비

* 속보치, 경기종합지수, 경기조사, 데이터 템플릿과 분석지표

4) Eurostat 주관 학회 개최(2010.9월)

- 학회제목 : 경기사이클 분석의 현대적 기술: 글로벌 경제 위기로부터의 교훈
- 토의주제 : 4개 테마의 실제적 유용성 및 타당성 토의

5) 3차 세미나 논의사항(러시아 모스크바, 2010. 11.17~19)

- 신속한 정보제공을 위해 속보GDP가 중요하나 추정위험 문제가 내포되어 있으므로 다른 주요 경제지표에 대한 정보 보충이 필요
- 데이터 템플릿의 완성은 G20의 Principal Global Indicators(PGI)와 같이 다른 주도적인 지표와 합동으로 진행
- break-out 세션에서 4개 작업반의 작업 결과를 리뷰

(2) 국제세미나에 결정된 테마별 권고사항

1) GDP, 산업생산지수, 물가지수 등 속보치(Rapid Estimates)

- 용어사전(Glossary of terms) 초안 작성 (2011년)
- 각국의 사례를 수집하여 작성해야할 목록작성 (2011년)
- 속보치에 관한 핸드북 작성 (초안: 2011년, 최종: 2012년)

2) 경기종합지수

- 각국의 경기종합지수 작성사례를 수집 정리 (2011년)
- 경기종합지수 핸드북 작성 (초안: 2011년, 최종: 2012년)

3) 경기조사(Tendency Survey)

- 기존 경기조사(Tendency Survey) 가이드라인의 범위를 넓혀 농업, 에너지부문 등을 포함한 핸드북 작성 (초안: 2011년, 최종: 2012년)

4) 데이터 템플릿 및 분석지표(Data template and analytical indicators)

- 국제 공인 데이터 템플릿 구성 (2011년) 및 가이드 작성 (초안 2011년, 최종안 2012년)
- 경제통계에 대한 지식기반 업데이트 (2011~2012년)
- 국가 중심 데이터 허브(national central data hubs)구축에 관한 각 나라의 보고서 수집 및 각국의 현황평가 (2011년)

□ 검토 의견

(1) 경제·재정위기 공동대응을 위한 「단기경제지표 핸드북」 작성·제공

- 각국에서 경제위기를 조기에 파악하기 위하여는 경제상황을 신속·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지표가 필요하므로, 세계 각국의 경험과 사례를 기초로 핸드북을 작성한다면 단기경제지표작성을 계획 중에 있거나 작성중인 국가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됨
- 특히, 개발도상국이 경기관련 지표를 작성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핸드북 작성에는 원칙적으로 동의함
- 다만, 핸드북은 각국의 경제상황이 다른 만큼 단기경제지표작성을 위한 참고용으로 활용되는 것이 바람직

(2) 자발적인 중앙집중식 국가데이터허브 구축

- 한국은 단일 접점의 통계포털 구축의 필요성을 인지하여 2007년부터 KOSIS를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KOSIS는 국가 중심 데이터 허브 구축의 모범사례로 평가되고 있음
- 각국이 단일접점의 국가 중심 데이터 허브를 구축한다면 그 나라 국민들의 통계 접근성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조기 경보를 위한 세계 각국의 통계 모니터링에도 유익할 것으로 판단됨

(3) 단기경기지표의 국제적 평가에 참여하고 작성방법 제출

- 한국은 경기종합지수 국제 핸드북 작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국의 경기종합지수 작성 현황을 이미 제출하였으며 3차례에 걸쳐 개최된 세미나에 참가하여 많은 의견을 개진하였음
- 향후에도 한국의 작성방법을 다른 나라와 공유할 의사 있음

(4) 업무의 진척 검토 및 고려사항 의견 제출

- 한국은 UN통계위원회 업무진척에 따른 현황보고서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였으며, 최종본 확정 전에 각국이 동의하는 범위 내에서 한국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임

Contents on Short-term economic indicators Report

- (1) Regarding a handbook on short-term economic indicators;
 - Based on the fact that the indicators which can promptly and accurately recognize economic situation are needed, a handbook based on the experiences and examples of each applicable country would be useful for those countries that are currently compiling short-term economic indicators as well as those that are planning to do so.
 - We agree with the necessity of compiling a handbook because it is helpful for developing countries to create their own indicators concerning business cycles.
 - We recommend that the handbook be used as a reference because each country's situation is different.
- (2) In reference to establishment of a voluntary nationally central data hub;
 - With the early recognition of the importance of nationally centralized data hubs with a single access point, Statistics Korea developed and operates a portal service called "KOSIS" which is an integrated DB and one-stop portal service for national statistics that began in 2007. This has been globally recognized as one of the best practices of its kind.
 - If countries are able to establish such data hubs, we believe that this would enhance user accessibility to statistics and be useful in monitoring other countries' data for a more accurate analysis of the global situation.
- (3) Participating in the global assessments and submit practices of short term economic indicators

- We have submitted our current condition of compiling the business cycle composite indicators for making the handbook and presented our opinions on this matter through presentations at three separate seminars.
 - We are willing to exchange views with other countries.
- (4) In terms of the submission of the report on the progress of work and considerations;
- We agree with the submission for its consideration and review of a status report on the progress of implementation of work in future session of the Commission.

12 :국제비교프로그램에 관한 세계은행 보고서

(Report of the World Bank on the International Comparison Programme)

주요 논점

- ◇ 2011년 국제비교프로그램(ICP) 이행
- ◇ 국제비교프로그램에 회원국의 참여

□ 개 요

- 이 보고서는 2011년 1월 국제비교프로그램의 현장업무 시작과 관련된 2010년 준비활동에 대한 종합적 정보를 제공

□ 관 리 및 재 무 상 태

- 기술자문그룹(TAG) 업무프로그램은 국가들 및 지역사무국에서 수행하는 현장 및 사무실업무 향상을 위한 방법론적 측면을 포함하며, 소유자 거주 가구, 정부지출 측정 등에 관한 활동들이 완료된 상태
- ICP 지역준비기구들과 OECD-Eurostat PPP 프로그램 대표자들은 2010년 두 차례의 회의를 갖고 이행도구 및 방법론을 검토
- 예산기대치와 현재 기금간의 격차가 커 기금조성 노력이 필요

□ 준 비 활 동 과 정

- 필요한 데이터자료 정의, GDP 지출 데이터 편집 등의 준비작업을 위해 글로벌 핵심리스트, 조사 프레임워크 가이드라인과 양식, 소프트웨어 틀 등의 이행 자료를 개발
- ICP-kit 은 2011년 사용될 소프트웨어로 리스트에는 가계소비, 정부보상비, 국민계정을 위한 국가모듈과 지역모듈이 포함되고 물가조사 데이터 검증을 위해 2011년 라운드에 사용될 예정

□ 지 역 프 로 그 램 의 상 태

- 2010년 아프리카, 아시아 태평양, 독립국연합, 라틴 아메리카, 서아시아 등 지역 준비기관은 다수의 기술워크숍 및 관리회의를 주관했음

- 아프리카는 방법론검토, 최종지역리스트, GDP외퇴관련 초기 활동 등을 논의하기 위한 세 번의 워크숍을 개최했으며 아시아태평양에서는 지역 업무프로그램 최종화를 위한 지역자문이사회 회의를 개최
- 2010년 8월 벨라루스에서 독립국가들의 연합(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s)이 지역프로그램의 이행에서의 절차 및 물가수집 및 PPP소비를 중점적으로 방법론을 논의했으며 OECD-Eurostat은 ICP 글로벌 핵심리스트를 위한 물가 수집에 착수, 2010년 12월 07, 08, 09년의 PPP를 출간

□ 2011 데이터 수집과 업무 계획을 위한 준비

- 기금현황, 지역 활동, 생산품리스트 개발 현황, GDP외퇴와 관련된 국민계정 업무준비상태 등에 대한 검토 등을 보고함
- 업데이트 된 ICP 웹 사이트는 조직도와 회의업무자료가 포함하였으며 ICP 데이터사용자와 생산자가 워싱턴 DC에서 사용자회의를 개최
- 2011 국제 비교 프로그램은 행정 및 제도적 구성, 활동의 방법론적 준비, 국민계정활동, 예비보고서 및 최종보고서 준비 등 네 단계로 나뉘어 진행

□ 데이터 필수사항과 액세스

- 데이터 및 메타데이터 필수사항
 - 지역 준비기관은 평균물가데이터, GDP지출, 데이터의 시의적 제공
 - 통계관련 글로벌 핵심아이템 리스트, 물가조사 프레임워크 정보, 검증 및 평균화과정, ICP관련 국민계정 통계의 검증을 위한 방법론 제공 및 최종 국가평균 물가를 ICP 글로벌 오피스에 제출
 - 지출데이터 및 종합과정의 검증표, 물가조사 메타데이터 등의 지수 제공, 모든 ICP지역이 동일한 아이템 리스트를 사용토록 함
- 집행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글로벌오피스는 지역준비기관 및 회원국들, 국제전문가에게 ICP 데이터 액세스에 관한 관점 모색을 위한 자문을 구함

국제비교프로그램에 대한 의견

(통계청 물가동향과, 한국은행 물가통계팀)

□ 논의 배경

- 우리나라는 1999라운드부터 ICP* 하위프로그램인 OECD-PPP(구매력평가) 프로그램에 참여 중이며, 현재 2011라운드를 진행 중('09~'13)
 - World Bank는 동 자료를 이용하여 국제비교 실시
- * ICP는 PPP(구매력 평가)에 의해 산출된 실질GDP를 근거로 국가 간의 경제력을 측정·비교하기 위한 국제 비교프로그램으로, ICP에는 6개 지역(Eurostat-OECD 46, 아프리카, 아시아·태평양, 라틴아메리카, 독립국가연합, 서아시아), 약 192개국이 참여
- 세계은행은 ICP에 관한 업무진행 절차, 추진일정 등에 관하여 참가국의 검토 의견을 요청
 - 통계청은 가구소비 품목관련 가격조사를 실시, 한국은행은 GDP 관련 자료 제공
 - '11~'12년 주요 추진사항으로, ①가구 소비품목 관련 가격조사, ②주택, 정부 및 총 고정자산 정보관련 특별조사 ③GDP 지출의 항목분할 업무 등을 추진

조사부문	조사시기	제공기관
식료품(2009-I), 개인용품(2009-II)	2009년 하반기 2010년 상반기	통계청
가정용품(2010-I) 교통·외식·숙박(2010-II)	2010년 하반기 2011년 상반기	
서비스(2011-I) 집세 가구·보건(2011-II)	2011년 하반기 2012년 상반기 2012년 상반기	
건설, 기계장비	2012년 상반기	한국건설기술연구원/한국은행
공무원 임금	2012년 상반기	행정안전부 / 국립의료원

□ 검토 의견

<통계청>

- 국가 간 비교를 강화하기 위하여 참여국의 확대와 방법론의 개선을 위해 노력해 온 집행위원회 및 국제사무소 등 ICP관련 담당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 한국은 2011라운드 일정에 맞춰 '11년 교통·외식·숙박 및 서비스 부문의 가격 조사를 실시 중이며, 향후에도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한국은행>

- 당행은 매 3년 주기로 실시되는 OECD PPP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간접적으로 ICP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음
 - OECD와 Eurostat은 World Bank와의 MOU에 따라 OECD-Eurostat 권역의 가격조사 결과, GDP 지출 세부항목자료 및 관련 메타데이터 등을 World Bank에 제출할 의무를 지님
 - 한편 OECD는 World Bank와의 사전 협의를 통해 조사품목 및 서베이 일정을 조율하는 등 ICP와 관련하여 회원국의 추가 업무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음
- ⇒ 따라서 당행은 OECD의 PPP 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써 ICP에 참여하는 결과가 되며, 본 회의에서 특별히 언급할 사항은 없음
- 참고로 현재 진행중인 OECD의 PPP 프로그램의 2011 라운드 일정에 따라 당행은 다음과 같은 자료를 향후 OECD에 제출하여야 함
 - 2011년도 GDP 지출 세부항목별 잠정 및 확정자료(지출국민소득팀)
 - 2011년중 자본재 품목 가격조사 결과(물가통계팀)

Contents on the International Comparison Programme

<Statistics Korea>

- Statistics Korea extends its appreciation to the staff of the ICP Executive Board and Global office who have developed methodological improvements and expanded number of the participating countries in order to strengthen international comparison.
- According to the time schedule of the round in 2011, Statistics Korea will carry out the Price Survey on "transportation, restaurants and hotels" and "services" this year and actively cooperate in the ICP.

<The Bank of Korea>

- The Bank of Korea has been taking part indirectly in the ICP (International Comparison Programme) through participation in the triennial OECD PPP(Purchasing Power Parities) Programme.
 - In accordance with its MOU with World Bank, the OECD and Eurostat are required to submit to World Bank the Price Survey Results of the OECD-Eurostat area, including a breakdown of GDP expenditures and related metadata to the World Bank.
 - Meanwhile, the OECD has been relieving the burden of additional work load related to ICP on its member countries by coordinating survey items and survey schedules through a prior arrangement with the World Bank.
- ⇒ In this regard, the Bank of Korea effectively participates in the ICP through its involvement in the OECD PPP programme, and there are no specific points that need to be mentioned at this meeting.
- For your information, the Bank of Korea will submit the following materials to the OECD in the future in accordance with the ongoing 2011 PPP schedule:
 - Preliminary and final data of the breakdown of 2011 GDP expenditures (National Expenditure Statistics Team)
 - Results of the survey on capital equipment prices during 2011 (Price Statistics Team)

13 : MDG 모니터링에 필요한 지표에 대한 사무총장 보고서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on the indicators for monitoring the MDG)

주요 논점

- ◇ MDGs 달성에 대한 진척상황을 점검하는 모니터링 작업의 제고를 위하여 유엔통계처는 '06년 "통계역량강화"에 대한 결의안을 채택하여 각국의 데이터 유효성 및 품질 향상, 국내외 데이터 격차 해소 등을 목표로 다양한 사업을 진행
- ◇ 국제적인 노력 뿐 만이 아니라 국가차원의 적극적인 관심- MDGs 모니터링에 필요한 조사기법 및 조사 tool 개발- 및 국내 지역(sub-national) 차원에서 MDGs 통계생산 관련 교육프로그램 제공하는 등 다방면의 노력이 요구됨

□ MDGs 모니터링 제고를 위한 국제적 노력

- MDGs 지표에 대한 관련기구 및 전문가회의(IAEG) 및 유엔통계처는 '06년 유엔경제사회위원회의 "통계역량강화"에 관한 결의안 채택 이후, ① MDGs 모니터링을 위한 데이터 유효성 및 품질 향상 ② 국제 조정 및 비교가능 MDGs 지표를 위한 SDMX 채택 독려 ③ 각국의 MDGs 모니터링 데이터 확보를 통한 국내외 데이터 격차 해소를 목표로 사업 진행
- 특히, 유엔통계처는 투명한 조사방법(transparent methodologies)을 통하여 데이터의 설명범위, 투명성 등 향상을 주요목표로 MDGs 데이터베이스 구축 시 이용자의 이해도 향상을 위해 다양한 색채를 활용하고 메타 데이터의 세부적인 출처 및 원자료를 제공하는 등의 사업을 진행

□ MDGs 지표의 데이터 유효성 평가

- 유엔통계위는 MDGs 모니터링을 위한 지표는 국제적인 비교 및 평가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생산되어야 함을 강조하여 왔으며, 동시에 각국의 MDGs 지표 생산역량을 평가하였으며 데이터의 설명범위가 상당부분 증가하였음

* MDGs 지표 16-22개 생산 가능국가 수 : 0개(2003) → 84개(2006) → 96개(2010)

□ 논의 사항

- 국가차원에서 MDGs 이행에 대한 진척상황 평가가 가능한 조사기법 및 조사 tool 개발
- 지방(sub-national) 차원의 MDGs 통계생산 관련 교육프로그램 제공
- MDGs 데이터의 국제비교성 향상을 통한 MDGs 모니터링 작업 향상
- MDGs 지표의 국제비교성 향상을 위한 SDMX 도입 독려 및 유관 교육프로그램 및 기술지원 제공

“MDG 모니터링에 필요한 지표”에 관한 의견

(통계청 국제협력담당관실)

□ 논의 배경

- 2015년 MDGs(유엔새천년개발목표) 달성을 4년 앞둔 시점에서 각국의 MDGs 지표 달성여부를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MDGs 달성을 위한 지원이 필요한 국가 및 분야를 파악
 - 각국에 MDGs 달성을 위한 노력 촉구 및 미달성 분야에 대한 국제 사회의 공조 요청 가능
- MDGs 모니터링과 관련하여 이를 평가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지표의 국제비교성 향상을 위하여 국내외 노력이 시급한 상황

□ 최근 국제적 동향

- 국제워크숍 및 프로젝트 운영
 - '08년 이후 지역별로 워크숍 개최 및 프로젝트 등을 운영하여 국제 기구 전문가 등이 직접 참가하여 MDG 모니터링에 필요한 국내 데이터와 국제데이터의 격차 해소를 위한 방안 등을 논의

□ 주요 이슈

- 국제적 차원은 물론 국가적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국제적인 표준에 걸맞는 데이터를 생산하여 MDG 모니터링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여할 필요가 있음
- 국가적인 차원에서 데이터 유효성 향상 및 양질의 데이터 생산을 위한 기법 개발 및 개선작업 필요

□ 검토의견

- 2015년 MDG 달성에 대한 비관적인 전망 타개를 위한 국제공조 강화
 - 지난 '10년 제65차 유엔총회 기간 중 개최된 “MDGs 정상회의”에서 의미 깊고 광범위한 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을 결집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음
 - 이러한 시점에서 MDG 목표의 달성 진척도를 객관적으로 보여 줄 수 있는 지표를 생산 및 관리하는 중앙통계기관의 역할 역시 매우 중요

- MDGs 지표 생산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진행의 중요성
 - 광범위한 MDGs 지표 생산을 하는 중앙통계기관 뿐만이 아니라 각 유관부처의 지표 생산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필요
 - 국제기구의 지역사무소, 통계연수소 등과 협력하여 지역내(subregional) 소속 국가의 통계생산자 등을 위한 연수프로그램을 구성한다면 역내 특성을 고려하여 진행되는 과정인 만큼 그 효과가 클 것임
 - 또한 통계생산자 뿐만이 아니라 시민사회 인사 등 통계이용자가 함께 연수과정에 참가하여 MDGs 달성을 위한 사회 각계의 공동 노력이 필요함을 인식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

Comment on Indicators for monitoring the MDGs

- At the MDGs Summit 2010 organized by the UN, a consensus was formed on accelerating the progress towards concluding all the MDGs by 2015 and coming together to overcome obstacles facing this achievement.
 - At this juncture, the role of central statistical offices in producing and disseminating the MDGs indicators is ever more crucial.
- The international and national efforts to strengthen statistical capacities need to be more focused on training programs.
 - As MDGs cover a wide spectrum of society and MDG indicators are produced and used by various stake-holders, including line ministries, sub-national offices and civil society as well as statistical offices, their training needs should be thoroughly addressed.
 - I would like to suggest that the training programs designed and implemented by regional and subregional offices for strengthening statistical capacity of MDGs also invite the users of statistics such as NGOs and civil society, because the MDGs can be successfully achieved when the concerted efforts of all stake-holders are invested.

14 : 인간개발지수에 대한 통계위원회 의장단 보고서

(Report of the Bureau of the Statistical Commission on statistics of human development)

주요 내용

- ◇ 2010 인간개발보고서에 사용된 데이터의 적절성 및 조사방법의 확실성에 대한 전문가회의 결과 제시된 문제점 및 권고사항을 보고
- ◇ 전문가회의 결과, 인간개발보고서에 활용되는 모든 지표의 데이터 출처 및 조사방법을 공표하고, HDI 관련 통계자문전문가팀 활동 재개 등을 권고

□ 전문가회의 소집 배경

- 제41차 유엔통계위원회(10년 2월)에서 “인간개발지수 확대” 등 지수 개편에 있어 유엔통계위와의 충분한 협의가 부족
- 특히, UN 인간개발보고서실(HDRO)이 인간개발지수 확대를 위하여 포함한 새로운 지표 및 조사방법 등의 투명성 확보가 필요
 - ※ 유엔통계위원회는 지표 개발은 각 국에 미치는 파급력을 반드시 고려하여야 하기 때문에 투명한 절차를 통한 지표 개발을 독려
- 이에 따라 인간개발보고서에 활용된 데이터의 적절성 및 조사방법의 확실성에 대한 전문가회의를 조속히 개최하고, 회의의 제안사항 등을 인간개발보고서 사무국이 이행할 수 있도록 요청

□ 전문가회의 주요 내용

- 인간개발지수 관련 각 지역을 대변할 수 있는 11개국 고위급 전문가가 참가하여 인간개발지수 개편내용 점검, 문제점 및 권고사항 논의
 - ※ ‘10.3.24.-25. 미국 뉴욕 / 의장 : 호주통계청 Peter Harper
- 인간개발지수 개발에의 공식통계 활용의 중요성을 재차 확인
 - 비공식통계 활용 시 국제비교성이 미비하며 특히 교육 및 빈곤 측정과 관련하여 채택된 지표에 많은 문제점이 발견되었음
- 기존의 인간개발지수를 총3개 부문(소득, 교육, 보건)으로 나누어 분석 평가하고 UNDP에 2010 인간개발보고서의 통계데이터 통보를 권고

□ 전문가회의 권고 사항

- 인간개발보고서 통계자문패널(Statistical Advisory Panel) 재개를 통하여 보고서 작성 초기단계에 공식통계생산 국제기구 및 각국 정부와의 충분한 협의 필요
- UNDP는 정기적으로 유엔통계위원회에 인간개발지수의 데이터 및 조사방법의 변경사항 등을 보고

□ 논의 사항

- 전문가회의 이후에도 세부적인 내용에 대한 검토(technical review)를 제공하기 위하여 인간개발보고서 사무국의 협조를 요청
 - 유엔통계위는 전문가회의에서 사무국에 추가 지표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였으나 동 자료제공이 매우 늦어져서 전문가들이 검토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으며 이러한 기술자문이 반영되지 않은 상태로 2010 보고서가 발간된 점에 대하여 상당한 유감을 표함
 - 이와 함께 유엔 공표지표에 대한 브라질, 모로코, 남아프리카의 문제제기를 제42차 유엔통계위원회의 공식의제로 채택
- 전문가회의의 5개 권고사항 지지
 - ① 인간개발지수 개발 및 변경 시 공식통계를 활용하여 국제비교성을 확보한 지표가 지속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독려
 - ② 인간개발보고서실이 국제적인 표준에 부합하는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유관 국제기구 및 각국 정보와의 상호협력 증진 노력
 - ③ 방법론적 확실성이 부족한 지표 개발 등에 대한 각별한 주의 요망
 - ④ 모든 지표의 데이터 출처 및 조사방법 등을 공표할 것*
 - * 2010 인간개발보고서에서 발견된 가장 큰 문제로 유엔통계위원회는 데이터의 정확한 출처와 조사방법을 명시하지 않은 HDRO에 경고
 - ⑤ 인간개발보고서 통계자문패널(Statistical Advisory Panel) 재개
- 인간개발보고서 사무국은 상기 권고사항 이행에 대한 보고서를 제43차 유엔통계위원회에 보고할 것

□ 총괄 평가

- 인간개발지수는 전 세계 국가의 발전 상태를 비교적 간단하고 명료한 지표와 지수를 통해 주기적으로 진단하고 평가하는 데 유용하다. 이번 2010 인간개발지수 개정은 시의 적절하며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이미 몇몇 국가에서 제기한 바와 같이, 인간개발지수의 중요성이나 영향력이 큰 점을 감안하여, 각 국가의 의견과 현황이 개정 과정이나 절차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남는다.

□ 보고서 논점 (a): 공식통계사용의 권장

- 인간개발지수가 국제적으로 비교가능하면서 신뢰롭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국제기구나 국가의 공식통계를 사용하는 것은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전제조건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국가마다 통계를 생산하고 활용하는 역량 차이가 크기 때문에 자국의 노력만으로 질 높은 통계를 확보하는 것은 무척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공식통계를 제공할 수 없는 국가를 위하여 별도의 지원 계획이 수립되어야 하며, 공식통계를 대체할 수 있는 유사 통계의 기준과 조건에 대한 합의도 필요해 보인다.

□ 보고서 논점 (b): 데이터의 출처와 수집방법 제공을 권장

- 지표와 지수 산출의 가장 첫 번째 단계는 신뢰롭고 타당한 데이터를 확보하고 이에 대한 메타정보를 충분히 제공하는 것이다. 2010 개정된 인간개발지수에는 일부 추정 통계가 사용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명시적인 설명이나 근거가 부족하다. 인간개발지수의 수요자 중에는 통계적 배경지식이 충분하지 않은 정책 전문가나 일반인이 많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신규 개정된 인간개발지수의 데이터나 수집방법을 포함하여 지수 산출 과정과 방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보다 사용자 편의적인(user-friendly) 교육자료 제작을 요청한다.

Comments on the Report of the Bureau of the Statistical Commission of Statistics of Human Development

General Comments

- The Human Development Index provides a useful diagnosis of the developmental status of countries around the world using relatively simple and well-defined indicators. The 2010 revision of the Human Development Index is considered timely, necessary and practical. As some countries have already raised issues, this verifies importance and influence of the national and international implications of the Human Development Index. The revision process contained an unsatisfactory point in that each country's comments and suggestions were not well reflected.

Discussion Point (a): Recommendations for use of official statistics

- In order to produce internationally comparable, reliable and accurate information, it is a fundamental and critical prerequisite to utilize each nation's official statistics and statistics provided by international organizations to calculate the HDI. However, the capacity of production and use of statistics in each country differs and many countries face enormous challenges in producing high quality statistics. Therefore, support is needed for countries that are unable to provide official statistics in order to nurture conditions that lead to the collection of statistics, and a consensus needs to be formed on the standards and requirements of para-official statistics that will be used in place of official statistics.

□ Discussion Point (b) : Recommendations for providing sources of data and collection methods

- The first step for the production of composite indices is to secure the most reliable and valid data and provide sufficient meta-information for the data used. The 2010 revision of the Human Development Index offers a host of estimated numbers, but there is a huge lack of explicit explanation or evidence for the estimation.
- Considering that the Human Development Index is often used by the public and even professionals who are somewhat unfamiliar with statistics, there is a hope that the newly revised HDI is accompanied by an operating manual that includes detailed information on the data collection and calculation methods in order to become more user-friendly.

15 : 인간개발지수에 대한 UNDP 보고서

(Report of the UNDP on statistics of human development)

주요 내용

- ◇ 2010년 인간개발보고서에는 불평등지수 적용 인간개발지수 (IHDI: Inequality-adjusted HDI), 성불평등지수 (GII: Gender Inequality Index), 다차원 빈곤지수 (MPI: Multidimensional Poverty Index) 등 총 3개 지표 추가
- ◇ 2010년 인간개발지수 개정을 위하여 UNDP는 충분한 자문 절차를 거쳤으며 전문가회의의 권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였음

□ 인간개발보고서 개요

- 인간개발보고서는 UNDP로부터 위임받은 독립적인 보고서로서 '90년 최초 출간되어 연1회 발행
- 인간개발지수는 ①평균 수명 ②교육수준 ③삶의 수준 등을 측정하는 복합지수

□ 2010 인간개발보고서 준비 관련 사항

- 지난 2년간 UNDP는 광범위한 분야의 전문가를 초청하여 HDI 개정 및 새로운 조사방법에 대한 협의를 진행
 - 특히 학술자문패널(Academic Advisory Panel)에 통계전문가 등이 포함되어 있어 HDI 개정 작업을 위한 충분한 자문이 제공
- '10년 3월 유엔통계위원회의 요청으로 구성된 전문가회의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HDI 산출 및 새로운 조사방법에 대한 조정 작업 진행
- 2010 인간개발보고서에는 3개의 새로운 지표 추가
 - ① 불평등지수 적용 인간개발지수 (IHDI:Inequality-adjusted HDI)
 - ② 성불평등지수 (GII:Gender Inequality Index)*
 - ③ 다차원 빈곤지수 (MPI:Multidimensional Poverty Index)**

- * 기존 여성관련 지수인 여성권한척도 (GEM : Gender Empowerment Measure), 남녀평등지수(GEI, Gender-related Development Index) 등이 선진국 위주로 지표가 구성되었다는 지표 선택의 적절성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2010 보고서에 새로이 도입
- ** 빈곤, 사회적 가치(교육, 보건, 생활수준 등)의 박탈에 대한 다차원적 관점을 반영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2011 인간개발보고서 준비 방향

- 불평등과 함께 지속불가능성(unsustainability)을 주제로 인간개발의 지속가능성을 측정할 수 있는 다양한 측면을 살펴볼 예정

□ 결론(논의사항 포함)

- 수년간 HDI는 지속적으로 개선되어 왔으며, 앞으로도 사무국은 동 작업을 계속 진행할 것. 이에 대한 통계위원회의 조언 등을 요청
- 2010 보고서 결과, 전세계 각국이 정기적인 인구센서스 등을 통하여 보다 광범위한 자료를 구비해야 하는 필요성을 파악하였으며 이를 위한 통계위원회 노력을 촉구하고자 함
- UN인간개발보고서실(HDRO)은 전문가회의의 권고사항에 대한 모든 조치를 취하였음
 - 새로운 지표생산 과정에서 공식통계 활용이 저조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금번에 새롭게 추가된 지표 사용을 최대한 배제
 - 조사방법에 대한 전문가 자문 필요 부분에 대한 지적은 학술자문패널 개최를 통하여 보완

□ 총괄 평가

- 2010 인간개발지수 개정은 시의적절하며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번 개정에서는 데이터의 출처를 다양화하고 조사방법을 정교화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다만 데이터 출처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으며 지표 및 지수 산출의 기준을 분명하게 제시하지 않아서 기존의 지수에 익숙한 독자에게 혼란을 야기할 수 있음. 또한 2010 개정 HDI와 함께 새롭게 추가된 불평등 및 빈곤 관련 HDI 지수 간의 관련성, 차별성과 정책적 함의 등에 대한 상세한 논의도 필요할 것이다.

□ 보고서 논점 (a): 데이터의 출처 및 방법론의 변화

- 인간개발지수의 개정에 대해서는 환영하지만 몇 가지 후속 작업이 요청된다. 우선 데이터 출처와 방법론이 달라질 경우 시계열 자료 분석과 해석에 어려움을 야기할 수 있는 바, 기존 지수와 개정 지수를 연결할 수 있는 조정(anchor, adjustment) 작업이 요청된다.
- 방법론의 변화는 지수개발의 모형과 개념의 변화를 전제로 한다. 이에 기존의 인간개발지수의 모형과 개념이 가지고 있는 한계나 제한점은 무엇이었는지, 새로 개정된 인간개발지수의 모형과 개념이 나아진 부분은 무엇인지를 개념 및 모형 차원과 방법론 차원에서 동시에 다루어야 할 것이다.

□ 보고서 논점 (b): HDI 이외의 지수 개발

- 2010년 새롭게 개발된 세가지 추가적인 HDI에 대해 환영하며 추가 HDI는 정책적으로 시사점이 크다고 생각된다. 국가가 발전할수록 불평등과 빈부격차는 더 심해지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신규 추가 HDI는 각 국가의 사회정의와 복지 수준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잣대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신규 추가된 HDI 개발의 모형과 개념, 방법론 등에 관한 충분한 연구가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Comments on the Report of the UNDP on Statistics of Human Development

□ General Comments

- The 2010 revision of the Human Development Index is considered timely, necessary, and practical. In this revision, the changes can be evaluated positively in terms of using various data sources and elaborated methods. However, not all sources were clearly cited, and new criteria for the indicators and indices were not evidently provided. This could bring a lot of confusion to the readers who are accustomed to the previous versions of the HDI. Also, the newly added indices; Inequality-adjusted HDI(IHDI), Gender inequality index(GII), and Multidimensional poverty Index(MPI) must be explained fully with their policy implications.

□ Discussion Point (a): Changes in data sources and methodology

- The revision of the Human Development Index is positively appraised, but a couple of follow-up actions are recommended. First, as the data sources were changed and different methodologies were used, time series analysis will be a challenge. There should be an adjustment between the previous HDI and the newly revised HDI to link the two for further analysis.
- In the report, the methodological change has been accompanied by the index and model changes. However, there is only a scant amount of documentation on why the change was necessary. There is a desire to include discussion on the limitations of the preexisting HDI model and concepts and the strengths and benefits of the new one.

□ Discussion Point (b) : Introduction of indices other than HDI

- The addition of three new indices is welcomed and considered to have many policy implications. As countries develop, inequality and income disparity grow and pose great challenges. In Consideration of this matter, the new indices will become excellent yardsticks in which to measure the level of social justice and welfare of countries. However, sufficient research is required concerning the development of the new models, concepts, and methodologies of the HDI.

16 : 유엔공표지표에 대한 브라질, 모로코, 남아프리카의 문제제기

(Report of the Brazil, Morocco and South Africa on Members States' concerns with indicators released by the UN agencies)

주요 논점

- ◇ 인간개발보고서(HDR)와 MDG 보고서 등에서 개발지표의 선택, 방법론 및 자료소스 등에 대한 일부 회원국의 반발
- ◇ 개별국가의 자료와 국제기구 공표 자료의 차이를 줄이기 위한 국제기구의 노력

□ 개요 및 배경

- 최근 국제기구에 의해 공표되는 개별 국가 통계지표에 대하여 일부 회원국의 논란이 있어 왔음(특히, 인간개발보고서와 MDG보고서를 중심으로)
 - 지표의 선택·방법론 및 원자료의 선택·이용과 관련 브라질, 모로코, 남아프리카가 문제제기

□ 최근 동향 및 이슈

<지표의 선택 및 방법론 관련>

- 제31차 유엔통계위원회(2000년)에서 호주가 인간개발지수(HDI) 관해 많은 기술적 문제 제기
 - 이에 FOC(Friends of the Chair) 그룹이 형성되어 제32차 통계위원회에서 FOC 그룹은 호주의 지적이 정당하다고 보고
- 이 문제는 제41차 유엔통계위원회(2010년)에서 다시 제기됨
 - 통계위원회는 방법론적 문제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였으며 또 다른 외부 전문가 그룹이 형성되어 금번 통계위원회에서 보고서 제출 예정
 - 옥스퍼드 빈곤·인간개발연구소(Oxford Poverty and Human Development Initiative)에 의해 개발된 다차원 빈곤지수(Multi-dimensional Poverty Index : MPI)의 방법론과 원자료에 관한 논란 제기

<원자료(Source data)의 활용 관련>

- 제36차 유엔통계위원회(2005년)에서 MDG 지표에 관한 국제기구 공표 자료와 개별국가 자료에 차이가 있다는 남아프리카의 문제제기로 FOC 그룹 결성
 - 제37차 통계위원회에서(2006년) FOC 그룹은 데이터의 투명성에 문제가 있음을 보고하였고 경제사회이사회는 “통계역량강화”를 결의(2006/6)
- 자료간 차이를 줄이려는 그간의 노력
 - MDG지표에 관한 자료간 차이를 줄이기 위해 IAEG (Inter-Agency and Expert Group)는 국가통계시스템과 국제기구에 보고하는 시스템을 개선하는 데 중점
 - 국제기구의 방법론적 투명성 개선을 위해 MDG지표 데이터베이스의 재설계, 국제 비교성 제고를 위해 각 국 데이터셀의 코드화 및 조정
 - 자료와 메타데이터 교환 및 자료 간 차이 최소화를 위해 SDMX 도입

□ 일부 회원국의 문제제기

○ 브라질

- 브라질 정부는 UNDP에서 공표되는 지표들이 브라질 통계청(IBGE)이나 관련부서와 협의 없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이며(특히, 다차원 빈곤지수(MPI)) 이를 유엔공식통계로 인정하지 않고 있음
- 이 문제는 브라질에서 생산되는 공식통계를 사용하지 않는 점, UNDP의 자료소스·방법론상 접근·추정의 투명성 부족, 브라질과 UNDP간의 협력부족 등에 기인

○ 모로코

- 다차원 빈곤지수(MPI)의 발표는 모로코 통계인과 정부의 강한 반발을 야기
- 모로코는 MPI를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로 최신자료가 아닌 과거자료 사용, 대상기간의 광범위함(8년), 방법론적 문제 등을 거론
- 특히, 유엔통계위원회와 같은 국제통계커뮤니티와 협의없이 지수를 공표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

○ 남아프리카

- 제36차 유엔통계위원회에서 원자료의 이용과 인간개발보고서(HDR)에 나오는 지수에 대하여 처음 언급하면서 국제기구가 국가의 공식 데이터를 보고서에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반복적으로 나타난다고 지적
- 남아프리카에 관한 인간개발보고서(HDR)와 MDG 지표간 차이

지표명	HDI	MDG 지표	비고
하루에 1.25달러 이하의 소득으로 생활하는 사람들의 인구비율	26.2%	17%(2000) 9.7%(2006)	- HDI는 자료원천이 알려지지 않음 - MDG 지표는 200년·2005년 수입·지출조사와 ICP2005에 근거
글을 읽고 쓸 줄 아는 능력	89% (2005~2008)	83%(2002) 89%(2009)	- MDG 지표는 2001년 인구센서스와 2007년 사회조사에 근거
1천명당 5세 미만 유아 사망률	67명(2008)	59명(1998) 104명(2007)	- MDG 지표는 2001년 인구센서스, 2007년 사회조사 및 1998년 인구·보건조사에 근거
기대수명	52년	61년(2001) 58년(2007)	- HDI는 실제상황과 반대로 나타남
생후 12개월-23개월 유아 중 1회 이상 홍역 예방 접종을 받은 비율	62%	98%	- MDG 지표는 보건부의 행정보건 기록에 근거

□ 논의 사항

- 데이터소스, 개발 지표의 선택 및 방법론에 대한 국제기구와 회원국의 협의 시스템
- 인간개발지수에 대한 경제사회이사회 결의(2006/6) 및 2006 FOC 그룹·2010 전문가 그룹 결정의 이행
- 개발 지표의 선택, 품질평가 및 회원국 협의를 위한 유엔시스템에서 유엔통계처의 조정 역할

17 : 공식통계 기본원칙 이행에 대한 사무총장 보고서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Fundamental Principles of Official Statistics)

주요 내용

- ◇ 유엔통계위의 '94년 기본원칙 채택 이후, 각국 통계청은 통계법 제정 시에 이를 반영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 동 원칙을 적용
- ◇ 최근 공식통계 기본원칙 이행이 미비하다는 회원국의 비공식 평가 및 기본원칙 20주년을 맞이하는 준비 차원에서 원칙 재개정 여부, 각국 이행사항에 대한 국가보고서 마련 여부 등을 논의하고자 함

□ “공식통계 기본원칙” 수립 배경

- 국제통계사회의 일원들이 가져야 할 핵심가치 및 윤리강령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1990년대 초 유럽통계컨퍼런스에서 최초로 논의
- 공식통계의 공신력에 대한 정부 및 일반국민의 이해도를 높이고 공식통계의 역할에 대한 국제적인 문건 및 통계시스템 발전에 대한 지침서로서 유엔통계위원회는 '94년 “공식통계 기본원칙”을 공식채택

□ 공식통계 기본원칙 이행사항 점검

- 유엔통계위의 '94년 기본원칙 공식 채택 이후, 각국 통계청에서는 통계법 제정 시에 이를 반영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 동 원칙을 적용
- '04년 공식통계 기본원칙 채택 10주년을 맞아 유엔통계처는 각 회원국의 기본원칙 이행사항 점검을 실시, 112개국 회원국이 응답
- 개인정보보호(confidentiality)과 통계법 공표(legislation) 부문은 크게 개선된 반면 통계의 부정확한 사용(prevention on misuse) 및 통계조정(coordination) 부문의 이행은 미비한 것으로 평가

□ 논의 사항

○ 최근 공식통계 기본원칙 이행이 미비하다는 회원국의 비공식 평가 및 기본 원칙 채택 20주년인 2014년을 맞이하게 됨에 따라 하기의 3가지 논점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자 함

① 이행 의무성을 강조하고 보다 명확한 표현을 보완하여 원칙 재개정

② 국가보고서 등을 활용한 정기적인 이행사항 점검

③ 유엔통계위의 회원국의 동 원칙 이행사항에 대한 특별조치 마련

※ 동 사항은 유엔통계위 고위급포럼의 주제로 선정되어 논의될 예정

<공식통계 기본원칙 (요약)>

(전문) 유엔통계위원회는

공식통계가 경제, 사회, 환경의 발전 및 회원국의 유무형 무역의 근간이 되고, 공식통계의 공신력을 위하여 모든 회원국은 기본원칙을 준수하고, 양질의 공식통계는 이용자의 수요에 부응하는 통계를 적시에 제공하며, 국제비교성 향상을 위한 정부 및 비정부기관의 통계표준 작성 노력을 존중하고, 통계종사자의 직업윤리에 대한 국제통계기구의 선언을 존중하며 다음의 10개 공식통계 기본원칙을 채택한다.

① 통계자료 공개 ② 통계종사자의 직업윤리 준수 ③ 자료출처, 방법 등 공개 ④ 통계의 부정확한 사용 방지 ⑤ 응답자 부담경감 조사방법 채택 ⑥ 개인정보보호 ⑦ 통계법공표 ⑧ 통계조정 ⑨ 국제표준준수 ⑩ 통계발전을 위한 양·다자협력 도모

공식통계 기본원칙 이행에 관한 의견

(통계청 통계정책과)

□ 논의 배경

- 유엔통계처(UNSD)는 “공식통계의 기본원칙: 위기와 대응”이라는 주제로 고위급회의(High Level Forum) 개최(2011.2.21) 예정

〈공식통계의 기본원칙〉

1994년 UN이 도입한 공식통계의 기본원칙은 통계작성기관의 독립성, 직업적 전문성, 오남용의 방지, 개인정보의 보호, 통계제도 운영에 관한 법과 규율의 공표, 통계 조정, 국제적 개념과 분류의 이용, 국제적 협력 등 10가지 기준을 제시

□ 최근 국제적 동향

- 유엔통계처(UNSD)는 공식통계의 기본원칙 보급 및 이행 증진을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해오고 있음
 - ‘Development of National Statistical Systems’ 웹사이트를 구축(2006년)하여 각국의 통계제도 개요, 주요특징 및 기본원칙 이행에 관한 성공사례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함
- 「공식통계의 기본원칙 이행에 관한 2004년 보고서」를 통해 기본원칙의 이행에 관한 112개국의 경험을 설문조사한 결과를 분석*하여 발표함
 - * 가장 이행이 안 된 부분은 오남용 방지(원칙4), 통계 조정(원칙8)이었고, 가장 잘 이행된 원칙은 비밀유지(원칙6), 법제화(원칙7) 이었음

□ 주요 이슈

- 유엔통계처(UNSD)는 공식통계의 기본원칙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질문을 가지고 고위급회의를 개최(2011.2.21)할 예정
 - 공식통계의 기본원칙(1994년)에 대해 개정이 필요한가?
 - 원칙들의 이행에 관한 정기적인 검토(국가보고서, 상호검토 등)가 필요한가?
 - 원칙들의 국가적 이행을 강화하기 위해 위원회가 구체적인 행동을 취해야 하는지, 적절한 수단과 방법은?
 - 기본원칙 채택 20주년(2014)을 기념하기 위한 적절한 행동은 무엇?

□ 검토 의견

- 공식통계의 기본원칙 개정과 관련하여 '응답부담의 관리'에 대한 규정 추가를 제안함
 - 갈수록 통계조사의 응답률이 떨어지고 있는데 그 원인은 응답자의 프라이버시 의식증가와 통계조사의 증가에 따른 응답부담 가중일 것임
 - 이와 관련하여 기본원칙은 통계의 품질유지와 응답자의 권리보호 측면에서 비밀보호 규정은 두고 있으나, 응답부담의 관리에 관한 규정은 없는 상태임
 - 구체적으로는 통계조사표 상에 응답자의 응답부담을 명시하게 하고, 전체 공식통계에 대한 응답부담(시간)과 응답부담 경감 노력 등을 정기적인 국가보고서에 포함시키는 것이 좋을 것임
- 정기적인 국가보고서 내지 상호검토를 통해, 유엔통계처(UNSD)가 각국의 공식통계 기본원칙 이행상황을 점검한 보고서를 발표하는 것에 찬성함
- 「공식통계의 기본원칙 이행에 관한 2004년 보고서」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여러 국가에서 기본원칙의 이행에서 가장 어려운 분야로 통계조정을 꼽고 있음
 - 이 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루기 위해 통계조정 워킹그룹의 구성을 제안함
 - 이 기구에서 통계조정에 관한 각국의 제도와 사례를 검토하여 통계제도 유형별로 효과적인 통계조정 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국제적인 표준 매뉴얼을 개발·보급할 필요가 있음
 - 또한 '공식통계 기본원칙 이행에 관한 정기적인 국가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통계조정에 관한 성공사례(good practice)와 나쁜사례(bad practice), 그리고 그에 대한 평가(self assessment) 내용을 포함시키는 것도 고려할 수 있을 것임
 - 이를 통해 통계조정에 관한 각국의 경험을 활발하게 공유함으로써 중앙통계기관의 통계조정능력 향상과 동기부여에 도움이 될 것임

- (캐나다 : 인구조사 개입 반대) 캐나다 연방통계청 셰이크 청장은 정부 여당의 인구조사 개입(2011년부터 자발적인 참여로 개정하겠다는 계획)에 반대하며 사임 (The Canadian Press : 2010.7.22)
- (그리스 : 재정통계 왜곡)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그리스 재정통계에 대한 보고서」에서 재정통계의 품질이 정치적 압력과 선거주기에 영향을 받고 있다고 발표하고 그 원인으로 첫째, 통계방법론과 기술적 절차상 미숙함. 둘째, 거버넌스 부족에 기인한 통계협력 미흡, 통계청의 재무부로부터의 독립성 부족, 불명확한 책임소재, 문서화된 지침과 기록의 결여 등을 지적함 (2010.1.8)

REPORT ON GREEK GOVERNMENT DEFICIT AND DEBT STATISTICS

EUROPEAN COMMISSION - JANUARY 2010

As the report shows, the revision in the Greek government deficit statistics are due to two different but in some instances linked sets of problems: problems related to **statistical weaknesses** and problems related to **failures of the relevant Greek institutions** in a broad sense. The first set of problems concerns **methodological weaknesses and unsatisfactory technical procedures** in the Greek statistical institute (NSSG) and in the several other services that provide data and information to the NSSG, in particular the General Accounting Office (GAO) and the Ministry of Finance (MOF). The second set of problems results from **inappropriate governance, with poor cooperation and lack of clear responsibilities** between several Greek institutions and services responsible for the EDP notifications, **diffuse personal responsibilities, ambiguous empowerment** of officials, **absence of written instruction and documentation**, which leave the quality of fiscal statistics **subject to political pressures and electoral cycles**.

In particular, the report has found evidence of:

- **Severe irregularities** in the EDP notifications of April and October 2009, including submission of incorrect data, and **non-respect** of accounting rules and of the timing of the notification;
- **Poor cooperation** between the national services involved in the compilation of EDP figures, as well as **lack of independence of the NSSG and the GAO from the Ministry of Finance**; (*NSSG: National Statistical Service of Greece; GAO: General Accounting Office*)
- **An institutional setting and a public accounting system inappropriate** for a correct reporting of EDP statistics, especially **non-transparent or improperly documented bookkeeping**, which has lead to several, and in some cases significant, revisions of data by the Greek authorities over an extended period of time;
- **Lack of accountability** in the individual provision of figures used in EDP notifications, (e.g. absence of written documentation or certification in some cases, exchange of data by phone);
- **Unclear responsibility** and/or lack of responsibility of the national services providing source data or compiling statistical data, combined with ambiguous empowerment of officials responsible for the data.

Comments on the Implementation of Fundamental Principles of Official Statistics

- When the Principles are to be re-drafted, it is recommended that an article on 'Handling the Time Burden of the Respondents' be included.

- More respondents are realizing the importance of privacy protection and it is becoming a greater issue. Also, the time burden for completing the surveys is increasing which is causing the response rate to continually decrease.

- An item related to privacy protection and for the higher level of statistics quality is already included in the Principles. However, the time burden issue is insufficiently described in the Principles.

- For specific actions, the expected amount of time required for completing survey forms can be included on the survey forms and it is recommended that the Council request national statistical offices to include the total amount of time required for the official statistics and the efforts to reduce the time burden in their national reports.

- Statistics Korea stands by any action by the UNSD related to conducting periodic reviews of the Principles through national reports and peer review.

- It is noted in the 2004 Report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Fundamental Principles that the National Coordination (principle 8) is one of the least implemented principles.

- We propose the formation of a working group to study national coordination problems in statistics.

- The working group will review and examine the national systems related to the statistical coordination in various countries, classify

these rules and systems, and generate a standard manual to be used internationally.

- Following the adoption of the proposal that would require nations to periodically report the status of implementation of the fundamental principles, items such as good practices, bad practices, and self assessment could be included in the national reports.
- These items will be beneficial in sharing national experiences, and will assist the national central statistics offices to promote the statistical coordination activities.

18 : 통계역량강화에 대한 사무총장 보고서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on statistical capacity-building)

주요 논점

- ◇ 유엔총회 및 경제사회이사회 결의(2006/6호)에 의거, UN통계처의 2006 ~ 2010 개도국 통계역량강화 활동실적과 향후 계획에 대한 보고서임
- ◇ 금번 UN통계위원회에서는 지식전수 및 전문역량강화, 효과성 제고 등 UNSD의 활동방향과 자금지원 확대 필요성 등에 대해 논의

□ 논의 배경

- 2010.9.20~22, 뉴욕 UN총회에서 “MDGs 정상회의”가 개최되어 통계역량강화 등 MDG 목표에 관한 제65차 유엔 고위급총회 보고서 채택에 대해 재확인함
- MDG 중 통계역량발전과 관련된 사항은 1)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인구통계 등 신뢰성 있는 시의 적절한 통계 생산 역량 강화 2) MDG 지표에 대한 적절한 모니터링을 위해 국가통계역량을 강화, 3) 개도국 통계역량 강화 지원, 4) 국제사회 지원을 포함한 국가차원의 모니터링과 점검을 강화, 5) 보건서비스에 대한 성인지 통계의 활용 지원 등임
- 2006.6월 경제사회이사회에서 개도국에 대한 통계역량강화를 결의한 바 있음. 또한 세네갈 Dakar선언('09.11월)에서도 통계발전에 관한 결의하고 향후 5년간('10~'14년) 통계발전 계획 실행에 대해 논의함
- 유엔통계처도 유엔총회 및 경제사회이사회 결의에 의해 '06년 이후 다양한 개도국 통계역량강화 사업을 추진 중

□ 유엔통계처의 통계역량강화 프로그램

- 유엔통계처는 통계생산과정의 적정성과 질적 향상을 통해 국가통계시스템 강화를 목적으로 통계역량강화 사업을 추진 중
- 이를 위해 UNSD 직원과 컨설턴트들은 자문서비스, 교육워크숍, 세미나, 국제회의, 연수방문 등을 통해 국가통계공무원에 대한 전문지식/기술 전수를 실시 중 (사후평가도 실시)
- 통계역량강화 활동의 효과측정은 매우 복잡하고 교육훈련의 경우 즉시 효과보다는 장기적 관점에서 봐야함. 이에 반해 특정 프로그램 도입에 관한 기술지원은 매우 직접적인 효과가 있음
- 또한 UNSD는 개도국 통계공무원이 세계은행, IMF 등에서 3~6개월간 직무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선발하고 장학금도 지급
- UNSD는 다양한 통계분야와 지역별 교육워크숍 및 연수방문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지식전수 및 인적 네트워킹을 확산하고 있음

□ 2006·2010년 기간 통계역량강화 활동

- 동 기간 UNSD는 총164회, 7,938명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워크숍, 전문가회의, 세미나를 개최함. UNSD가 지원한 개도국 공무원의 연수방문은 동기간 총 97회, 726명이 참여함
- 워크숍 등을 주제별로 분류하면 i)경제무역·환경통계 분야('07년 18회), ii)인구주택센서스 분야('07년 7회), iii)MDG 지표·성인지통계·정보서비스 분야('07년 10회)로 구분됨
- 워크숍 참가자 평가결과는 '08년 4.2점/5점 만점, '09년과 '10년은 각각 4.3점/5점으로 대체적으로 만족수준이 높음
- 또한 참가자 90%가 회의자료를 일상 업무에 활용하고, 70%이상은 회의결과중 하나 이상을 실행한다고 언급. 또한 60%이상은 자국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 적이 있으며 60%는 다른 참가자와 연락중이라고 언급함으로써 통계역량강화에 있어 협력활동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음

□ 통계역량강화 활동의 주요 내용(Statistical capacity-building activities)

① MDGs 지표

- UNSD는 최근 MDG지표 모니터링을 위한 데이터 개선 역량강화 사업을 실행하였으며, '08~'09년 성공적인 시험을 거쳐 '10년부터 아시아와 아프리카 본격 실시됨
 - 이를 통해 향후 각국에 MDG 통계 포털을 구축하고 이 데이터는 UNSD의 UNdata 포털에 전송될 것임
 - UNSD는 MDG지표의 국내자료와 국제자료간의 불일치 해소를 위해 다양한 워크숍을 개최
 - '08년 : Kampala회의 (우간다, 아프리카 국가 대상)
 - '09년 : 방콕회의(아시아 국가), 베이루트(중동국가 대상)
 - '10.11월 : 제네바회의(CIS국가)
- * 예정 : 코스타리카 회의(중남미 국가), 카이로 회의(중동 및 북아프리카 국가대상)

② 인구주택센서스

- '06년이후 UNSD는 2010 인구주택센서스를 위한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추진함
 - '06년 : '인구주택센서스 기본원칙 및 권고사항'을 확정하고 기술지원을 위한 온라인 센터 설립
 - '07년 : GIS, GPS와 같은 신기술 및 센서스 지도에 중점
 - '08년 : 센서스데이터 처리 및 광학기술 적용
 - '09년 : 센서스 평가 및 사후 내검조사
 - '10년 : 데이터 분석 및 정보서비스
- '06~'10년 UNSD는 센서스관련 33개 워크숍 및 6개 전문가회의를 개최하여 개도국 센서스 실시 지원하고 '센서스 기본원칙 및 권고사항'을 발간
- UNSD는 5~6개 개도국의 센서스 실시에 대해 직접 기술지원을 하고 웹사이트도 운영함

③ 성인지 통계

- UNSD는 2010년에 '세계 여성 19 - 경향과 통계'를 발간하고 성인지 통계에 관한 국제회의를 3차례 개최('07년 로마, '09년 아크라, '10년 마닐라)
- 또한 성인지통계 개선을 위한 통계역량강화 프로그램도 추진하였으며, 세부내용은 i)비공식 부문 고용에서의 성인지 통계 생산역량 강화, ii) 여성폭력 측정, iii)성인지 통계의 서비스, iv)MDG 양성평등 목표 측정을 위한 성인지 통계의 필요성 등임

④ 경제 · 교역통계

- '06~'10년간 유엔통계위원회는 2008 SNA를 채택하고 경제통계에 관한 새로운 국제표준안(국제표준산업분류 4차 개정, 중앙생산물 분류 2차 개정 등)을 마련하고 회원국에 실행권고 및 개도국 역량강화를 지원함
- 경제통계에 관한 다양한 교육워크숍을 실시하였으며 2008 SNA에 관한 세미나도 3차례 개최됨
- 교역통계에 관한 IMTS* 워크숍도 수차례 개최('10년 잠비아 등) 또는 예정('11.2월초 제네바)이며, 관광통계에 관해서는 개도국에 직접 기술 지원 하였음

* International Merchandise Trade Statistics

⑤ 환경 · 에너지통계

- 환경지표는 UN환경프로그램 협력하에 서아프리카국가 경제연합체 중심으로 개발되고 있으며, UNSD는 환경통계 프레임워크 개정 및 핵심지표 개발을 추진 중이며 이는 2012년 통계위원회에서 채택계획임
- 환경계정에 있어 통계위원회는 수질 환경경제통합계정(SEEA-Water)을 과도기 국제기준으로 채택('07년)하고 수질통계 국제권고안을 마련('10년)한 바 있음. UNSD도 이에대한 다양한 기술지원을 실시함

* SEEA : System of Environmental-Economic Account

- 또한 UNSD는 에너지통계 국제회의를 '08년 멕시코에서 개최하여 개도국에 대한 역량 등에 대해 논의함

⑥ 자료관리 및 배포

- '10년말부터 UNSD는 개도국의 통계서비스 능력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새로운 Development Account 프로젝트를 추진 중

⑦ 지리정보 서비스

- 작년 유엔통계위원회는 세계지리정보 관리(Global Geographic Information Management)를 새로 채택·사업 추진함
 - 국가(national)-권역(regional)-세계적(international) 차원의 지리정보 관리에 관한 모범사례 확산
 - 효과적인 지리정보관리 역량 구축 방안(특히 개도국 대상) 등
- 제1차 UN Forum on Global Geographic Information Management 국제회의에 개도국 참가자를 지원할 예정
 - 일시장소 : 2011.10.25~28, 서울 개최

⑧ 국가통계시스템 발전

- UNSD는 통계법령, 조직관련 이슈 등 국가통계시스템 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도 많은 지원을 하고 앙골라 회의(남부아프리카발전공동체), 스리랑카 회의(남아시아 발전공동체)에 자문단을 파견·지원한바 있음

□ 향후 지원프로그램

- UNSD는 향후에도 성인지통계, 경제통계, 환경통계, 센서스 등을 중심으로 한 통계역량 강화 지원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나 '자금'이 관건임
 - 중국, 이태리, 한국, 스웨덴, 영국, 세계은행 등 지원에 감사
- UNSD는 교육센터에서 외국공무원 뿐만 아니라 자국 공무원 역량강화 활동도 환영하여 이는 SIAP활동을 보조하는 것임
- 최근 UN프로그램에 협조한 중국 국제통계교육원 설립을 환영하며 인도네시아, 한국, 멕시코 교육센터 등이 역량발전 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음

통계역량강화에 관한 의견

(통계청 국제협력담당관실)

□ UNSD의 통계역량 강화 프로그램에 동의

- 한국통계청은 UNSD를 중심으로 한 개도국 통계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노력과 향후 계획에 동의하며, 이에 대한 적극 지원의사를 표명함
- 또한 UNSD가 한국의 UNSIAP 공동연수 과정을 개도국 통계역량 강화 사업의 일환으로 소개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 한국통계청의 개도국 역량강화 지원노력

- 그동안 한국통계청은 책임 있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개도국 통계역량 강화를 위해 매년 KOICA 통계연수과정 운영, SIAP 과정, 개도국 초청 연수 등 다양한 지원활동을 전개하여 국제사회에 기여하여 왔고 '09년 OECD 개발원조위원회에 가입을 계기로 이런 노력을 배가하고자 함
- 특히 앞으로는 UN, 세계은행 등 국제기구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개도국 역량강화 프로젝트에 적극 참여하고, KOICA의 공적개발원조(ODA) 자금을 활용한 개도국 기초통계역량 강화도 중점 지원할 계획임

Comment on Statistical Capacity-building

□ Capacity Building Programme of the UNSD

- KOSTAT agrees with the efforts and plans to strengthen the statistical capacity in developing countries organized by the UNSD, and strongly supports them.
- We are grateful to the UNSD for denoting the training program provided by UNSIAP and KOSTAT at the Statistical Training Center in Korea as a capacity building activity for developing countries.

□ Efforts made by Korea to strengthen statistical capacity in developing countries

- Statistics Korea has been making contributions to the international society through various supportive activities including its management of the statistical training courses for KOICA and SIAP, and invitation of trainees from developing countries as a responsible member of the OECD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 We are planning to participate actively in the capacity development projects promoted by international organizations including the UN and World Bank, and emphatically support capacity development for basic statistics utilizing the ODA fund of KOICA.

19: 21세기 발전을 위한 통계 파트너십(PARIS21) 보고서

(Report of the Partnership in Statistics for Development in the Twenty-first Century)

주요 논점

- ◇ 2010년 PARIS21의 추진경과 보고
- ◇ 향후 PARIS 사업 추진방향 보고

□ 논의배경

- PARIS21은 개발도상국의 MDGs 작성 및 국가정책을 위해 필요한 국가 통계발전전략(NSDS)의 계획, 실행 및 평가를 지원하고 있음. 동 보고서는 2010년 PARIS21의 추진경과를 보고하고 향후 계획을 발표하기 위함

□ 2010년 사업 추진경과

- PARIS21은 ①국제통계 의제에 관한 관련 기관간 조정(Coordination), ②통계발전을 위한 국제사회 동참 독려(Advocacy), ③국가통계발전전략(NSDS)의 효율적 실행 증진, ④효율적 데이터 활용 촉진(Knowledge for Statistics) 등 4개 사업영역을 통해 각국 NSDS를 지원함
- 국제통계 의제에 관한 기관간 조정(Coordination)
 - 2010년 PRESS(Partner Report on Support to Statistics) 보고서*를 통해 2008-2010회기간 PARIS21의 통계협력 현황 보고
 - * 파트너기관들의 재정·프로젝트성 지원에 대한 보고서로 2008년 첫 발간
 - 아프리카와 아시아는 PARIS21 사업의 가장 큰 수혜지역이며, 2009년도에 비해 아프리카의 비중은 감소하고(52%→45%), 아시아 비중 확대(17%→31%)
 - 3개 기관(EC, Worldbank, 영국)이 전체 공여 중 62%차지
 - NSDS의 효율적 실행을 위해 수혜국 내 관련 기관간 파트너십 구축 지원

- 통계발전을 위한 국제사회 동참 독려(Advocacy)
 - 개도국 17개국에 국가 통계 시스템 구축과 전략 계획 설계를 촉진하는 홍보물 제작 및 세미나 개최 등 지원
- 국가통계발전전략의 효율적 실행 증진(NSDS)
 - 33개 국가의 동료평가(peer review) 지원 및 3개 지역협의체(동아프리카, 중앙아프리카, 동캐리비안지역) 활동 지원
 - IDA수혜국, 소득중하위국, 아프리카 국가 등 117개국 대상 NSDS 설계 및 이행 관련 보고서 발행(2010.11월)
 - 대부분의 국가가 NSDS의 도입 및 실행 중에 있으나, 분쟁지역 및 소도국가 일부(11개국)는 NSDS 전략이 전무함
- 효율적 데이터 활용 촉진(Knowledge for Statistics)
 - PARIS21은 데이터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개도국대상 ①자료개선프로그램(Accelerated Data Program, ADP)과 ②국제가구조사 네트워크(International Household Survey Network, IHSN)를 운영
 - ADP : 54개국에 마이크로데이터 관리 및 활용을 위해 기술 및 재정 지원하고 일부 국가에는 데이터 품질 평가 및 조사방법 개선 지원
 - IHSN : 마이크로데이터 관리 툴 개발 및 메타데이터 관련 기준 및 가이드라인 개발

□ 향후 PARIS 사업 추진방향

- 다카르선언의 이행 및 점검 지원
- 지역 회의* 및 워크숍 개최 지원
 - * Fifth Forum on Statistical Capacity Building for Arab Countries
- NSDS 가이드라인의 현행화 및 개선
- UNESCO와 협력하여 아프리카 지역에 교육통계 개발 지원
- 국가 및 지역차원의 NSDS 활동지원 및 2011년 PRESS 보고서 발간

PARIS21 보고서에 관한 의견

(통계청 국제협력담당관실)

□ 검토의견

- 우리청은 PARIS21에 이사국으로서 참여하여 개도국 발전을 위한 협력 사업에 적극 참여할 예정
 - 우리청은 PARIS21 사업대상지역이 아시아로 확대되는 것을 바람직하게 생각하며, 지리적 근접성 등의 강점을 토대로 적극 협력 예정
 - 또한, PARIS21 활동에의 참여를 통해 우리청의 아프리카 개도국에 대한 지원 발판을 마련하고자 함

Comments on the Report of PARIS 21

- Statistics Korea (KOSTAT), as a member of the Board of PARIS21, is planning to participate actively in various cooperative projects for the improvements of developing countries.
 - We recommend that PARIS21 extend its supports to Asia, and KOSTAT will strongly cooperate with the Partnership through its geographical strengths in Asia.
 - We anticipate that our participation in the activities held at PARIS21 will provide a starting point to support developing countries in Africa.

20 : 서아시아의 지역통계개발에 관한 서아시아 경제사회위원회의 보고서

(Report of the 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Western Asia on regional statistical development in Western Asia)

주요 논점

- ◇ 서아시아 지역에서의 통계발전에 관한 과제
- ◇ 지역에서의 공식통계의 제도적 개발

□ 개 요

- UNSC는 지역위원회의 담당지역에 대한 순번형식(rotating basis)의 논의 주제로서 제42차 통계위원회에서는 서아시아지역을 다루기로 결정함
- “증거기반(evidence-based) 정책결정을 위한 통계”의 제목으로 서아시아 경제사회위원회(ESCWA) 업무프로그램이 집행됨
- ESCWA는 기술면에서 동일한 이슈를 가진 다른 기관들과의 기술협력 프로젝트를 추진했으며 2010년 9차 회의 때 2011년을 목표로 통계 개발을 위한 중기적(mid-term) 전략적 비전설립을 시작함

□ 서아시아 지역에서의 통계발전에 관한 과제와 우선순위

- 공식통계의 우선순위
 - 주요 기술의 실행, 통계데이터베이스의 일치, 빈곤측정, 비공식적 분과에서의 인구통계, 환경 및 농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역량강화
 - 데이터 수집을 위한 연구, 통계배포의 접근, 지리학적 정보이용의 확장, 국가통계국에서 사용된 분류체계 통일
 - 회원국간의 통계협력은 광범위하게 활용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UN기구 및 통계기구의 통계업무에서 특수화된 매커니즘 및 업무 방법에 관한 협력을 강화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음

□ 지역통계발전의 중점 지역

- ESCWA 통계위원회의 목적은 통계의견교환의 중점역할, 전문가교환 촉진, 통계역량격차와 우선순위 정의, 국가통계국 전문 스태프들과의 협력, 증거기반 정책결정을 위한 주요 기관으로서의 역할 등임
- 국민계정시스템의 실행
 - 지난 몇 년간 국제기구들은 2008년 SNA에 대한 인지도 향상을 위해 전문가, 사용자, 정책결정자들을 위한 기술 워크숍을 개최함
 - ESCWA의 회원국에서의 SNA실행현황에 관한 조사에서 계정의 철저함 부족, 시가(current prices) 평가부족, 가계부분의 부적절한 정의, 고정 자본소비평가의 부족 등이 결점이 드러남
 - 2008 SNA 실행의 진행을 위해서는 연별 정규평가실시, 국가통계역량 평가, 소지역지원 워크숍추진, 교육워크숍 및 전문가그룹회의 실시, 재정지원, 기술지원 미션제공 등의 활동에 착수해야 함
- 2010년 7월 베이루트 회의에서 NSO 기관장들이 관리구조 및 기금 조성에 관한 의견을 교환했으며 이어진 워크숍은 2011년 ICP라운드의 출발점이 됨
- UN 및 국가별 자료에 격차가 있는 인구통계자료 향상을 위해 ESCWA 통계위원회는 태스크포스를 구성하여 인구 및 가구센서스에 관한 세계 프로그램 실행을 지원하고 데이터분석, 과학적 연구준비, 배포의 다양화, 국제기구 초청 등의 노력을 기울임
- 사회통계, 지수 및 성인지 통계, 환경 및 에너지통계의 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워크숍 주최(사회통계), 데이터베이스 개발(성인지 통계), 국제 기준 도입(환경통계) 등의 노력을 기울임
- UNSD와 국가자료 간의 불일치는 2010년 59%의 데이터 포인트로 나타나 ESCWA 통계국에 문제인식을 요구했으며, 부산에서 열린 제3차 OECD 세계포럼에서 위기 시 통계모니터링에 대해 발표함

□ 지역통계조정 과제

- 다양한 지리학적 정의를 특징으로 하는 서아시아 지역에서 지속적인 데이터에 대한 신뢰성확보를 위한 노력, 통계역량강화를 위한 효율적성 확보
- 국제 및 지역기구는 다양한 부처와 중앙통계국 간의 통계적 통합 및 지속적 통계결과 획득을 위한 조정 매커니즘 개발 지원이 필요

□ 지역별 공식통계의 제도적 개발

- ESCWA 해결방안에는 국제기준 도입, 기본원리 수용, 신뢰성 확보 등 국제비교를 위한 고품질통계 생산 대책 및 PARIS21 회의에 따른 회원국들의 국가전략 수립 및 이행요구를 포함
- 대부분의 회원국은 6-8개 원리를 실행, 14개국은 국가전략을 수립
- ESCWA 통계위원회는 IMF가 정한 데이터 배포기준의 중요성을 강조하였고 UAE, 바레인, 이라크, 요르단이 특별데이터배포기준에 동의

□ 향후 방향

- 2010년 10월 9차위원회에서 ESCWA 통계위원회의 권고사항은; 회원국으로의 전문가제공, 이용가능한 자원에 대한 우선순위결정, 교육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 통계의 새로운 기술, 국가통계시스템 강화 등임
- 데이터품질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ESCWA는 데이터수집 조정을 집중화해야 함
- 통계위원회의 실행모드는 통계업무프로그램을 더 체계적으로 하기 위한 권고사항과 함께 자문전문가 보급, 수요정의, 통계업무의 전략적 비전 논의 등을 포함

VII . OECD 의장단회의 의제요약 및 코멘트

목 차

시간	안건	의 제	의견검토담당
14:00 14:05	I	개회 및 안건 채택 (1)	
14:05 14:30	II (1) (2) (3)	전차회의 후속 조치사항 · 신뢰성측정관련 전자토론그룹 보고 * [보고서 미완료 추후 서면처리] · CSTAT 평가절차 2011-2012 · 향후 CSTAT 회의 시기 및 기간	
14:30 14:45	III (4)	CSTAT 국제관계전략 업데이트 · 사무국 보고	
14:45 15:00	IV (5) (6)	마이크로데이터 접근관련 새로운 접근법 제안 · 배경 정보: 데이터 기밀보호 조사 결과 · 마이크로데이터 접근관련 새로운 접근법 제안	정보서비스팀 정보서비스팀/ 행정정보팀
15:00 15:15	V (7)	부가가치거래 측정 - OECD 프로젝트 · 사무국 보고	한국은행
15:15 15:45	VI (8)	CSTAT 2011 의제 최종 승인 · 6월 CSTAT 회의 아젠다 초안	-
15:45 16:00	VII (9)	기타 안건 · 유럽통계시스템 개발관련 업데이트 (구두발표) · 두 전문가그룹 임명 및 ToR관련 업데이트	-
16:00 16:15		Coffee break	
16:15 17:00	VIII (10)	녹색성장지표 발행관련 업데이트 · 사무국 보고	연구기획실
17:00 17:45	IX (11)	발전측정지표 발행관련 업데이트 · 사무국 보고	연구기획실 고용통계과

1 : CSTAT 평가 절차 2011-2012

주요 논점

- ◇ OECD내 자체 위원회에 대한 성과 평가를 위해 심화평가 실시
- ◇ 관련성, 효과성, 효율성 기준에 따라 위원회의 회원국 필요에 대한 대응성, 사업 계획 및 이행,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평가

□ 위원회에 대한 성과 심화평가(in-depth evaluation process, IDE)

- OECD 내 위원회의 성과 검토 차 2005년 개시
- 회원국 필요에 대한 대응성, 사업 계획 및 이행, 업무처리 효율성 면에서 위원회 성과에 대한 평가가 실시됨
- 동 평가는 평가위원회(이사회 자문기구) 책임 하에 관련성, 효과성, 효율성 기준에 따라 OECD 위원회 성과 평가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자료를 사용하여 실시됨

□ CSTAT 평가

- 사무국이 의장단 회원국에 평가절차의 시기 및 방법을 통지할 예정
- 의장단 회원국 유념사항
 - '11년 말부터 '12년 가을에 걸쳐 평가가 실시될 예정
 - 현 심화평가절차의 숙지 필요

현 심화평가절차

- '04년 이사회에 의해 수립된 일반원칙은 심화평가 메커니즘이 평가가 가능한 한 객관적이고, 엄격히, 신뢰성을 보장하도록 요구함
- 질적/양적 분석을 위해 다양한 자료가 평가를 위해 사용되는데, 이는 평가위원회가 5~6년에 걸친 위원회 성과를 평가할 때 사용함
- 회원국 필요에 대한 대응성, 사업 계획 및 이행, 업무처리 능률성 면에서 위원회의 다차원적 평가를 실시할 때 관련성, 효과성, 효율성이 기준을 제시함
- 평가위원회 평가결과는 평가과정동안 수집되고 분석된 사실과 의견을 기반으로 공동평가(collective judgement)로 얻어지고 3개의 평가 기준에 따라 등급시스템으로 압축됨
- 최적의 결과는: (**관련성**) 회원국 필요에 대해 위원회가 얼마나 적절히 대응하고 있는지와 관련하여 높이 평가받을 때, (**효과성**) 위원회의 사업이 회원국의 정책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가 중대하고, 동 영향이 위원회의 목적에 부합하고, 장기적인 정책변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을 때 (**효율성**) 위원회의 기능성 및 사용된 자료와 생산된 결과의 관계 면에서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때
- 분석과 결론이 완료되면, 평가위원회는 성과를 개선하려는 노력으로 평가를 받은 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권고안을 합의함. 동 권고안은 실행가능성과 유용성 면에서 위원회의 대표들에 의해 논의되어지며, 이사회 제출 전 평가보고서 토론 시 집행위원회에 의해 추가적으로 조정됨
- 평가대상 위원회의 후속조치 이행 정도는 평가위원회에 의해 12 개월에 걸쳐 모니터닝됨

2 : 향후 CSTAT 회의 시기 및 기간

주요 논점

- ◇ 향후 CSTAT/UNECE 회의 기간 및 시기 조정관련 논의 필요
- ◇ CSTAT/UNECE 의장단 회의 기간 및 일시관련 논의 필요

□ CSTAT 회의 개요

- CSTAT 회의는 매년 UNECE 회의와 함께 6월에 제네바와 파리를 오가며 개최
- CSTAT 회의기간은 비공식적으로 오찬동안 이뤄지는 **CSTAT 의장단회의 포함 1.5일이며, UNECE 회의는 2.5일임**
- 지난 6월 UNECE 회의는 1일 간의 UNECD 의장단 회의 추가로 인해 3.5일에 걸쳐 개최됨

□ CSTAT 회의기간관련 제안

- 지난 6월 CSTAT 의장단회의에서 의장은 CSTAT 회의기간 및 회의 시기와 관련 재논의의 필요성을 제기
- 의장단 회원국은 사업논의를 위하여 점심시간을 활용한 회의보다는 반일짜리 의장단회의의 필요성을 제기
- OECD 사무국은 지난 6월 UNECE 의장단 회의에서 동 문제를 상정
- CSTAT 의장단국은 2월 회의에 동 제안을 검토 후 의견 제시 필요

□ UNECE 의장 의견

- UNECE 의장은 2월 의장단 회의를 영구적으로 6월로 옮기길 요망하며 회의는 다른 국제회의와 겹치지 않게 6월 상순경에 실시하는 것으로 의견 개진
- 회의기간은 2일간의 총회, 1일간의 의장단 회의로 하며, 동 기간의 실시는 '12년 회의부터 실시하는 것으로 제안

□ CSTAT 의장 의견

- CSTAT 회의와 UNECE 회의를 같은 기간에 제네바와 파리를 오가며 같은 장소에서 개최하자는 의견에 동의
- 각 회의에 **2.5일씩** 할당하고 **CSTAT 의장단회의에 반일** 배정 제안
- 2년짜리 사업 및 예산계획을 위하여 격년으로 파리에서 개최되는 **CSTAT/UNECE 회의는 4월 말이나 5월 초에** 실시하는 것을 고려
 - 즉, '11년 회의는 제네바에서 6월에 개최하지만, '12년 회의는 파리에서 4월 말이나 5월 초에 개최

□ 2011년 과도기적 방식

- CSTAT 사무국과 UNECE는 동 사항에 대해 비공식적으로 논의를 해왔으며 회원국을 위한 최상의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하여 공동연구를 실시하기로 함
- **UNECE 총회는 6월 14일 오전부터 16일 점심까지** 개최하고, **CSTAT 회의는 16일 점심부터 17일 오후(5:30)까지** 실시하는 것으로 제안
- **CSTAT 의장단회의는 금요일 만찬시간을 포함하여** 개최하고, UNECE 의장단 회의는 18일 토요일에 추진 예정

3 : CSTAT 국제관계전략 업데이트

주요 논점

- ◇ 기존의 CSTAT 국제관계 관련 활동 요약
- ◇ CSTAT 국제관계를 위한 전략의 업데이트 내용 정리

□ OECD 확장과 아웃리치 역사 개관

- 2004년 OECD 이사회는 위원회에 아웃리치 전략을 개발하도록 요청했으며 2010년 5월에는 브라질,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남아프리카 등 참여 강화국(EE5)이 OECD의 협력 강화를 위해 각료이사회(MCM)에 참석함
- 사무총장은 이들 국가의 발전 행보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지하는 데 선행적(proactive) 역할을 요청함
- 이사회는 OECD위원회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수용하여 국제관계 전략이 OECD의 우선순위를 적절히 반영하도록 하고, EE5개국의 적극적 참여 확인 및 특별(ad-hoc)관찰자의 참여 권장 등을 포함함

□ CSTAT과 STD의 국제관계 활동

- 비회원의 참가를 위한 기존 위원회 전략은 모든 국가로부터 생산된 통계의 이용가능성, 품질, 비교가능성 증진을 목적으로 수립되었음
- 2005년에서 2010년 간 CSTAT와 STD 아웃리치
 - 브라질은 2011년 OECD 데이터베이스 포함을 위해 현재 국민계정과 인구 질문지를 완성중이며 기타 도메인에서의 데이터제공을 약속함
 - 중국은 CSTAT의 특별(ad-hoc) 관찰자로서 참석해 왔으며, OECD는 MEI 자료와 팩트북(factbook) 외에 중국의 데이터를 국민계정 DB에 포함시키기 위해 중국통계국과 협력함
 - 인도 국가통계위원회는 CSTAT의 공식 관찰자이며 2012년 세계포럼 주최 예정임

- 2010년 처음 CSTAT의 특별(ad-hoc) 관찰자로 참석한 인도네시아 통계청(BPS)은 2009 부산 OECD세계포럼에 참석함
- 공식 관찰자인 남아프리카는 정기적으로 위원회 회의에 참석했으며 2010년 OECD, World Bank와 함께 “통계지식전환혁신세미나”를 개최

□ CSTAT를 위한 국제관계 업데이트

- 업데이트는 대상국가에 대한 더 명확한 인식과 중장기적 결과도출을 위한 공개적 활동을 추가하여 기존 문서를 토대로 작성되며, 위원회 사무국으로부터의 적극적 지원을 요구함
- 고품질, 비교가능 통계의 포함, EE국가의 통계개발기준의 이해, 유사 통계방법 수용지원, OECD 통계연계 추진, 국제 기준과의 조화, EE국가 전략의 G20 확장을 목적으로 함
- 이 목적들을 추구하기 위해 CSTAT 전략은 국가통계국장들과 STD 고위공무원 간의 긴밀한 관계 증진, 통계프로그램의 목적 및 구조에 대한 상호이해, “파트너 회원국” 프로그램을 강화해야 함
- 또한 EE국가들의 국가통계국과 통계 수집을 위한 연계를 수립하고 비교가능성을 결정해야 하며 EE국가들의 통계가 OECD회원 통계의 범위, 품질, 비교가능성과 조화를 이루도록 장려해야 함

4 : OECD의 자료 보안 및 비밀보호 원칙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주요 논점

- ◇ 자료 보안 및 비밀보호에 대한 설문조사한 결과를 정리
 - OECD 회의에서 참고자료로 배부

□ 개요

- OECD 회원국(23개국), Eurostat 및 European Central Bank를 대상으로 자료 보안 및 비밀보호 측면에서 각 국가의 법과 OECD원칙에 대해 설문하였으며 그 결과를 회의(2011.02.24) 자료로 배포

□ 설문결과 요약

- 총 4개의 문항으로 되어 있으며, 자료 보안 및 비밀보호와 관련하여 (1) OECD원칙에 대한 의견, (2) 자료 제공여부, (3) 법적 근거, (4) 자료를 접근할 수 있는 방법 등으로 구성
- 각 국의 답변 주요내용
 - 자료의 비밀보호와 관련하여 대부분의 국가는 OECD의 법적 틀이 적절하다고 판단
 - 제삼자에게 자료를 비제공(연구목적 포함)한다는 OECD의 약속이 프레임워크에 추가되어야 함
 - 자료는 기본적으로 익명화가 이루어져야 함
 - 모든 국가는 연구목적인 경우 자료접근을 허용하나, 외국 단체에 대한 자료제공은 제한하며 때때로 금지하기도 함
 - 많은 국가에서 마이크로데이터 원격접근시스템을 운영하거나 구축을 계획하고 있음

5 : 마이크로데이터 접근

주요 논점

- ◇ 마이크로데이터 접근과 관련하여 전문가 그룹 설립에 대한 논의 및 운영규정 검토

□ 개요

- OECD는 법적 규정을 따르면서, 국가간 마이크로데이터 접근 향상을 위해 현재 세 가지 측면에 대해 노력하고 있음
 - 본 의제는 (1)경제활동인구조사 접근, (2)국가별 기업명부 및 기업DW 접근, (3)전문가 그룹 설립에 대해 논의가 필요

□ 그 간의 추진내용

- 마이크로데이터 원격접근 관련 워크숍 실시(2009.6.)
- 마이크로데이터 접근성에 관한 전반적인 조사 수행(2009.9.)
- 경제활동인구조사 마이크로데이터 접근 관련 타당성 검토를 위한 설문지 작성(2010.2.)

□ 회의 의제(요약)

(1) 경제활동인구조사 접근

- OECD 통계국에서는 사회 분야 마이크로데이터에 대한 국가간 분석 및 비교를 위하여, 각 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마이크로데이터 원격 접근 환경 구축 프로젝트 추진 중
 - 2010년 초에 타당성검토 진행하여 2010.11월에 완료하였으며
 - 이 프로젝트의 다음 단계는 (i)프로젝트 실행단계 진행을 위한 자금확보, (ii)프로젝트에 관심을 표명한 통계청과의 업무연락, (iii)통계노출관리 기법에 대한 연구가 포함

(2) 국가별 기업명부 및 기업DW 접근

- 대부분의 국가에는 기업명부가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혁신성장기업이란 신규지표에 대해 OECD와 Eurostat은 심층평가를 실시 중이며 3월에 참가국들과 합의예정
- 기업명부가 없는 OECD 국가(특히, 한국과 일본)는 현재 구축 중

(3) 전문가 그룹 설립

- 마이크로데이터 접근 워크숍*과 참가국간의 자문결과에 따라 OECD 전문가 그룹 설립 제안
- 마이크로데이터 접근관련 OECD 전문가그룹 설립 제안을 검토하고 운영규정 초안에 대한 검토

- * 국제수준의 마이크로데이터 촉진방안을 논의(호주 통계청 주관으로 2회 개최)
- ※ 운영규정 초안은 호주 통계청이 준비하였고, 현재 이 그룹의 일부 구성원 국가(호주, 캐나다,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뉴질랜드, 영국, 미국)가 승인
- ※ 운영규정(요약) : 본문은 【붙임】 참조

**마이크로데이터 국제공조를 위한 OECD 전문가그룹
- 운영규정제안서-**

1. 목적

- 마이크로데이터의 국가간 접근 향상과 마이크로데이터 분석 촉진을 위해 각국 통계청이 공조하여 실용적 방안 마련

2. 업무

- 국제 마이크로데이터 접근 촉진 및 향상
- 마이크로데이터 접근 현황 검토 및 다음과 관련하여 새로운 방안 개발·시행
 - 위험평가 원칙 등 개념상의 문제
 - 국내 및 국제 마이크로데이터 접근 표준 및 절차
 - 국제 마이크로데이터 촉진을 위한 기술적 해결방안
 - 메타데이터를 포함해서 마이크로데이터 접근을 위한 행정적 필수요건

3. 회원 및 조직구성

- 회원은 각국 통계청, OECD와 교류하는 국제기구 및 비회원국의 전문가로 구성
- 의장직은 순번제 혹은 전문가 그룹의 합의에 따름

【붙임】 전문가 그룹 운영규정

마이크로데이터 국제공조를 위한 OECD 전문가그룹 - 운영규정제안서

1. 목적

1. OECD는 국제 비교 가능 통계를 공유할 때 OECD 회원국, 비회원국 및 기타 국제기구와 긴밀하게 협조하며, 분석 및 의사결정을 위한 정보기반을 창출한다. 이러한 정보기반의 형성과 접근제공에 있어서 최우선원칙은 어떤 경우든 개별 답변의 비밀보호와 자료 공여자가 정보를 제공할 때 가지는 신뢰를 유지해야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OECD와 전 세계 많은 통계청은 마이크로데이터 접근을 권장하고 개선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국내 및 국제 마이크로데이터의 활용, 이해 및 관련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로써 마이크로데이터 접근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는 환경에서 통계청 자체의 관련성이 향상될 것이다.

2. 이와 같은 맥락에서, 연구원 및 정책 입안자 요구를 고려하고, 각국의 법적 필수요건을 고려하면서, 마이크로데이터의 국가간 접근 향상과 마이크로데이터 분석 촉진을 위해 각국 통계청이 공조하여 실용적 방안 마련을 위한 협조 촉진을 목적으로 전문가 그룹을 설립할 것을 제안한다. 이 전문가 그룹은 동일 목적으로 2009년 형성된 비공식 “파리 마이크로데이터 그룹”을 대신할 것이다.

이는 다음에 의해 가능할 것이다.:

- 최상의 관행을 채택하고, 공동의 이해를 촉진하고, 업무 중복을 최소화하기 위해 각 기관과 기타 전문가 그룹사이의 조율 및 의사소통 증진
- 전문가 그룹의 노력과 기타 전문가 그룹 및 현업 전문가의 조언을 바탕으로 Chief Statisticians에게 조언 제공 및 권고안 마련
- Chief Statisticians의 위탁 업무 추진
- 문제 제기를 위해 기타 국가나 기타 전문가 그룹을 대상으로 포럼의 장 마련
- 비밀보호제약을 존중하면서 통계목적으로 통계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마이크로데이터에 대한 효과적인 국가간 통합 접근 확립
- 실제 자료 파일로 실용적 실험 실시

3. CSTAT는 전략적 개발에 필요한 협조적 국제 리더십을 제공할 것이다. 그러므로 CSTAT가 권고안 이행에 적극 관여하고, 기꺼이 이행을 고려하는 것이 이 그룹의 작업에 중요하다.

4. 또한 전문가 그룹이 기타 관련 국제 그룹과 면밀히 협조하여 마이크로데이터 접근이나 관련 주제를(예, 자료 접근 워크샵 -WDA) 논의하는 것이 중요하다. 어떤 통계청의 경우 국내 및 국제 고객과 마이크로데이터를 공유하기위한 자체 방안을 이미 개발하였다. 이러한 방법에는 이용자에 의한 직접처리(on-site) 시스템, 원격접근시스템 및 관행 등 다양하다. 또 어떤 통계청은 마이크로데이터 접근방법 개발을 시작하였다. 각국 통계청은 법규, 예산, 마이크로데이터 접근 개발관련 기술 측면에서 제약을 받는다. 마이크로데이터 접근을 위한 협조를 통해서 보다 더 전진할 수 있으리라고 희망하며, 또한 전 세계 고객에게 여러 국가의 마이크로데이터에 대한 보다 더 큰 접근을 제공하리라고 희망한다.

2. 업무

5. 전문가 그룹의 중점 업무는 OECD 네트워크, 즉 OECD와 회원국간의 네트워크 내에서, 그리고 보다 광범위하게는 비회원국 및 기타 기관의 국제 마이크로데이터 접근 촉진 및 향상에 있다. 업무중복을 줄이거나 없애기 위해, 전문가 그룹은 OECD와 마이크로데이터 접근 관련 기타 국제기구와의 협조를 촉진할 것이다. 특히 전문가 그룹은 마이크로데이터 접근 현황을 검토하고, 다음과 관련하여 새로운 방안을 개발하고 시행하는 업무를 추진할 것이다.:

- 위험평가 원칙 등 개념상의 문제
- 국내 및 국제 마이크로데이터 접근 표준 및 절차
- 국제 마이크로데이터 촉진을 위한 기술적 해결방안
- 메타데이터를 포함해서 마이크로데이터 접근을 위한 행정적 필수요건

6. 전문가 그룹의 목표는 국가간 마이크로데이터(통계조사 및 명부기록) 접근을 위한 합의된 접근법을 결정하는 것이다. 특정 데이터셋 유형을 가지고(예, 경제활동인구조사, 기업명부 자료) 그러한 접근법의 적합성을 그룹이 테스트할 것이다. 또한 회원국 및 비회원국이 앞으로 취해야할 조치 권고안을 그룹에서 마련할 것이다. 권고안은 미래방향에 대한 그룹의 견해를 반영하며, 현재의 국가간 관행차이나 견해 차이에 제약 받지 않을 것이다.

7. 매년 전문가 그룹은 통계위원회(CSTAT)에 그룹의 최근활동 검토 보고서와 다음연도 업무 추진계획 및 목표를 제출할 것이다. 이때 향후 활동 권고안, CSTAT의 채택 권고안, 필요한 경우 이행 약속도 같이 제출할 것이다.

3. 조직구성

8. 전문가 그룹은 국제 마이크로데이터 공유 목표 달성을 위한 발전방안을 포함해서, 국제 마이크로데이터 공유를 위한 미래 관행 및 표준에 대해서 OECD에(OECD 사무국, 회원국뿐만 아니라 이 그룹 회원인 OECD 비회원국) 조언을 제공할 것이다. 의장직은 순번제로 실시하거나, 전문가 그룹의 합의에 따른다. 사무국은 OECD가 마련할 것이다.

4. 회원

9. 전문가 그룹은 통계활동, 특히 상이한 방법을 통한 마이크로데이터 접근과 마이크로데이터 국제공유와 밀접하게 연루된 회원국 및 비회원국 마이크로데이터 전문가로 구성될 것이다. 그러므로 각국 통계청 및 OECD와 교류하는 국제기구(Eurostat 포함) 전문가를 그룹에 합류하도록 초대할 것이다. 비회원국, 특히 기존에 마이크로데이터 접근 워크샵에 참가한 적이 있거나 마이크로데이터 접근방안을 잘 구축한 비회원국 통계청 전문가의 참여를 권장하는 바이다.

5. 회의

10. 회의 시기와 장소는 기타 관련 그룹, 특히 CSTAT의 시기와 장소를 고려하여 정할 것이다.

검토의견

(정보서비스팀/행정정보팀)

○ 경제활동인구조사 접근

- 원격접근시스템을 구축을 통해 국가별 경제활동인구조사를 접근함으로써 세계적인 고용동향을 파악할 수 있어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판단됨
- 한국은 법(통계법 제30조, 제31조, 제33조)적인 문제로 인해 공공이용 마이크로데이터(Public Use Microdata)는 파일로 제공가능하나, 개인 식별정보의 기밀자료가 포함된 Licensed Microdata는 파일로 제공이 불가하여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

○ 국가별 기업명부 및 기업DW 접근

- 한국은 기업가정신지표 개발과 관련하여 참여를 하고 있지 않고, OECD 국가에 대한 기업명부 구축 시 법적으로 가능한 범위에서 참여 예정

Comments on Access to Microdata

- Access to the Labor Force Survey;
 - seems to be highly useful to understand employment trends in the world through the remote access system operating for the labor force survey of each country.
 - In Korea, Public Use Microdata is available as file format, binding by the law; statistics law article 30, 31, and 33. Licensed Microdata, however, has some limitations to be provided as file format due to security and private protection issues.

- Access to business register and DW of each country
 - Korea is not involved in any projects related to Entrepreneurship Indicators development at present, but plans to participate in under legal conditions, if business registers are established for OECD member countries.

6 : 부가가치 측정

주요 논점

- ◇ 기존 무역통계는 국제생산네트워크를 통해 발생하는 총부가가치를 관련국가별로 구분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내포
- ◇ OECD는 글로벌가치사슬(global value chain)을 측정하기 위한 새로운 프로젝트를 준비

□ 개요

- 세계화 진전으로 국제생산네트워크(international production network)에 의한 중간재 교역이 크게 증가
- 기존 무역통계는 국가간 재화 흐름을 총액 기준으로 기록하기 때문에 국제생산네트워크 과정에서 관련국가 사이의 부가가치(value added) 흐름을 측정하는데 한계*
 - * 재화를 수출할 때 해당 재화를 생산하는데 필요한 중간재를 수입하는 과정에서 총부가가치의 일부는 중간재 생산 국가로 이전됨
- 글로벌가치사슬(global value chain)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국가간 교역을 부가가치 기준으로 측정(measuring trade in value added)할 필요
- OECD 통계위원회(STD)는 이를 위한 프로젝트를 기획하였고, 현재 사무총장의 검토 중에 있음
 - 동 프로젝트는 국제산업연관표(international input-output tables) 편제를 포함하며, 이를 통해 부가가치 기준의 국가간 상호의존도 및 글로벌 가치사슬을 파악할 수 있는 다양한 지표 개발이 기대됨

검토의견

(한국은행)

- 동 프로젝트가 핵심 목표로 제시하고 있는 “글로벌 가치사슬의 측정”은 국가간 실질적인 경제적 네트워크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 특히, 국제 분업화가 가속화되고 FTA 등으로 국가간 무역장벽이 완화되고 있는 최근의 경향을 미루어 볼 때 국제산업연관표는 부가가치 측면의 국가간 상호의존도를 규명하는데 매우 유용함
- 다만, 프로젝트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점을 보다 신중히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제조업 분야의 국제 생산 네트워크는 주로 선진국과 신흥개발국 사이에서 빈번하게 이루어지므로
동 프로젝트의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제 생산 네트워크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OECD 비회원국을 편제 범위에 포함할 필요
 - 기존 무역통계는 거래 총액으로 집계됨으로써 편제기준이 비교적 명확하였으나, 글로벌 가치사슬 측정에 대해서는 아직 객관적이고 일관성 있는 기준이 마련되지 않았으므로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
 - 특히 동 프로젝트의 핵심 과제로 제시한 국제산업연관표 편제를 위해서는 방대한 양의 산업 및 무역 관련 자료가 필요하므로 관련분야 전문가의 협력이 요구됨
- 동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한 바는 없으나, 다행히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적극 지원하겠음

Comments on Measuring Trade in Value Added

- We expect that this project, “measuring trade in value added”, could provide some meaningful information to understand the real patterns of the trade flows among countries in the international production networks.
- In particular, the international input-output tables are very useful to investigate the interdependence among countries in terms of value added considering the ongoing globalization process.
- The following points are needed to consider when performing this project.
 - Because the offshorings between developed and developing countries are more frequent and increasing, the data coverage need to extend to non-OECD countries because of their large proportion of international production system.
 - Unlike the conventional trade statistics suggests relatively clear guides to aggregate, the definitions and statistical methods for trade in value added are not prepared yet, so more objective criteria and methods need to review sufficiently.
 - It is more effective to undertake this project in collaboration with experts in trade and industry on compilation of international input-output tables which require large sets of consistent data.
- We do not have specific considerations related to this issue, but we would like to actively involve in this project if necessary.

7 : 2011 CSTAT 회의 의제 최종 승인

주요 논점

◇ 8차 CSTAT 회의의 주제/아젠다관련 의견 조회

□ 회의 일시 및 장소 : 2011. 6. 16~ 6. 17. / 제네바

□ 잠정 아젠다 초안

	주제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젠다 초안 승인 ▪ 전차 회의록 채택 ▪ Housekeeping Announcements ▪ 의장 업데이트
2	OECD 통계국장 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차 회의관련 후속조치 ▪ 2011-12 사업프로그램관련 경과 ▪ CSTAT 평가
3	개정된 국제관계/개선된 가입전략
4	국민계정과 국제교역관련 당면 과제
5	녹색성장지표
6	러시아 가입 검토
7	이스라엘 후속조치관련 자료 검토
8	신규 시각자료배포 툴
9	발전 측정
10	보건 자료 및 보건계정체계
11	신규 회원국 업데이트
12	정보 및 기타 안건

8: 두 전문가그룹의 업데이트:

1) 가계소득, 소비와 부에 관한 미시통계, 2) 국민계정 프레임워크에서의 불균형

주요 논점

- ◇ 두 전문가그룹의 창설 목표 및 첫 회의에 관한 아젠다 정리

□ 개요

- I) 가계소득, 소비, 부에 관한 미시통계와 II) 국민계정에서의 불평등 측정에 관한 전문가 그룹이 2011-12 업무와 예산프로그램의 CSTAT 활동 추구를 위해 설립됨
- 첫 번째 그룹은 주로 개념과 방법론에 초점을 맞추고, 가계자산에 관한 측정과 자료 수집을 기준 정의와 가계소득, 사회이전현물, 소비, 부의 미시자료 통합을 위한 프레임워크 제안을 목표
- 두 번째 그룹은 SNA 가계 계정의 세분화의 관점에서 국민계정총계 (aggregates) 관련 불평등에 관한 정보제공을 위하여 가계경제자료에 관한 거시와 미시 통계의 통합증진에 초점을 맞춤

□ 가계소득, 소비와 부에 관한 미시통계 전문가그룹

- 이 그룹은 18개국의 통계청, Eurostat, 유럽중앙은행, 룩셈부르크소득 연구회의 전문가들로 구성되며 2011년 3월 파리에서 첫 회의가 열릴 예정임
- 회의의 아젠다는 1)전문가그룹의 기능, 2)자산통계, 3)통계 프레임워크, 4)업무계획, 실용가능업무 및 시의성 등 네 개의 세션으로 구성됨

□ 국민계정 프레임워크에서의 불평등 측정을 위한 전문가그룹

- 총 23개국과 유럽중앙은행, 룩셈부르크 소득 연구로부터의 참가자들이 참여에 동의했으며 첫 회의가 3월 파리로 개최 예정됨
- 아젠다는 1) 좌장 및 서기관, 위임사항, 업무예비계획 등의 실무적 주제와 2)국제적 배경, 3)국가 연구들(출판된 연구 혹은 추진 중 연구) 4)국제적 연구, 5)“가계경제자료에 관한 거시/미시 정보수집“의 첫단계 시작 등 다섯 개로 구성됨

9 : 녹색성장지표

주요 논점

- ◇ 녹색성장지표의 측정 프레임워크와 지표들에 대한 분석
- ◇ 녹색성장지표의 개발 및 사용 개선을 위한 향후 과제 도출

□ 개요

- 녹색성장이란 자연 자산에 양적, 질적으로 작용하는 지속 불가능한 압력을 피하면서 경제적 성장과 발전을 극대화하는 것을 의미함
- 녹색성장으로의 이동은 자연자산의 지속가능성을 손상시키는 환경적 서비스의 사용 감소를 통해 나타날 수 있으며, 정부, 가계, 회사의 환경과제에 대응하는 행동에 관한 정보는 매우 중요함

□ 프레임워크 측정

- 녹색성장지표에 대한 측정 프레임워크는 (i)생산과 소비의 환경적 효율성을 반영하는 지수; (ii)자연자산에 기초한 지수; (iii)환경적 삶의 질 관찰 지수; (iv)정책적 응답과 경제기회를 설명하는 지수로 나뉨
- 헤드라인 지표
 - 헤드라인 지표는 기후변화, 생물의 다양성 손실, 수질자원의 지속불가능한 관리, 공해에 의한 영향 등 자연자산의 관리가 가장 크게 고려되는 분야에서 시작하며, 농업 산출량에서의 경제성장 및 단기 측정가능성도 헤드라인 지표의 선택 요소가 됨
 - 헤드라인 지표는 더 광범위의 녹색성장 셋으로 대체될 수 없음이 강조되어야 함
- 생산과 소비의 CO₂ 강도
 - 국가생산량으로부터 CO₂ 방출량과 GDP의 비율은 생산의 환경적 효율성과 관련하여 가장 널리 쓰이는 지수 중 하나임
 - 상대적 디커플링(relative decoupling) 지수와 관련된 중요한 경고는 환경적 압력이 실질적으로 감소되었는지와 생산의 방출강도감소가

효율성 증가를 통해 이루어졌는지를 알 수 없다는 것임

- 장기적인 농업적 지속가능성과 식품생산을 위해 영양 적용(nutrient application) 증가 노력이 매우 절실함

□ 녹색성장지표 사용으로부터의 메시지

○ 디커플링 (decoupling)

- 상대적 디커플링은 필요조건이지만 충분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환경적 자산의 지속불가능한 사용의 경우 절대적 디커플링이 요구됨
- 경제현상에 대한 정책적 결론이 아닌 측정 시도와 같은 경험적 연구가 이루어져야 함

○ 녹색 산업과 경제활동의 적절한 공유

- 다수의 환경적 성장 효과들이 전체적인 측면에서 경제를 녹색화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효과들의 측정은 단순한 지수개발보다 어려움

○ 남은 측정문제들은

- 녹색성장지표를 확장된 성장 회계접근방법에 포함할 필요가 있음
- 천연자원과 그 고갈에 대한 더 나은 측정이 중요함. 흐름분석, 자원 생산성, 환경위성계정이 중요한 단계가 됨
- 지속적 회계프레임워크에 대한 측정 개선과 새로운 영역의 환경적 삶의 질에 대한 주관적 측정, 그리고 시의성 및 비교가능성이 있는 데이터에 대한 측정문제를 해결해야 함

□ 향후과제

- “녹색성장 통합보고서”와 “녹색성장지표에 관한 보고서”는 2011년 5월에 제출되어 조정과 추가 작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 중기적으로 이용가능 하도록 분류되는 지수의 측정 및 기존 데이터에 대한 시의성과 지리학적 포괄성을 포함하도록 더 세부적인 측정 아젠다가 작성되어야 함
- 녹색성장지표 셋은 국가의 녹색성장 평가 시 전문가들이 정기적으로 사용하는 모니터링 도구로서 발전해야 하며 비주얼 발표 도구 등으로 개선되어야 함

OECD GG지수의 그룹별, 주제별 개관

이 지수 리스트의 목적은 녹색 성장의 주요 트렌드와 중요성 개발을 인지하고 환경적 손실 혹은 위험을 수반하는 개발노선을 지시하도록 하기 위함임. 이 개발은 사회-경제적, 행정-문화적, 각 국의 지리학적 내용으로 해석되어야 하며 환경조건과 인간복지의 변화와 관련지어야 함

H: headline 지수가 되기 위한 목적으로 제안된 지수 (파란색/회색 배경에 ▶ 기호로 표시됨)

M: main 지수 (굵은 글씨로 된 숫자), main 지수의 구성요소와 추가요소(숫자)

P: proxy 지수 (동그라미 기호), main 지수가 측정불가능한 경우

C: complementary(보충) 지수 혹은 전달되는 메시지를 수반하는 지수

모든 정보가 포함되면서도 간단하도록 구성되며 지수의 제안된 셋은 최종본은 아님. 녹색성장 관련 모든 중요한 이슈가 양적으로 측정되는 것은 아니며, 여기서 제안된 모든 지수가 모든 OECD 국가들과 동일하게 관련되는 것은 아님에 주목하도록 함

각각의 지수는 GG 아젠다 (R)에 대한 관련성에 대한 첫 번째 평가, 분석적 건전성 (analytical soundness), 중요 데이터(M)의 측정가능성에 수반됨

- 관련성 (R): 1- 높음; 2=중간; 3=낮거나 검토요망
- 분석적 건전성 (S): 1=좋음; 2=평균; 3=불량 혹은 검토요망
- 측정가능성(M):

S=단기, OECD 국가 중 다수에서 현재 이용가능한 기본 데이터

M=중기, 부분적으로 이용가능한 기본데이터, 그러나 품질 (지속성, 비교가능성, 시의성)개선에 대한 노력과 지리학적 포괄(포함 국가의 수)에 대한 노력이 요구됨

L=장기, OECD 국가의 다수에서 이용가능하지 않은 기본데이터. 지속적 데이터 수집과 개념적 노력이 요구됨

(표 원문 참조)

검토의견

(연구기획실)

여기 OECD녹색성장전략 초안에서는 녹색성장의 목적을 2부문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목적으로 녹색성장을 “about maximising economic growth and development while avoiding unsustainable pressure on the quality and quantity of natural assets” 정의하며, 두 번째 목적으로 녹색성장을 “harnessing the growth potential that arises from transiting towards a green economy”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OECD녹색성장지표의 프레임워크는 녹색성장의 첫 번째 목적에 잘 반영한 개념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녹색성장 정책의 실제 강조점인 두 번째 목적은 전체 지표 구성에서 덜 강조된 것 같습니다.

1] 이에, 녹색성장을 대표하는 녹색성장 헤드라인 지표에서 녹색성장의 2번째 목적인 ‘녹색경제의 성장’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추가를 제안합니다.

녹색경제/저탄소경제 또는 녹색시장/저탄소시장 부문의 생산(매출, 투자, 고용)에 관한 녹색산업 통계자료가 헤드라인 지표로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현재 통계 작성틀로 사용할 수 있는 ‘녹색산업*’의 국제표준은 없습니다. 그러나, WTO에서는 환경산업 제품의 HScode 리스트를 공시하여 해당 제품의 국제비교 가능한 무역통계 생산이 가능하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통계청은 지식경제부에서는 구축한 녹색기술인증을 기반으로 녹색 재화 및 용역 분류체계를 개발 중이며, 2011년 6월 경제센서스를 통하여 녹색산업 사업체 모집단 구축과 녹색산업통계 생산을 추진하고 있다. 만약, 위의 WTO나 한국의 지식경제부의 예처럼, OECD가 주요한 녹색산업 재화 및 용역 리스트를 지정하여 공시한다면, 부분적으로라도 ‘녹색경제의 성장’을 측정하는 국제비교 가능한 지표작성이 가능할 것이다.

(*녹색산업의 제품 및 서비스는 전통적인 사후처리 환경산업보다는 에너지 고효율, 탄소저감, 신재생에너지 등의 사전처리 기술을 강조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횡적 종적 비교 가능한 국제표준 분류를 만들기는 불가능하다. 다만 일정시점에 일부 품목을 정하고, 해당 품목에 대한 제한된 통계 작성이 최선이다)

Comments on Green Growth Indicators

- In the report, the objectives of green growth are defined in two parts. The first one defines green growth as "about maximizing economic growth and development while avoiding unsustainable pressure on the quality and quantity of natural assets", and the second presents "harnessing the growth potential that arises from transitions towards a green economy."
- The framework of the OECD Green Growth indicators seems to reflect the first definition of green growth described above. However, the second objective, which is the substantial emphasis in the green growth policies, is not emphasized as much as the first objective.
- **1) We are suggesting, therefore, that a new indicator should be added to the headline indicators to measure the second objective, 'green growth of economy'.**
- Statistical resources of green industries about the production (sales, investment, employment) in the areas of green economy/ low carbon economy or green growth/ low carbon market can be used as headline indicators. There is no international standard of green industry* to use as a framework yet, but HScode list is publicized in WTO so that internationally comparable statistics on trade can be produced for corresponding products.
- Statistics Korea is currently developing a classification system for green goods and service based upon the certification system of green technologies, which was established by the Ministry of Knowledge Economy. We are also planning to develop population samples for establishments in green industries and produce green industrial statistics through the Economic Census in June 2011. It will be partly possible to establish internationally comparable indicators to measure the 'growth of green economy', if OECD create a list of major green goods and service and publicize it, as shown from the examples above.

10 : 발전지수측정 문서: *How's Life?* 의 업데이트

주요 논점

- ◇ CSTAT 대표자 코멘트에 기초한 보고서인 *How's Life*의 업데이트 제공
- ◇ 발전측정관련 OECD의 현재 업무의 일환으로서 예측된 성과 제시

□ *How's Life* 에 관한 CSTAT 대표자 코멘트

여러 대표자들은 이 문서가 복지(well-being) 측정의 분야에서 격차 및 측정 과제를 부각시키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했으며 다음 사항에 대해 코멘트 제기

- *How's Life*에 포함된 차원들이 다수의 문화와 관련된 것을 감안하여 OECD는 다른 국가들의 각 필요에 따른 차원의 결정에 반해서는 안 된다는 복지의 차원에 대한 선택과 다양한 차원 사이에서의 균형
- 공식자료의 부족을 반영하는 “비공식적” 자료로부터의 데이터 사용
- 주관적 측정을 사용: 주관적 복지와 같은 일부 차원들에 대해서는 사람들의 자체보고(self-reports)에 기초한 데이터만이 필요한 증거를 제공할 수 있고, 사무국은 복지 분석에 의미를 지니는 한도까지 주관적 측정을 사용할 계획임
- 다양한 혼합적 지수 사용의 통계적 성격과 명확성을 연구하기 위한 시험이 진행 중임

□ *How's Life* 의 구조

- 복지를 측정하기 위한 개념적 접근에서의 초점은 물질적 주거조건, 삶의 질, 그리고 지속가능성 등 세 가지 범주에 따라 가계와 개인, 그리고 복지의 성과에 맞추어짐

- 직업과 수입, 그리고 가구관련 데이터 허용에 관한 장이 추가될 예정이며, 물질적인 측면(수입, 가구 등)과 삶의 질의 측면(건강, 교육, 주관적 복지 등)에서의 차원들이 추가될 계획임

□ 지수 선택의 범주

- 헤드라인 지표는 시간에 대해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며 제안서에는 CSTAT에 의한 코멘트, OECD 사무국으로부터의 전문가 자문, 국제 기준에 기초한 품질 기준 등이 포함됨
- 관련 지수들은 정리 성과(summary outcomes)를 강조, 표면적 타당성(face-validity), 용이성 및 정책에 대한 민감성을 갖추며, 개인적 차원의 복지와 발전 측정을 모니터링 하는데 중요한 소규모로의 분할을 허용해야 함
- 모든 보유 지수에 대해 국가의 포함범위는 매우 넓으며 데이터는 순환적인 방식으로 수집됨
- 2차 지수는 실제로 변화할 수 있으며 헤드라인과 2차 지수 모두 평균적 도달성과와 국가 내 불평등을 보여줌

□ *How's Life* 의 구조, 범위, 과정

- 각 장은 차원(dimension)과 복지의 관계를 정리하고 이상적(ideal) 지수와 비교하여 이용가능한 지수를 논의함
- 헤드라인지수와 2차(secondary)지수로부터의 증거를 제시하고 구체화된 차원의 측면들 및 개인과 제도적/정책적 결정요소 간을 구분함
- 보고서는 오직 시제간(inter-temporal) 복지관련 주요 자산의 분석에 초점을 맞추며 “OECD 녹색성장전략“에 포함된 지수들을 참고함

□ 결과물과 일정

- *How's Life*의 출판은 2011년 가을에 배포되며 5월 OECD 주에 중간결과가 나올 예정이며, 외부 사용자를 위한 복지지수 웹 대화툴(interactive tool)의 개발 및 링크제공 업무를 지속할 예정임

검토의견

(연구기획실/고용통계과)

□ 검토 (a) : 보고서 발간 계획에 대한 전체적 의견

○ 단일 종합지수는 조심스런 접근 필요

- 핵심지표에 대한 단일 종합지수 생산은 장기적인 과제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물론, 웰빙 측정이 GDP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종합지수 산출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지수의 정치적 중립성 논란, 방법론적인 문제 등으로 고려할 때 장기적 관점에서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이점에서 단일 지수를 보고서에 포함하지 않으려는 계획에 동의를 표합니다.

○ 가족을 독립된 영역설정 필요

- 가족기능은 사랑의 교환, 애정과 동반자 관계, 양육과 돌봄, 경제적 안정과 정체성을 제공하여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혼인상태에 있는 사람이 그렇지 않는 사람보다 더 인생에 만족하며 사회적 위험에 대한 대처능력도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아동의 경우 결손가족보다 온전가족(inact family)에서 좋은 양육을 제공받습니다. 모든 개인은 가족구성원이므로 가족을 별도의 독립 영역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 필요통계 생산을 위한 별도의 후속조치 필요

- 현재 자료수준에서는 이용불가능하지만, 웰빙측정에 필요한 지표는 지표체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현재에는 없지만 필요한 지표의 경우, OECD에서 국제비교가 가능하도록 각국에 통계생산을 위한 별도의 권고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 우선, 핵심지표나 보조지표로 포함되었으나 현재 생산되지 않는 지표에 대한 신속한 생산방안에 대책이 필요합니다.

ex) 핵심지표에서 한국의 경우, (일과 생활) 필수교육 연령 자녀를 둔 모의 취업률, (건강상태) 자기보고 활동장애, (사회관계망) 타인과의 접촉, (개인안전) 자기보고 범죄피해 자료 미생산

- 또한 지표체계에 포함된 비공식 통계의 경우에도, 자료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도록 공식통계로 생산할 것을 권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 검토 (b) : 지표선정에 대한 의견

○ 가족에 대한 고려 지표

- 가족을 독립된 영역으로 설정할 경우, 가족지표로는 가족관계 만족도, 한부모가족비율 or 결손가족(broken family) 비율, 이혼율, 합계출산율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 그리고, 다음과 같은 추가지표를 고려해 볼 것을 제안합니다.

- (직업과 급여) 직업만족도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시민참여와 정부) 사회에 대한 신뢰 혹은 소속감(belonging)
- (사회적 관계망) 자살률을 사회적 관계망(혹은 건강영역)에서 포함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자살은 우울증과 같은 정신건강과 관련되고, 또한 사회적 배제(social exclusion) 측정의 중요한 지표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자살률은 연령과 함수관계가 높으므로 국가비교를 위해서는 연령표준화 자살률 지표를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 장기실업률

- 장기간 실업에 따른 소득 손실로 고용상 어려움이 가장 크며, 향후 구조적 실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장기실업자 계층을 지표 활용하는데 동의함
- 그러나, 장기실업률은 산업·종사상지위별 취업자 구조와 실업급여 수급기간 등 사회보장 여건에 따라 국가별로 큰 차이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비교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는 바, 주 지표보다 보조지표로 활용하는 것이 타당해 보임
- 예를 들면, 한국의 농림어업 및 자영업자 비중은 미국, 일본 등 주요국에 비해 높은 편이며, 실업급여 수급기간도 상대적으로 짧기 때문에 취업과 실업간 이동보다 취업과 비경제활동간 이동이 빈번하여 장기 실업자 비중이 낮음

('09년, %)	장기실업자 비중*		취업자 비중		실업급여 수급기간
	6개월이상	12개월이상	농림어업	자영업자	
한 국	9.0	0.5	7.2	25.3	3~8개월
미 국	31.5	16.3	1.5	6.9	최대 4년
일 본	46.3	28.5	3.8	9.5	최대 13개월

* 장기실업자 비중=(6개월 또는 1년 이상 실업자/총 실업자)×100
(OECD Employment Outlook 2010)

Comments on Update on Measuring Progress Indicators Publication

(a) Comments on the overall publication plan.

- A careful approach will be required with single composite indicators.
 - It is encouraging to produce single composite indicators in the core set as a long-term project, considering political neutrality issues or methodological problems. We agree with the plan that single indicators are excluded from the report.
- Necessity to build a separate domain for family
 - Family functions importantly for the quality of life of the members by providing interrelationship, nurture and care, economic stability and spirit of identity. Research results explain those who are married tend to be more satisfied with life than those who are not, and more capable of handling social dangers, and the children with intact family receive better care than those who with broken family. As every individual is a member of a family(or families), an independent domain for family is necessary.
- Further measures need to be taken to produce required statistics.
 - The indicators required to measure well-being should be included in the indicator system even though they are not available at the current level of data. If necessary, OECD should provide further recommendations for production of statistics so that international comparability could be possible.
 - Above all, a prompt follow-up needs to be done in order to produce indicators which are included in the headline indicators or additional indicators but are not produced currently.
 - ex) In the core set in Korea, resources still lack in the subjects of employment rate of women with children of compulsory school age(work and life), self-reported limitations' in activity of daily living (health status), contacts with others (social connections) and self-reported victimization(personal security).
 - It is also necessary to produce official statistics for the parts where statistics remain unofficial in the indicator system, in order to increase data reliability.

□ (b): Comments on the selection of indicators

- Family indicators to be considered
 - If family is selected as an independent domain, satisfaction in family relationship, single parent family/ broken family rate, divorce rate and total fertility rate can be considered as possible family indicators.
- We suggest that more indicators should be considered;
 - (jobs and earnings) Job satisfaction
 - (civic engagement and governance) Confidence or belonging to society
 - (social connections) It would be more appropriate to include suicide rate in the social connections (or health status) because suicide is deeply related to mental health and it is an important indicator to measure social exclusion. In case of international comparison, however, age-standardized suicide rates should be used because there is high functional relation between suicide rates and age.
- **Long-term unemployment rate**
 - We agree to use the long-term unemployment rate as one of the indicators, because longer periods of unemployment can cause structural unemployment as well as income loss.
 - However, it will be more appropriate to use the rate as secondary indicator rather than key indicator, because it can vary for each country according to social security circumstances, such as employment structure by industry and unemployment benefits.
 - For example, the proportions of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y as well as self-employment in Korea are larger than many other countries including the US and Japan. Unemployment benefits are provided for a shorter period of time relatively as well, so economically inactive condition occurs more than unemployed condition in Korea. This leads lower long-term unemployment rate.

(2009, %)	Among the number of total unemployed population		Among the number of total employed population		Unemployment benefits period
	unemployed more than 6 months	more than 12 months	employed agriculture and fishery	self-employed	
Korea	9.0	0.5	7.2	25.3	3~8 months
US	31.5	16.3	1.5	6.9	max. 4 years
Japan	46.3	28.5	3.8	9.5	max. 13 months

* Rate of long-term unemployment relative to total unemployed population= (number of unemployed persons for 6 months or more than 1 year/ total number of unemployed persons) X 100 (OECD Employment Outlook 2010)

VIII. 기 타

1) 스탠포드대 후버연구소 부소장 면담

□ 개 요

- 일시·장소 : 2011.2.25.(금) 15:00~16:30, 스탠포드대 후버연구소 부소장실
- 면담자 : 이인실 통계청장, Mr.David Brady 후버연구소 부소장

□ 주요 논의내용

- 후버연구소(Hoover Institution)는 스탠포드대 연구기관으로서 100명의 상급회원과 75~100명의 연구회원을 거느린 세계적으로 명망높은 Think-tank임.
 - 'Policy Review', 'Hoover Digest', 'Viewpoint' 등 저명한 정책출판물 발간
- 정부정책 수립 및 평가에 대한 세계적인 석학인 Mr.David Brady 부소장과 '통계와 정책수립 간 연계강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
 - 그동안 국민의 사회·경제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정책들이 통계에 기반하지 않고 대중적·단편적으로 수립·집행되어 정책 비효율을 초래
 - 이를 타개하기 위해 2008년부터 법령 제개정시 새로운 정책 수립이나 제도 도입시 반드시 통계를 구비하도록 하는 '통계기반 정책관리 제도'를 실시하고 있고 올해 통계법 개정시 이를 더욱 강화할 계획임.
- 또한 한국의 2010 인구주택총조사 인터넷조사 주요성과(비용절감, 응답부담감소, 국가위상 제고)와 성공요인, 그리고 향후 등록센서스 추진 계획에 대한 논의 및 조언
- 금번 면담을 통해 통계청-스탠포드대 Cross-Pacific 논의체제(dialogue)를 형성하고 향후 이를 발전시키는 계기마련

※ 스탠포드대 고령화센터(Stanford Center on Longevity)를 방문하여 우리나라 고령화사회 대책 및 통계에 필요한 자료를 입수하고 관련과에서 검토중

<붙임> 면담자료(2010인구센서스 인터넷조사 결과) 및 스탠포드 고령화센터 자료

2) 제42차 유엔통계위원회 참가사진

<p>전체 회의장</p>	<p>전체 회의장 청장 발표</p>	<p>고위급 포럼 참가</p>
		
<p>UAE청장 간담회</p>	<p>사우디 청장 간담회</p>	<p>한-중-독 간담회</p>
		
<p>한-몽골-독일 간담회</p>	<p>카자흐 부청장 간담회</p>	<p>Eurostat처장 면담</p>
		
<p>인도네시아 청장 면담</p>	<p>가나 청장 면담</p>	<p>알제리 청장 면담</p>
		

OECD통계국장 면담	멕시코 청장 면담	UN대표부 차석대사 간담회
		
前 ISI회장 면담	PARIS 21 면담	영국 청장 면담
		
언론(YTN) 인터뷰	후버연구소 부소장 면담	러닝센터 발표
		
전체 회의장	홍보전시관1	홍보전시관2
		

다. 주요 면담자 연락처

주요국제기구 인사



Rob EDWARDS
Inter-regional Adviser
Office of Director
Statistics Division
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

United Nations
2 UN Plaza
Room DC2- 1662
New York, NY 10017, USA

Tel.: 1-917-367-3800
Fax: 1-212-963-9851
email: edwards6@un.org
<http://unstats.un.org>



Francesca Perucci
Chief
Statistical Planning and Development Section
Statistics Division
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

United Nations
2 UN Plaza
Room DC2-1652
New York, NY 10017, USA

Tel.: 1-212-963-0212
Fax: 1-212-963-9851
E-mail: perucci@un.org
<http://unstats.un.org>



SHAIDA BADIEE
DIRECTOR
DEVELOPMENT DATA GROUP
DEVELOPMENT ECONOMICS

THE WORLD BANK
1818 H STREET, NW
WASHINGTON, DC 20433
USA

TEL: 202-473-3830
FAX: 202-522-3645
SBADIEE@WORLDBANK.ORG
WWW.WORLDBANK.ORG/DATA/



PARIS21

Mohamed-El-Heyba Lemrabott **BERROU**
Manager, **PARIS21 Secretariat**

PARIS21 Secretariat
2 rue André Pascal
75775 Paris Cedex 16 France

Tel. + 33(0)1 45 24 14 64
Mob. + 33(0)6 13 38 65 68
Fax. + 33(0)1 44 30 61 43

abadila.berrou@oecd.org
www.paris21.org

Visiting Address
Delta Building
4 Quai du Point du Jour
92100 Boulogne-Billancourt
France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Eric Bensel
Editor, Project Officer/PARIS21
Development Co-operation Directorate

Tel.: 33 (0) 1 45 24 76 52
Mob.: 33 (0) 6 21 88 20 20
Fax: 33 (0) 1 44 30 61 43

eric.bensel@oecd.org
www.paris21.org

2, rue André-Pascal
75775 Paris Cedex 16, France

주요국가 통계청 인사



Kingdom of Saudi Arabia
Central Dept of Statistics & Information



Mohanna bin Abdulkarim Al-Mohanna

Director General of CDSI and Supervisor
General of Census Project

P.O. Box : 30291
Riyadh : 11477
Saudi Arabia

Office Phone : 4013058
Central : 4014138 Ext. 1616
Mobile : 0555418899
Fax : 4050648

E-mail : malmohanna@cds.gov.sa



AGENCY OF THE REPUBLIC OF
KAZAKHSTAN ON STATISTICS



ZHASSER A. JARKINBAYEV

Deputy Chairman

Republic of Kazakhstan
Astana city, 010000
8, Orynbor street
«The House of Ministers»
4 th entrance, room 826

Tel.: +7 (7172) 749528
Fax: +7 (7172) 749678
Mob.: +7 701 5122654
e-mail: Zh.Jankinbayev@stat.kz
zhasser@yahoo.com



NATIONAL STATISTICAL
OFFICE OF MONGOLIA

MENDSAUKHAN
Sonomtseren

Chairman

Government building III,
Ulaanbaatar, Mongolia
Tel: 976-11-320262
Fax: 976-11-324518
E-mail: mendsaikhan@nso.mn
nso@magicnet.mn
Web: <http://www.nso.mn>



ҮНДЭСНИЙ
СТАТИСТИКИЙН ХОРОО

Батжаргалын
БАДАМЦЭЦЭГ

Макро эдийн засгийн
статистикийн газрын дарга

Засгийн газрын III байр,
Улаанбаатар, Монгол Улс
Утас: 51-262767
Факс: 11-323118
И-мэйл: badamtsetseg@nso.mn
Вэб: <http://www.nso.mn>

Dr. Grace Bediako
Government Statistician
Ghana Statistical Service



P. O . Box GP 1098
Ministries - Accra
Cell: 0208 228383
Email: gbediako@statsghana.gov.gh

DESTATIS
wissen.nutzen.

**Sibylle von Oppeln-
Bronikowski**
Head of Department

Strategy and Planning,
International Relations,
Research and Communication

Statistisches Bundesamt
Gustav-Stresemann-Ring 11
65189 Wiesbaden, Germany

Telephone: +49 (0) 611 / 75 21 10
sibylle.oppeln@destatis.de
www.destatis.de



MIC

Shunsuke Kimura

Director for International Statistical Affairs
Office of Director-General for Policy Planning (Statistical Standards)
Ministry of Internal Affairs and Communications

19-1 wakamatsu-cho, Shinjuku-ku, Tokyo 162-8668, Japan
TEL: 81-3-5273-1145 FAX: 81-3-5273-1181
E-mail: s.kimura@soumu.go.jp

Susumu KUWAHARA

Research Fellow
Economic and Social Research Institute
Cabinet Office, Government of Japan

3-1-1, Kasumigaseki,
Chiyoda-ku, Tokyo
100-8970 Japan

TEL : 81-3-3581-5019(Direct)
FAX : 81-3-3581-0571
E-mail:susumu.kuwahara@cao.go.jp



NATIONAL BUREAU
FOR STATISTICS OF THE
REPUBLIC OF MOLDOVA

Oleg CARA Deputy General Director

106, Grenoble Str., MD 2019
Chisinau, Republic of Moldova
phone: +373 22 403 002
fax: +373 22 226 146
e-mail: oleg.cara@statistica.md
www.statistica.md



Ismail bin Abdullah

Director

Department of Statistics, Malaysia
Statistical Training Division
Level 4, Block C6, Complex C
Federal Government Administrative Centre
62514 Putrajaya
MALAYSIA
<http://www.statistics.gov.my>

Tel : 603-8881 1534 (D/line)
: 603-8885 7741
Fax : 603-8888 9243
E-mail : ismail_abdullah@stats.gov.my

Maamoon Mohamad A. Kassab

Act. Director of Statistical Methods Dept.

UNITED ARAB EMIRATES
National Bureau of Statistics

ص.ب. 93000، أبوظبي، الإمارات العربية المتحدة
PO Box 93000, Abu Dhabi United, Arab Emirates

مباشر +971 2 612 3270
فاكس +971 2 559 2999
بريد الالكتروني mkassab@nbs.gov.ae
الموقع الالكتروني www.uaestatistics.gov.ae

المركز الوطني للإحصاء | National Bureau of Statistics

Khalifa Abdullah Al Rubaei Government Communication Department Director


ص.ب. 93000، أبوظبي، الإمارات العربية المتحدة
PO Box 93000, Abu Dhabi United, Arab Emirates

UNITED ARAB EMIRATES
National Bureau of Statistics

مباشر +971 2 612 3140
فاكس +971 2 559 2999
البريد الالكتروني krubaei@nbs.gov.ae
الموقع الالكتروني www.uaestatistics.gov.ae

المركز الوطني للإحصاء | National Bureau of Statistics

국내 인사



INTERNATIONAL STATISTICAL INSTITUTE

Jae Chang LEE, Ph.D.

ISI President-Elect, 2009-2011
 ISI President, 2011-2013
<http://isi.cbs.nl/>



한국은행

뉴욕사무소
 소장 **이종건**

780 Third Ave., 23rd Floor
 New York, N.Y. 10017
 Phone : 212-759-5121
 Fax : 212-758-6563
 E-mail : jklee@bok.or.kr



주 유엔 대한민국 대표부

김창모
 참사관

335 East 45th Street
 New York, NY 10017

Phone : 212-439-4028
 Mobile : 646-210-4841
 Fax : 212-986-1083
 E-mail : changmo63@gmail.com



24Hour News Channel

이재윤
 뉴욕특파원 / 부장

501, 5th Avenue #309 New York, NY10017
 Phone(Office)212-300-2115, 2119
 Mobile : 347-839-0986
 E-mail : jylee@ytn.co.kr
 geofact@naver.com

www.ytn.co.kr




연합뉴스 바른언론 바른통신

주종국
 뉴욕특파원

21 Grand Ave. South Building
 Suite 622
 Palisades Park, NJ 07650

Tel. 201-255-2896
 Fax.201-849-9133
 Cel. 201-874-3666
 E-mail: satw@yna.co.kr

4) 주요인사 약력

<<주요국제기구 관계자>>

① 폴청 (Paul Cheung) UN통계처장



□ 학 력

- 박사학위(Univ. of Michigan, Ann Arbor박사('83)
- Postdoc : 하와이 동서센터

□ 국 적

- 싱가포르(출생지 : 홍콩)

□ 주요경력

- 싱가포르 통계청장('91~'04)
- 국제통계협회 회장('01~'03)
- SIAP집행이사회, ESCAP통계위원회, ADB ICD지역자문위원회 의장 역임
- 싱가포르 국립대, 난양공대 교수 역임

② 출템잠츠 다바수렌 (Chultemjamts DAVAASUREN) 現유엔SIAP소장



□ 학 력

- 우크라이나 경제대학 통계학사
- 미 콜롬비아대 석사
- 모스크바 경영아카데미 경제학 박사

□ 국 적

- 몽골

□ 주요경력

- 몽골국립대 통계학교수 역임
- '96~'02 몽골통계청 국장
- '97~'02 ESCAP통계위원회 의장단 임원
- '02~'06 SIAP (UN Statistical Institute for Asia and the Pacific) 교수
- '06.5~ (현) SIAP 소장

③ 하이산 푸 (Haishan FU) 現ESCAP 통계처장



□ 학 력

- 베이징 대학 경제학 학사
- UN-카이로 인구연구센터 석사
- 프린스턴 대학 인구학 박사

□ 국 적

- 중국

□ 주요경력

- 알란 구트마허 연구소 책임연구원, 프린스턴대학 인구연구소 공동연구원, 펜실베니아 대학 인구연구센터 post-doc 연구원
- '90~'99 유엔사무국 경제사회국, 유엔인구과 인구담당관
- '99~'05 UNDP 인간개발보고담당실(HDRO) 통계팀장
- '05~'09.5 ESCAP 통계처 통계개발/분석과장
- '09.6~ (현) ESCAP 통계처장

<<고위급포럼 연사>>

질 매더슨 (Jil Matheson) 영국 통계청장 (좌장)



직 위

- 영국 통계청장

(National Statistician,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ON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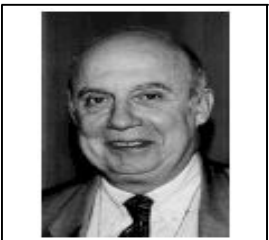
국 적

- 영국

주요경력

- '75 영국 인구조사국 (Office for Population censuses and Surveys : OPCS) 입사 이후, 영국 통계청의 다양한 사회조사 관련 프로젝트 매니저, 세계보건기구(WHO) 사회경제불평등측정 프로젝트(보건 분야) 패널 등으로 활동
- '03 영국통계청 센서스과에서 2001 센서스 평가 및 2010 센서스 계획 수립
- '04-08 센서스, 인구조사, 지역통계 과장 역임
- '08 Statistics Delivery 국장
- '09.9.- (현) 영국통계청장

장 루이 보딘 (Jean Louis Bodin) 前 ISI('99-'01) 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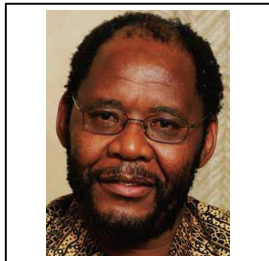
국 적

- 프랑스

주요경력

- '99-'01 ISI 회장 역임
- ※ '92년 유럽경제이사회(UNECE)에서 채택하고 '94년 유엔통계위원회에서 결의안으로 채택한 “공식통계에 대한 기본원칙”의 초안 작성 작업에 참가

□ 팔리 레홀라 (Mr Pali Leholha), 남아공 통계청장



□ 직 위

- 남아공 통계청장
(Statistician General, South Africa)

□ 국 적

- 남아프리카공화국

□ 주요경력

- '82~'92 보푸타츠와나 통계청 인구통계학자
- '95~'01 남아공 통계청 인구조사국장
* 1996, 2001 남아프리카 인구센서스 관리
- '02~ (현) 남아공 통계청장
(현) UN아프리카경제위원회 통계위원회 의장

□ 학 력

- 가나대학교 인구학과 졸업
- 레소토대학교 경제학 및 통계학 학사

□ 브라이언 핑크 (Brian Pink) 호주 통계청장



□ 직 위

- 호주 통계청장
(Australian Statistician)

□ 국 적

- 호주

□ 주요경력

- '66 호주 시드니정부 센서스통계국 입사
이후, 캔버라, 퍼스, 웰링턴 정부에서 근무
- 00~'07 뉴질랜드 통계청장
現 UNESCAP 통계위원회 의장
現 OECD통계위원회 의장단 의장

□ 발터 라데마허 (Waltar Radermacher) EUROSTAT 통계처장



- 직 위
 - EUROSTAT 통계처장
(Chief Statistician of the European Union)
- 국 적
 - 독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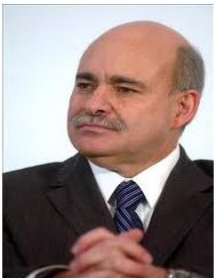
□ 주요경력

- '03 ~ '06 독일 연방통계청 부청장
- '06. 12 - 독일 연방통계청장
- '08. - 現 EUROSTAT 통계처장

□ 학 력

- 기업경제 전공

□ 에두아르도 소호 가르자 알다페 (Eduardo Sojo Garza-Aldape) 멕시코 통계청장



- 직 위
 - 멕시코 통계청장
(President, National Institute of Statistics and Geography (INEGI))
- 국 적
 - 멕시코

□ 주요경력

- '00-'06 비센테 폭스('00-'06) 정부 경제부 장관
- '06-'08 대통령실 (펠리페 칼데론 정부) 공공정책관
- '08 現 멕시코 통계청장

※ 로렌스 클라인 노벨경제학 수상자('80)와 경기에측모델에 관한 공동연구를 진행한 경험이 있음

<<OECD통계위원회 의장단회의>>

□ 마르뎬느 듀랑 (Marine DURAND), OECD 통계국장



□ 학 력

- 파리4대학 졸업 (수학 전공)
- 국립경제통계학교 졸업 (통계학 전공)
- 미국 위스콘신대(매디슨캠퍼스) 졸업 (경제학 전공)

□ 국 적

- 프랑스

□ 주요경력

- '83 OECD 경제국 입사
- '91 OECD 경제국 선임경제 학자
- '97 OECD 경제국장 자문관
- '01~'10.1. OECD 고용노동사회국 부국장
- '10.2.~ (현) OECD 통계국장

<<주요국가 통계청장>>

① 지앤탕 마 (Jiantang MA) 중국국가통계국장 ('58生)



□ 학 력

- 산둥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82)
- 남개대학교 사회과학 박사 ('88)

□ 주요경력

- '88.~'96 국무원직속 국가발전연구센터
- '96.~'03. 국가경제무역위원회 관리국 과장 및 연구원
- '03.~'08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 부위원장
- '08.9~ (현) 중국 국가통계국장

② Mr. Smailov Alikhan Askhanovich, 카자흐스탄 통계청장('72生)



□ 학 력

- 카자흐 국립대 응용수학과 졸(1994)
- 카자흐스탄 경영경제전략대학 행정학과 석사(1996)

□ 주요경력

- '96 - '98 카자흐스탄 통계청 과장, 통계위원회 부의장
- '98 - '99 대통령행정실 감사원 경제국장
- '99 - '03 카자흐스탄 통계청장
- '03 외교부 차관
- '03 - '06 카자흐스탄 수출신용보험공사 집행이사회 의장
- '06 - '07 재무부 차관
- '07 - '08 국영농업지주회사(KazAgro) 사장 (*농협과 유사)
- '08 - '09 재무부차관
- '09.10 - 현재 카자흐스탄 통계청장

③ Mr. Rashid Al Suwaidi, UAE통계청장(1969년생)



- 학 력
 - 정책과학 석사 (UAE 대학)

- 주요경력
 - '04. ~ '06 아부다비 관광청 재정행정과 과장
 - '06. ~ '09 경제부 기획통계 담당
 - '09.6 ~ 통계청장

④ Mr.Ali Boukrami, 알제리 통계청장



- 주요경력
 - '10.10월~ (현재) 알제리 통계청장 (Secretary of State for Statistic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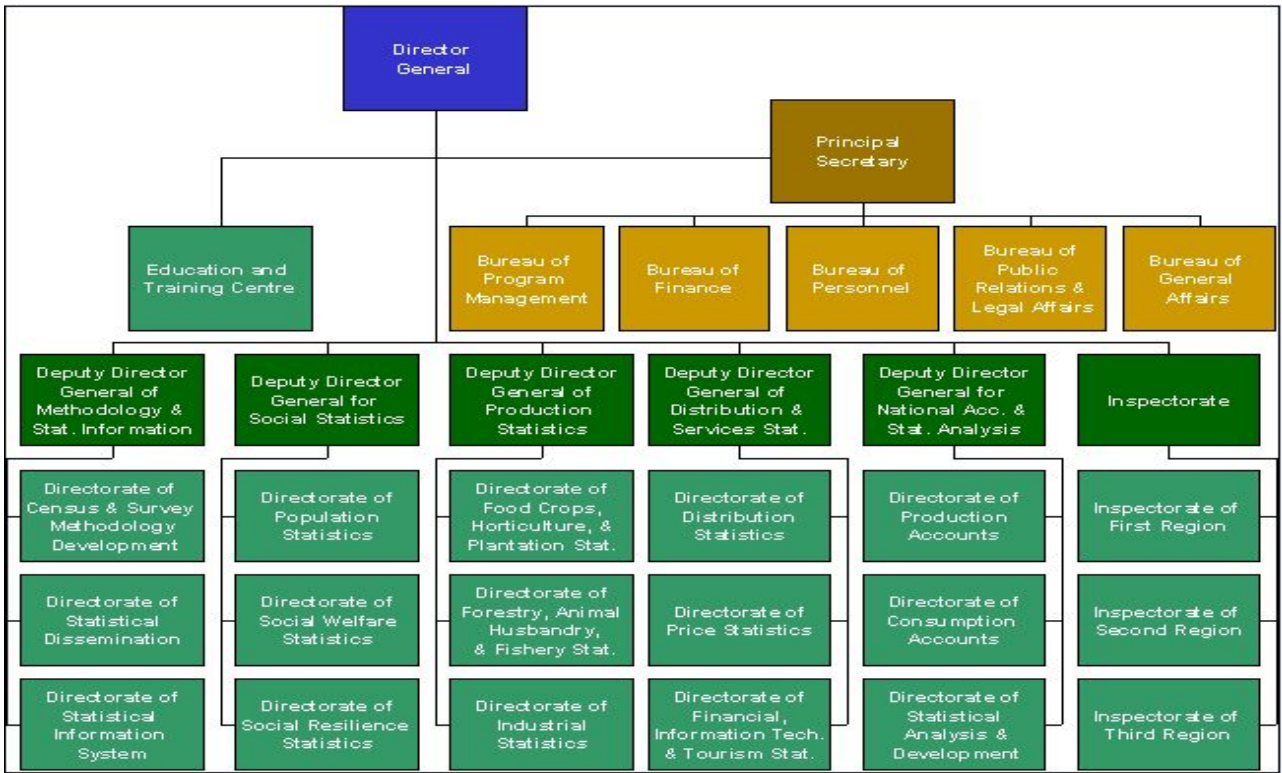
※ 주 알제리대사관을 통해 한국통계청의 알제리 통계분야 선진화를 위한 지원을 요청('10.11.05)

⑤ Mr.Rusman Heriawan, 인도네시아 통계청장 ('51生)

	<p>□ 학 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ost Graduate Program, 농업경제 ('04) ○ 인도네시아 대학교 경제학('83) ○ Institute of Statistics대학교 통계학 ('74)
--	--

	<p>□ 주요경력(인도네시아 통계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74.~'81 인도네시아 통계청(BPS) 직원 ○ '81.~'89. 계장 ○ '89.~'93 공공계정 과장 ○ '94.~'99 Junior Expert Researcher ○ '98.~'01 생산계정국, 교역·서비스계정국 과장 ○ '04.~'06 사회통계국 부국장 ○ '06.6~ (현) 인도네시아 통계청장 (Director General of Statistics Indonesia, BPS)
--	---

※ 인도네시아 통계역량강화사업(STATCAP)을 위한 한-인도네시아 사업파트너 선정협의중



⑥ 에두아르도 페레이라 뉘스 (Eduardo Pereira NUNES), 브라질 통계청장



- 학 력
 - 경제학 박사
- 국 적
 - 브라질

주요경력

- '80 브라질 통계청(IBGE)* 경제학자
 - * IBGE : Brazilian Institute of Geography and Statistics
- '80~'04 리우데자네이루 칸디도멘데스대학 경제학과 교수
- '87~'90 국민계정에 관한 세계은행 및 UNDP 자문관
- '03~'06 빈곤통계에 관한 리오그룹 의장
- '03~ (현) 브라질 통계청장

<<스탠포드대 후버연구소>>

□ Dr.David Brady 후버연구소 부소장



□ 학 력

- Western Illinois University (학사)
- University of Iowa 석사(1967) 및 박사(1970)

□ 주요경력

- 현재 스탠포드대 후버연구소 부소장, 경영대학원 교수
Virtues of a Free Society Task Force 의장
- '97.~'01 스탠포드대 부학장
- '87.~'96. 스탠포드대 교수
- '80.~'87. Rice University 교수
- '85.~'86. 행태과학(Behavior Science) 연구센터 연구원

□ 최근 논문

- Leadership and Growth(2010)
- Revolving Gridlock : Politics and Policy from Carter to Bush II(2006)
- Red and Blue Nation? Characteristics and Causes of America's Polarized Politics with Pietro Nivola(2007)

<<유엔대표부>>

① 박인국 , 現 주유엔대표부 대사 ('52生)



□ 학 력

- 서울대 중문학과 졸('75. 2.)
- 서울대 법학과 석사('80. 2.)

□ 주요경력

- '78. 8 외무부 입부(제12회 외무고시)
- '81. 2. 주뉴욕영사
- '86.12. 주사우디1등서기관
- '89. 8. 외무부장관비서관
- '91. 3. 주미국1등서기관
- '94. 2. 국제연합2과장
- '94. 5. 군축원자력과장
- '96. 2. 경수로사업지원기획단 국제협력부장
- '02. 1. 외교통상부장관 보좌관
- '02. 7. 대통령 국제안보비서관
- '03. 6. 주쿠웨이트특명전권대사
- '05. 2. 주제네바대표부차석대사
- '06. 4. 외교통상부다자외교실장
- '08. 4.~ (현)주유엔대표부대사

② 신부남 주유엔대표부 차석대사



□ 학 력

- 서울대 독문학과 졸('80)
- 보스턴대 국제관계학 석사('87)

□ 주요경력

- '78. 8 외무부 입부(제12회 외무고시)
- '89. 유엔유럽사무소대표부 근무
- '94. 주독일대사관 근무
- '00. 외교통상부 경제협력과장
- '02.~'04. 주유엔대표부 참사관
- '04. 유엔지속발전위원회 제13차회의 부의장
- '04. 통상교섭본부 과학환경심의관
- '06. 환경부 국제협력관
- '07. OECD환경정책위 부의장
- '08. (현) 주유엔대표부 차석대사

<<한국은행 뉴욕사무소>>

이종건 한국은행 뉴욕사무소장 ('58生, 1급 국장급)



□ 학 력

- 서울고등학교
-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 美 University of Illinois 대학원(경제학 박사)

□ 한국은행 입행 연도 : 1981년

□ 주요경력

- 1992년 미국 연방노동통계국(BLS) research associate
- 1995년 일본경제연구센터(JCER) 주임연구원
- 1996년 일본은행(BOJ) 금융연구소 객원연구원
- 2000년 세계은행(WB) 금융정책국 senior economist
- 2002년 금융경제연구원 연구조정팀장, 거시경제팀장
- 2003년 조사국 물가분석팀장, 동향분석팀장, 조사총괄팀장
- 2009년 한국금융연구원 파견
- 2010.3.3~현재 뉴욕사무소장

□ 주요 외부활동

- 국민경제자문회의 거시경제분과 전문위원(2005~2009)
- 통계청 경기분석 자문위원(2005~2008)
- 한국계량경제학회 이사(2006~현재), 한국응용경제학회 이사(2009~현재)

5) UN통계위원회 개요

○ 분 류

- 유엔경제사회이사회(Economic and Social Council)는 기능과 지역에 따라 기능별 위원회와 지역위원회로 구성

【기능별 분류】

마약위원회
범죄예방 및 사법정의위원회
과학기술발전위원회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여성지위향상위원회
인구개발위원회
사회발전위원회
통계위원회

【지역별 분류】

아프리카 경제이사회
유럽 경제이사회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비안 경제이사회
아태지역 경제사회이사회
서아시아 경제사회이사회

○ 주요기능

- 통계 및 통계기법 개선, 새로운 방법론 개발 및 보급
- 각 국가간 통계비교성 향상을 위한 통계배포 인프라강화
- 각종 정책현안(i.e. MDG 등)에 대한 통계적 지원
- 주요 통계적 이슈제기 및 공론화
- 통계의 수집, 분석, 작성등과 관련 개선 권고

○ 구 성

- 24개 회원국 및 옵저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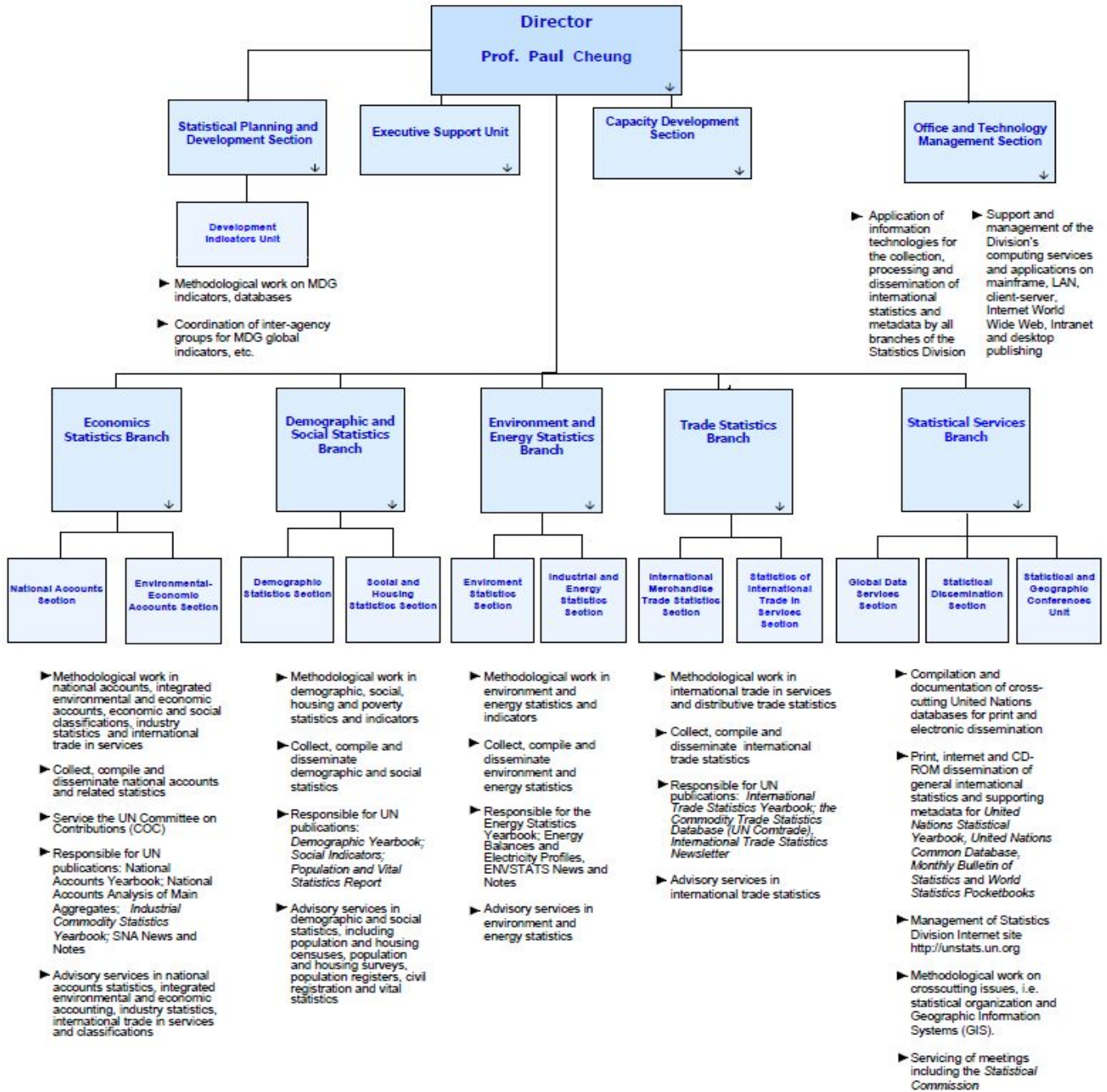
○ 회원국 현황(2010.12월 말 현재)

- 아시아·대양주(5) : 호주, 중국, 일본, 레바논, 오만
- 유럽·기타(6) : 독일, 이태리, 네덜란드, 노르웨이, 영국, 미국
- 중남미(4) : 콜롬비아, 온두라스, 멕시코, 수리남
- 아프리카(5) : 보츠와나, 카메룬, 모로코, 수단, 토고
- 동유럽(4) : 아르메니아, 벨라루스, 리투아니아, 러시아

6) UN통계처 조직도



United Nations Statistics Division



United Nations locations in New York City
as of November 2009, rev. October 2010

For internal use only

1	Secretariat (S), General Assembly (GA), Library (L), South Annex (SA), Conference Building (CB), and Temporary North Lawn Building (TNLB)	405 E. 42 nd St. (1 st Ave. at 46 th St.)
2	DC1 (DC1) (1 UN Plaza)	1 st Ave. at 44 th St.
3	DC2 (DC2) (2 UN Plaza)	323 E. 44 th St.
4	UNICEF House (H) (3 UN Plaza)	44 th St. (between 1 st /2 nd Ave.)
5	FF Building (FF)	304 E. 45 th St.
6	UNITAR Building (U)	801 UN Plaza (Pass Office entrance on 1 st Ave., other offices entrance on 45 th St.)
7	Alcoa Building (A)	866 UN Plaza

8	Albano Building (AB)	305 E. 46 th St.
9	1 Dag Hammarskjold Plaza (DHP)	885 2 nd Ave.
10	Teachers' Bldg/TIAA CREF	730 3 rd Ave.
11	Madison Building (M)	380 Madison Ave.
12	Chrysler Building (CB)	405 Lexington Ave.
13	Daily News Building (DN)	220 E. 42 nd St.
14	Innovation Luggage Bldg. (IN)	300 E. 42 nd St.
15	Mobil Bldg (MB)	150 E. 42 nd St.
16	UNFCU / Court Square (CS)	24-01 44 th Rd., Long Island City, NY
17	Falchi Building (FAL)	31-00 47 th Ave., Long Island City, NY

(* = Internal Mailing Building Code **M** = MTA Subway Service)



7. 참고 자료

1) 러닝센터 발표자료(경기순환시계)

2)후버연구소 면담자료

IX. 회의의제 자료(영문)

1) 유엔통계위원회

2) OECD의장단 회의

3) 고위급 포럼

4) 참가자 명단